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1월 18일)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은 가톨릭에 편향된 지원법”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 회의서 지적

여야 국회의원들 특별법 발의
종교행사에 국무총리가 위원장
행사시설 10년간 국비지원 명문
“법률 검토 및 대응” 한목소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7년 서울에서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행사 주체인 가톨릭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장관 이름이 명시돼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는 12월 9일 ‘불기2568년도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다종교 사회에서 타 종교와의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가 1986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세계 젊은이의 날’의 국제행사로 2~3년 마다 교황이 지정한 교구에서 대규모 국제 종교행사를 개최한다. 2023년 8월 포르투칼 리스본 테주공원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 폐막일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7년 차기 대회 개최지로 한국을 발표하면서 행사 준비가 급물살을 탔다. 국내 가톨릭은 대회에 약 80만명에서 10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언급된 문제의 특별법안은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59인이 제출한 ‘2027년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세계청년대회 관련 주요 정책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에 국무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 발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11월 8일 심사 회부된 상태다.

이와 함께 11월 19일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11인은 같은 제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계청년대회 이후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및 국제 친선활동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총무분과위원 선광 스님은 “제출된 법안은 특정 종교 대회를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발상 자체가 종교 편향”이라면서 “법안을 제지하는 일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만당 스님은 법률안을 조목조목 따졌다. 스님은 “법률안 제19조에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 시설 신축 개보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특정종교 행사 지원을 넘어 향후 10년에 걸쳐 운영비까지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종단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제18조에서 규정한 정부지원위원회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장 심우 스님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 장관들이 특정종교 행사를 위한 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명백히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우 스님은 “세계청년대회를 대비해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 등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한국사회에서 특정종교만을 위한 사업과 그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종교간 차별과 편향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종단차원의 대응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들은 대회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범 스님은 “다른 나라에서 행사 규모를 살피고, 실제 참석 인원을 면밀히 조사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설해 스님은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에 조계종 스님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종단 차원에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총무분과위원회는 총무원 총무부와 기획실, 사회부에 꾸준한 모니터링과 함께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법안 통과 저지와 폐기를 위한 대응조직 구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사 3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연말을 맞아 12월 10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와 의정부 영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의 건강한 앞날을 기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아이들을 위한 ‘고운 생각 고운 얼굴’ 이라는 격언을 직접 붓글씨로 써서 전했다. 또한 아이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고운 생각 가진 인재로 자라나거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12월 10일 자비 나눔 방문
경기 아동일시보호소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2월 10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와 의정부 영아원을 방문, 아이들의 건강한 앞날을 기원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자비나눔 방문에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봉선사 총무국장 보관 스님이 참석했다. 윤기원 대한사회복지회 이사장,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이상엽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김수진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영아원장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동참한 가운데, 영화 ‘대가족’의 이승기·김성령 배우, 양우석 감독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학대, 결손, 기아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0세에서 만 18세까지 아동을 보호한다. 이날 진우 스님은 보호소의 시설 전반을 살피고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생아들을 보호하는 영아반에 이어 아이들이 공부하는 장소 등을 살펴본 진우 스님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불우한 이웃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시설의 발전이 절실하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환경이 마련되고 부모를 위한 정신 건강 돌봄 체계도 준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라운딩을 마친 진우 스님은 시설 발전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붓으로 그리는 희망 이야기’는 진우 스님이 아이들을 위한 덕담을 직접 붓글씨로 써서 전달하는 행사였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붓을 든 진우 스님은 아이들을 위해 ‘고운 생각 고운 얼굴’이라는 글귀를 썼다. 의정부=김가령 기자

진우 스님 “세계명상의 날 환영…선명상 대중화 박차”

조계종 ‘UN 세계명상의 날’ 제정 논평

UN이 12월 21일을 ‘세계명상의 날(World Meditation Day)’로 제정한 것에 대해 조계종이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12월 11일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로 환영문을 냈다. 진우 스님은 환영문에서 “조계종은 10월 8일 뉴욕 UN본부를 방문해 세계명상의 날 제정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사부대중의 평화를 위한 염원들이 세계명상의 날 제정에 기여됐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UN 세계명상의 날 제정을 계기로 우리 종단에서는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더 한층 박차를 가해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에 이를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UN은 12월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명상의 날’을 제정하자고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모든 회원국과 지역 기구, 비정부 기구 및 개인을 포함해 시민사회가 적절한 방식으로 세계명상의 날을 기념해 명상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은호 기자

다음 호는 2025년 신년특집호
1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혁신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리더를 육성합니다.

혁신과 상상이 즐거운 대학
경계를 허물고 함께 성장하는 대학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

2025학년도 정시모집 2024.12.31.(화) 10:00 ~ 2025.01.03.(금) 17:00

선명상 대중화·세계화…조계종 조직개편 박차

2024 종단 결산

선명상대회로 국민 마음평안 기여
조계종, 30년 만에 조직개편 박차
주요 종단들 수장 선출로 '활기'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선명상 대중화 한발짝 더

2024년 한국불교는 장자종단 조계종의 제37대 집행부가 주요 종책으로 추진하는 '선명상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 37대 집행부는 출범 당시부터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명상센터 건립 등을 종단적 불사로 전개했다.

9월 28일 광화문에서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는 선명상 대중화의 포문을 연 행사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간화선을 기반으로 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선명상센터 건립 등을 통해 선명상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하고 '전 국민 5분 선명상'을 제안했다. 조계종은 선명상 안내서를 비롯해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선명상 실천을 돕고 있다.

10월 5~13일에는 미국 뉴욕을 방문,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를 통해 K-선명상과 한국불교 세계에 알렸다. 120여 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8일간의 일정 중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내면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명상을 소개함으로써 미국 사회에서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방미는 한국불교 고유의 문화를 소개함과 더불어 철학, 과학과 맞닿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유하고 선명상을 통해 마음평안과 행복을 찾는 여정을 미국 사회에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를 염원하며 올 한 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은 미국 예일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 모습.

조계종 조직개편 박차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30년 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체계로 운영됐던 조계종이 총무원 1원 체계로 탈바꿈한다. 조계종은 올 한 해 조직개편을 위한 8차에 걸친 미래특위 회의와 공청회, 단위보고와 협의 등을 거쳤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0일 열린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현행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12부실 17개국에서 총무원 10부실소 13국으로 개편된다. 일원 체재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후반기 시작

11월에는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가 후반기를 시작했다. 후반기 중앙종회의장에는 주경 스님, 수석·차석부의장에는 태효·경암 스님이 소임을 맡는다. 원 구성을 마친 이들은 정기회를 통해 첫 의정 활동을 시작, 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논의하고 원안인 909억 5000여 만원을 확정했다.

불교계 주요 종단도 바쁜 한 해

불교계 주요 종단들도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올해로 제28대 집행부 1년 차를 맞은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단의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종조 태고 보우 국사 선양사업을 통해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진, 중국 후저우시불교협회와 태고보우 국사가 임제 18대 법손 석옥 청공 선사에게 법을 인가받은 중국 후저우 천호암에서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법원루)' 기공·시삽식을 개최했다.

태고종은 송현광장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막아내기도 했다. 상진 스님은 '종교편향불교유린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활동에 나섰고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현광장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철회하고 태고종 총무원 청사를 방문해 사과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한국 대표 밀교종단들의 수장들이 교체되기도 했다.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에는 능원 정사가 선출됐다. 능원 정사는 12월 10일 열린 취임법회에서 "감동교화로 새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월 17일 임기를 시작한 불교총지종 제13대 종령 지성 대종사는 6년 동안 총지종도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게 된다. 불교총지종 제21대 통리원장에는 록경 정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12월 27일부터 3년 간이다.

사회 곳곳에서 이어진 자비 실천

2024 사회·NGO 결산

오체투지, 시국선언 동참
청년 대상 사업 활성화
국내외 구호활동 이어져

2024년 불교계는 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였다. 2030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 사업을 여럿 펼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교계 NGO단체들은 국제 구호현장에서 이재민과 현지인을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행보를 펼쳤다.

올해도 불교계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했다. 또한 연말에 전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초 이태원특별법 공포 촉구를 시작으로 연대가 필요한 이들의 편에 섰다. 6월 한 달간 전국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가족 지원 정책 촉구 오체투지에 참여했다. 성소수자, 노동자, 홈리스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대학 인근 사찰에서 무료로 점심을 나누는 '청년밥心'은 청년 복지 사업의 모델이 됐다.

12월 3일 밤중 발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불교계에서도 소리 높여 비판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성명문을 통해 역사의 후퇴인 비상계엄을 사퇴로 참회하라며 규탄했다. 불교인권위원회와 범불교시국회의는 비상계엄이 위헌임을 짚고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어 동국대 학생들은 비상계엄 이후 첫 대학생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도 규탄 성명문을 발표해 국민의 주권 보장을 촉구했다.

청년 전법 바람이 분 불교계에서는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전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대학생들을 위한 점심 지원 사업 '청년밥心'을 시작했다. 6월 서울 연화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사찰 3곳에서 진행 중이다. 전국적 이목을 끌었던 '나는 절로'는 인연 만남에 어려움을 겪는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 세대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한 '나는 절로'는 낙산사 편에 1501명이 접수하며 공무원보다 높은 경쟁률인 77대 1을 기록했다.

불교계 NGO 단체들은 자연재해와 인프라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국제 구호현장에 뛰어들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차양막 설치와 식료품을 나눴다. 또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첫 한국 법당을 개원하며 아프리카 농업 발달과 한국불교 전법에 역할을 했다. 로터스월드는 본지와 협약을 맺고 수인성 질병에 노출된 미얀마 국민을 위한 정수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했다. 사찰과 신도들의 원력으로 7월부터 현재까지 미얀마에 정수시설 3곳이 자리 잡게 됐다.

김가령 기자

2024 전법 키워드…'Hip 불교' '단기출가'

2024 포교·신행 결산

국제불교박람회, 불교 AI뮤직 등
신선한 모습으로 2030세대 매료
'단기출가' 새로운 삶 모델 제시

2024년 불교를 장식했던 키워드는 단연 'Hip(힙) 불교'였다. 국제불교박람회, AI 등 젊고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불교는 MZ세대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또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대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출가자 절벽시대'에 정식 출가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Hip 불교' MZ 사로잡다

올 한해 한국불교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라고 한다면, "불교 또 나 빼고 재밌는 거 하네!"가 아닐까. 한자와 심오한 교리로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가졌던 불교는 '힙(Hip)'하다는 수식어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환골탈태해 2030 MZ 세대를 사로잡았다.

시작은 올해 4월 서울무역전시컨벤



2030세대로 인산인해를 이룬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뉴진 스님이 선보인 EDM퍼포먼스는 청년들 취향을 저격했다.

선센터(SETEC)에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였다. 개막 당일부터 SNS로 입소문을 탄 박람회는 2030 세대로 인산인해였다. 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 '뉴진 스님'이 선보인 EDM 퍼포먼스는 청년들 취향을 저격했다.

AI로 만든 불교음악인 '불교 AI뮤직' 역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행했다. 특히 유튜버 '곰딴'이 AI로 제작한 '반야심경' 영상은 12월 9일 기준 88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힙한 불교' 열풍을 이어갔다.

청년세대를 사로잡은 '힙한 불교'는 청년·대학생 전법의 촉발제로 작용했다. 동국대는 9월과 11월 서울·WISE 캠에서 '영캠프' 수계법회를 봉행, 4500여 명의 대학생이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다. 또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대학생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다. 8월에는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상월청년회 6기'가 출범하고 봉녕사 청년회는 9년 만에 재창립됐다.

단기출가 프로그램 확산

올해 각 사찰에는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성황을 이뤘다. '단기출가'는 불확실한 미래와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안과 힐링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실제 출가로도 이어져 주목된다.

수원 봉녕사는 한 달간 비구니 승가를 체험하는 '여성출가학교'에서 출가 희망 참가자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평창 월정사는 '단기출가학교' 프로그램이 올해 7월 20주년을 맞아 '2024 월정사-우든피쉬 글로벌 명상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계 각지에서 온 80여 명의 외국인 청년들은 삭발하고 계율을 받아 4주간 출가생활을 체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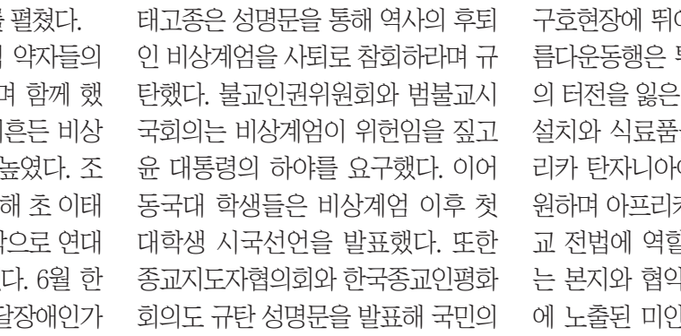
서울 조계사에서도 4월과 8월 '조계사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김민재 기자

(사)날마다 좋은날

행복바라미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행복!



모금계좌 국민은행 023537-04-003561 (사)날마다좋은날
ARS기부 060 - 701 - 0108 (1통화 5천원)

점성술이나 제사 등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불법을 배웁시다.

참종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10명의 신도만 확보해도 사찰운영이 가능합니다.**

참종불교대학에서 새로운 불교를 만나보세요.
참종불교대학에서 2025년 승려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종불교대학 승려반 설명회

일 시 2025년 1월 6일(월요일) 오후 2시
장 소 참종불교대학 참종사 (서초구 방배동)
참가자격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님
점성술이나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사찰을 운영하고 싶은 스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스님
스님이 되고 싶은 재가자

참가신청은 QR코드로 ▶
문의 02)532-0012

‘세계청년대회=선교대회’…특별법 제정은 ‘위헌’

여야의원 70명 특별법 2안 발의
단발 종교행사에 역대급 지원해
정부지원위에 국무위원까지 배치
행사 시설 2037년까지 국비 지원
헌법 상 ‘정교분리’ 원칙 무시해
“사실상 가톨릭 위한 지원특별법
전 종교인이 나서 상정 막아야”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천주교 대표 국제 행사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골자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은 명칭 자체에선 전 세계 청년들을 위한 대회처럼 보이지만 대회 전반에서 고해성사, 미사 등이 진행돼 실상은 천주교식 예배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회가 나서 특정 종교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다종교 사회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특정 종교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은 국회 여야 의원 총 70여 명의 주도로 11월 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됐다. 두 법안에서는 세금 감면, 시설 사업비 지원 등 법적·물적 공공자산이 세계청년대회에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의원 59명이 11월 7일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하천법·도로법·수도법 등 부담금 감면(제9조) △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제10조) △장관급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구성(제18조) △국가·지자체의 대회 관련 시설 개축·보수 사업비 지원(제19조) 등이 명시돼 있다. 발의된 법안은 세금 감면, 매입의무 면제, 사업비 지원 등 대회 운영의 편의를 위한 조항이 대부분이다.

특히 제18조(정부지원위원회)는 국가장관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항에는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장관 16명을 명단에 포함했다. 국가고위 공직자를 끌어들여 대회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이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단발성 종교행사를 위한 지원위원회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1급 공무원들을 대거 배치한 것은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흐린다”면서 “앞선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한 국가들에서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선례가 없어 정교분리 헌법 위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한국이 선정된 후 7월 28일 발대식이 개최됐다. 사진은 cpbcTV 라이브 방송 캡쳐.

11월 19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의원 11명이 발의한 특별법안 제26조(후속사업)에는 세계청년대회 이후 조성될 국제순례지의 시설(체험장, 전시관, 시설 진입도로, 응급의료시설, 전기·전자·통신·가스 시설)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또한 부칙에 해당 법안은 203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서술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종교 행사에서 파생된 시설 측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대회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발의에 앞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해 법안 효력의 항구성을 노렸다. 19일 발의된 법안의 부칙에는 ‘법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회 종료 후 조직위원회인 재단법인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법안의 효력이 계속 이어져 천주교 시설 일체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게 된다.

조계종 종회의원 만당 스님은 “2차로 발의된 법안의 부칙에는 특별법이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했는데, 이것은 조직위원회인 재단법인이 유지되는 한 천주교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어진다고 못 박는 사항”이라며 “종교 행사인 세계청년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법령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항구성을 보장하는 부칙까지 포함한 특별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건 천주교 선교 목적이 뚜렷하며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실제 세계청년대회는 한국 개최가 확정된 준비 단계부터 천주교 교리 전파 성격이 강했다. 7월 28일에 개최된 세계청년대회 발대식에서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은 “세계 젊은이들이 대회에 모여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지훈 청년대표도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과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종교적 의도를 드러냈다.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곧 특정 종교 지원과 일치된다는 점을 방증한다.

심지어 가톨릭신문 등에서는 다종교 사회에서 모든 종교를 아우르기 위해 “조직위원회 법인 이사진에 조계종 스님, 기독교 목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역시 자칫 모든 종교계가 세계청년대회의 취지와 관련 법안 발의 등 전반을 찬성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높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향문 스님은 “만약 처음부터 행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위원회 구성원들을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선임했어야 한다”며 “법인에 타 종교인들이 포함됐다고 해서 특정 종교 행사가 공공성을 가진 보편적인 행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향후 불교계는 공공재의 종교적 사용과 헌법 수호를 위해 전 종교계가 나서 특별법을 제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이자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광 스님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종교행사를 위해 세금 감면 등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 우대로 비춰져 다종교 사회인 한국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한국의 전 종교계가 나서서 성명을 내고 법안을 제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계종, ‘사찰’ 이모지 도입 대책 마련한다

12월 6일, 종교편향특위회의
“종단 차원 대응책 마련 필요“
사회부 공모 통한 도입 추진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문자코드 ‘이모지’에 불교 사찰이 제외된 점이 본지 보도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조계종에서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편특위)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불교 상징 이모지 도입에 대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종편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은 본지가 보도한 ‘삼성 갤럭시 이모지엔 ‘불교 사찰’이 없다’ ‘전 세계 이모지서 ‘사찰’ 왜 누락됐나’ 등을 언급하며 사안을 공유했다.

선광 스님은 “스마트폰 이용자 대다수가 사용 가능한 문자코드 ‘이모지’에 불교를 상징하는 이모지가 없는 것은 명백한 종교 편향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불교계 차원의 정확한 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광 스님은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이 사용하는 기호 중 불교를 상징하는 기호가 없는 것은 불교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현대불교신문의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한국불교와 종단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불교 사찰’ 이모지가 도입되게끔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유니코드 협회는 매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모지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이모지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힌두교 신자들이 2017년 공모에 참여해 2019년 힌두교 사원 이모지 도입에 성공한 바 있다.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이모지에 ‘불교 사찰’을 구현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 종교 다양성 현실화를 위한 시작점일 수 있다”면서 “사회부 차원에서도 유니코드 협회와 접촉하며 진행되는 이모지 공모에 집중해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7년 천주교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제정 △신천지의 불교 이미지 도용 △차량 내장 내비게이션 내 사찰 검색 불가 △해미읍성·홍주읍성 천주교 성지화 등의 종교 편향 사안을 알리고 대응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종편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찾지 못하는 종교 편향 사안은 언제든지 누구나 적극적으로 종편특위에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가령 기자

이병두 원장 “주어사지, 종교화합 성지 만들자”

역사바로세우기 학술세미나서
“여론 통해 천주교 압박” 강조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도심 스님)와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는 12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천진암-주어사지 종교갈등 해결을 위한 실체적 접근’을 주제로 역사바로세우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발표 발제자로 나선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위원장〈사진〉은 천주교 성지화 매진 배경을 설명한 후, 주어사지 성지화에 대한 문제를 짚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한국 천주교는 불교 사찰인 경기도 광주 천진암과 여주 주어사에서 강학회가 이뤄지면서 뿌리를 내렸다는 게 통설이다. 목숨을 걸고 서학(천주학)을 강학케 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이뤄진 일방적인 천주교의 성지화는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주어사지를 종교화합의 성지로 만들 것을 지자체와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여주시가 주어사를 둘러싼 천주교와 불교 사이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이곳을 ‘종교적 관용과 화합’을 상징하는 범종교적 성지로 만든다면 주어사는 세계적인 성지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불교와 천주교의 협조를 받아 국가 주도로 종교화합의 성소(聖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민관합동협의기구를 구성해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대화를 이어간다면 의견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한국 천주교의 과도한 성지화를 막기 위한 ‘시민공론의 장’ 구성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전국 수많은 도로에 ‘순교 성지’ 표지판을 고동색으로 표시해뒀다. 고동색 표지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이처럼 중앙과 지방정부가 천주교 순교 사업에 편중된 자세를 보이는 데 시민들의 공론(公論)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기자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4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4 생명살림 법회(조계사)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2월 22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 내 용 : 화두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남전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장)
◈ 문 의 : 02-737-7378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능원 정사 "감동교화로 시대 선도를"

진각종, 통리원장 취임법회
신행문화 개발 · 전개 '역점'
인재양성으로 종단 미래 모색
32대 집행부 · 교구청장 소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 능원 정사가 32대 집행부와 전국 8개 교구청장을 소개하고 있다.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 능원 정사가 공식 취임했다. 능원 정사는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감동교화의 신행문화를 개발·전개해, 진각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진각종은 12월 10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제32대 통리원장 능원 정사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한 이날 법회에는 진각종 총인 덕일 대종사와 종의회의장 증혜 정사, 현정원장 대원 정사, 교육원장 정법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상명 정사,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원혜 정사, 위덕대 총장 회성 정사 등 종단 스님들이 참석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 천태종 종의회 부의장 경천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과 정용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이 함께해 능원 정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능원 정사는 취임사에서 '감동교화, 새 시대를 열자'를 기본정신으로 위의 뜻을 잘 받들고, 아래 사정을 잘 살펴 마중물과 같은 종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능원 정사는 "감동교화는 스스로 감동하고 가족과 이웃을 감동시켜 교화하고 포교하자는 뜻"이라며 "전통을 잇는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그 가르침이 현시대와 젊은 세대에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능원 정사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명제 아래 인재양성에 종무행정을 집중하겠다"며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종단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능원 정사는 32대 집행부와 전국 8개 교구청장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봉행위원장 법운 정사(총무부장)는 "오늘 취임불사를 갖고 32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해 종단의 새로운 종무행정을 이끌어갈 능원 정사님은 스승과 신교도들이 감동할 수 있는 교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신행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새 집행부도 '감동교화, 새 시대를 열자'는 정신을 굳건하게 견지하면서 통리원장님의 뜻을 헤아려 신교도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대방편으로 수행과 교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전국 불교도들 "윤석열 하야·퇴진" 촉구

조계종 중앙종회, 대불련
불교인권위, 중승대 학생회
전북 5대 종단 종교인 등
한 목소리로 퇴진 요구해

비민주적 비상계엄 선포에 전국의 불교도들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종회는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우리 역사와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전통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혼탁한 정치적 투쟁과 난마와 같은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국가의 어려움을 더 키우지 않기를 바란다"며 하야를 요구했다.

조계종 승가교육기구인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도 같은 날 윤 대통령 퇴진에 힘을 모았다. 중앙승가대 제44대 총학생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개인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국민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

불교인권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 윤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의힘 정당 해체를 요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도관 스님)와 불교평화연대는 12월 8일 '내란 쿠데타 주범 윤석열, 국민의힘, 내각은 즉각 사퇴하라'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주현우)도 12월 6일 비상계엄을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전북지역 불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개신교 5대 종단 종교인들은 12월 10일 전주 고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사임이야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은호·김가령·김민재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선학원 이사장, 정상화 의지 보여야"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 12월 10일 공청회

수경 스님, 종법 개정 이뤄져야
두 기관 갈등으로 피해 이어져



"선학원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들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이나 중앙종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를 위해 법 개정도 있었으나, 선의와 다른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단과 선학원이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총무원장과 이사장이 함께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관계 정상화는 곧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국비구니회 수석 부회장 수경 스님〈사진〉이 조계종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12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재)선학원 소속 분원 가등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도제권리 제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50여 년간 조계종단과 선학원은 수십 차례 갈등과 협상을 지속해 왔지만, 선학원에 사찰을 등록한 스님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줄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종단과 선학원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선학원 소속 사찰의 창건주 및 분원장, 도제는 권리제한으로 인해 조계종 승려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승려복지 혜택은 물론 교육과 수계 권리까지도 제한받고 있으며 선학원에서는 종단 제적원 제출까지 요구받는 상황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수경 스님은 발제 '선학원 소속 사찰 스님의 권리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에서 "도제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종단과 선학원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서로 합의점을 만들고 조계종 총무원장과 선학원 이사장이 만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리제한 해제를 위한 방안모색으로 네가지를 제안했다. △2011년 종회에서 발의됐지만 부결된 '도제 권리 해제를 위한 종법개정안'을 한 번 더 검토할 것 △2017년 선학원 소속 스님들의 구제를 위해 신설된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 2항 4호를 근거로 권리제한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제5조(상임위원장) 1항에 의거해 추진위원장이 먼저 있어야 한다면 추진위원장 추대로 추진위원회가 가동될 것 △중앙종회 내 상설 기구로서 (가칭)선학원 관계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등이다. 임은호 기자

나눔의집 신임 대표이사에 세영 스님 선출

12월 5일 임시이사회서 만장일치
"나눔의집 문제해결 최선 다할 것"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신임 대표이사에 경기 수원사 회주 세영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나눔의집은 12월 5일 경기 광주 나눔의집 역사관 1층 교육관에서 '2024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세영 스님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이는 성화 스님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 사표 제출에 따른 조치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로 올해 들어 입소자 부재의 문제를 겪었다. 거주 할머니들의 사망 혹은 노령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 등이 그 원인이다. 이 때문에 나눔의집이 가진 양로시설 기능이 희박해지자 법인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전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올해 10월 이사회에서 나눔의집 양로시설 폐지 후 역사관 형태로 변경해 국가 혹은 지자체가 운영할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불교계의 원력으로 세워져 30년간 운영돼 온 나눔의집이니 되도록 불교계가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눔의집 새 대표이사로 선출된 세영 스님은 "나눔의집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영 스님은 "나눔의집 대표이사를 맡으며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보니 어깨가 무겁지만, 앞으로 잘 이끌어나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면서 "나눔의집은 단순히 불교계 시설이라는 점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이 남은 현장이기에 추모와 역사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현재 나눔의집이 가진 사안 전반의 해결을 위해 법조, 행정, 복지 등 다방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가령 기자

"한국불교를 세계로!"…제1회 국제전법의 날

해외특별교구 · 국제전법단
해외포교 공로자 표창 시상



제1회 국제전법의 날 참석대중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가 해외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스님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가 주최하고 국제전법단(단장 정범 스님)이 주관하는 '제1회 국제전법의 날' 행사가 12월 7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해외포교에 헌신한 '국제전법인'들을 격려하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대한 원력을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불교 세계화와 해외포교를 위해 다들 열심히 정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같이 희망을 나누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저도 미력하지만 함께 하며 많이 교류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안국선원 이사장 수불 스님은 미국, 뉴질랜드 등에 선원을 설립하고 해외 한국 사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해외특별교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해외포교에 앞장섰던 스님과 재가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총무원장상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진오 스님이 선정됐다. 진오 스님은 국내외에서 이주민 포교를 위해 정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교원장상은 국제전법단 부단장 자우 스님과 박정미 불자가, 해외특별교구장상은 뉴저지 원적사 주지 성향 스님, 국제포교사회장상은 정경래 국제포교사가 수상했다. 김민재 기자

남북 불교유산, 유네스코 등재 방안 모색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민추본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남북 불교유산의 유네스코 공동등재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북한연구학회(회장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2월 6일 동국대 사회과학과 M308호에서 '21세기 지구촌의 과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대회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와 북한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민추본은 전체 4개 회의 중 제1회의에서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협력의 가능성과 과제-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조선시대 언해불서의 현황과 유네스코 기록유산 공동 추진의 가능성 모색(천명희 국립안동대 박사) △지속가능한 남북불교협력 방안 모색 : 금강산 평화순례길과 유네스코 활용을 중심으로(허정필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로 이어졌다. 또한 박순 경상북도불교문화원 상임이사와 이정호 세계경제외교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가령 기자

서울 도선사, 불교대학 첫 졸업생 80명 배출

태원 스님 "신심과 정진 결실"
"불법 포교에 앞장설 것" 다짐



서울 도선사 불교대학이 첫 졸업생 80명을 배출했다. 조계종으로부터 공식인가를 받은 후 처음으로 배출된 졸업생이라 의미가 크다.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12월 7일 경내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제1회 도선사 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1년간의 과정을 성실한 이수한 한 졸업생 80명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선사 불교대학은 올해 3월 15일 개강했다. 입학생 91명은 부처님 생애(정완 스님), 불교개론(법수 스님), 불교사의 이해(정완 스님), 경전개설(이재수 교수), 불교사의 이해(한성자 교수, 정완 스님), 경전개설(이재수 교수), 불교심리학(수안 스님) 등을 과목으로 1년 동안 수업을 이어왔다.

주지 태원 스님은 졸업생들에게 "신심과 끊임없는 정진의 결실"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도선사 불교대학 1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가르침을 널리 포교하는데 앞장서 달라"면서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다가올 2, 3기 후배들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선배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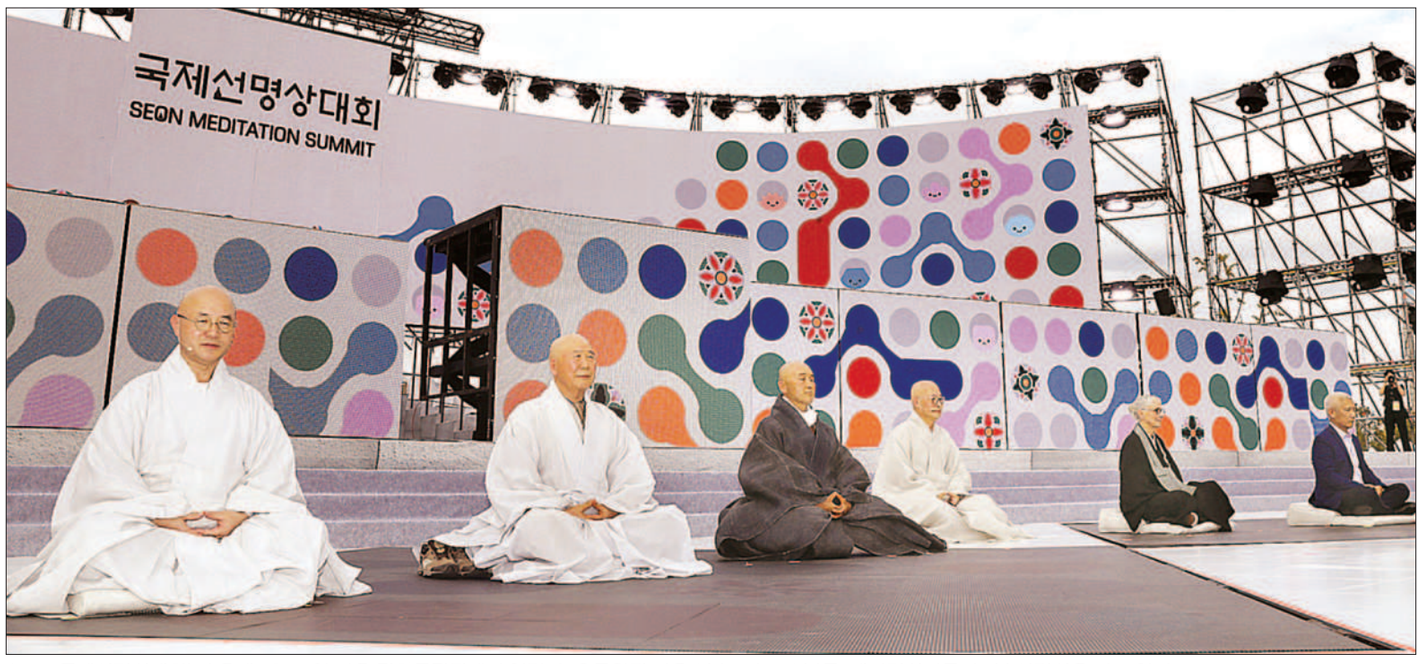
불교대학장 남일 스님은 졸업생들에게 품계수여와 함께 '부동품계' 뱃지를 달아주며 졸업을 축하했다.

이은영 씨는 졸업생을 대표해 낭독한 발원문에서 "부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도선사의 발전과 불법 포교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선명상으로 국민 평화, 힙한 불교로 트렌드 사로잡다

현대불교신문 선정 2024년 10대 뉴스

올해 한국불교는 대중의 마음에 공감하며 변화와 성장을 이룬 한 해였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선명상으로 안정과 평화를 전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대학생 청년 등 젊은 세대의 포교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사찰 소개팅 프로그램인 '나는 절로'가 큰 인기를 끌며 새로운 붐을 일으켰다. 불교계 내부에서는 주요 종단과 신행 단체의 수장이 교체되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조계종은 기존 체계를 1원 체계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반면, 선지식 스님의 원적과 사찰 이모지 누락과 같은 아쉬움도 남겼다. 한 해를 장식한 한국불교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2024 국제선명상대회'가 올해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수좌스님들, 해외명상가들이 5분 선명상을 하고 있다.

1. 선명상 대중화

2024년은 선명상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화의 가능성을 엿본 해다. 조계종은 9월 28일 '2024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선명상 대중화에 포문을 열었다. 간화선을 기반으로 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선명상센터 건립 등을 통해 선명상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하고 '전국민 5분 선명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계종은 선명상 안내서를 비롯해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선명상 실천을 돕고 있다.

10월 5~13일에는 미국 뉴욕을 방문,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를 통해 K선명상과 한국불교 세계에 알렸다. 예일대 특강, 석학들과의 대담은 선명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불교의 진수를 선보이는 시간이 됐다.

2. 힙한 불교, MZ 포교 이끌다

'뉴진 스님' '불교 AI뮤직' '깨닫다' 티셔츠 등 2024년 올 한해 불교는 'Hip(힙)'했다. 어렵고 고리타분한 편견에서 벗어나, 재밌고 개성 있는 모습으로 무장한 불교는 MZ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서울·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2030 세대로 인산인해를 이뤄, 방문한 관람객 수가 전년대비 3배 증가했다. 이 같은 '힙한 불교' 열풍은 대학교와 국내 서점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국대에서는 '영캠프' 수계식을 봉행해 4500여 명의 대학생 불자가 탄생했으며, 불교 입문서가 올해 관련 도서 2030 세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회암사 불조사리 친견 천일기도'가 양주 회암사에서 봉행됐다.


장성 백양사에서 진행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출가학교 참가자의 삭발을 진행하고 있다.

3. 대학생 전법 활성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력으로 본격화된 '대학생 전법'이 올해에는 빠르게 활성화됐다.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던 곳은 조계종립 동국대다. 동국대는 이사장 돈관 스님을 중심으로 29개 단과대학에 불교 동아리 창립을 이뤄냈고,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캠프' 수계법회를 봉행해 이들을 불자의 길로 이끌었다. 이를 통해 배출한 불자가 서울캠퍼스에 2500명, WISE캠퍼스에 1800명에 이른다.

사찰들의 대학생 전법 지원도 눈길을 끌었다. 월정사는 강원대 인문대학 내 불교탐방동아리 창립을 견인했으며, 봉은사에서는 대학생 버전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불자 교수 단체인 한국교수불자연합은 대학마다 교수불자회 창립을 통해 캠퍼스 전법을 추진할 뜻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4. 전국을 휩쓴 '나는 절로' 열풍

힙한 불교 열풍과 함께 떠오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는 '사찰 소개팅'이라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독특함 덕분에 1년 내내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강화 전등사, 양양 낙산사, 장성 백양사 등 매 기수마다 높은 경쟁률은 물론 4쌍, 5쌍, 심지어 7쌍의 인연이 쏟아져 "결혼정보회사보다 높은 커플 매칭률"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저출산 인식 개선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환경 조성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나는 절로'는 내년 봄 하동 쌍계사에서부터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5. 선지식 잇달아 원적

올해는 유독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어른스님들의 원적 소식이 많았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가 5월 1일 원적에 들었다. 스님은 원적 직전까지 보조국사의 업적을 널리 선양하는 불사는 물론 보조학술상 제정에도 큰 힘을 기울였기에 안타까움이 더했다. 11월 4일 금강선원장 혜거 대종사가 원적했다. 대종사는 1988년 서울 개포동에 금강선원을 개원하고 참선과 교육을 중심으로 전법·포교행을 펼쳤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불국사 회주 대궁당 종상 대종사가 11월 8일 불국토 토함산의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종상 대종사는 종단 각종 소임과 종회의원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을 이끌었다.

6. 조계종 다시 일원 체재로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30년 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체계로 운영됐던 조계종이 총무원 1원 체재로 탈바꿈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0일 열린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현행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12부실 17개국에서 총무원 10부실소 13국으로 개편된다. 총무원 조직 산하 기관 및 종무원장 직속에 대해 종령으로 명시하며 종단 전법 포교 시스템 재구축 및 강화, 스님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일원화와 함께 미래 불교 대비를 위한 연구 조직이 신설될 예정이다. 일원 체재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7. 단기출가 관심 고조

출가자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찰이 운영하는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현대인의 관심을 끌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오대산 월정사는 올해 출가학교 20주년을 맞아 미국 우든 피쉬재단과 글로벌 불교 체험의 장을 열었다. 22개국 80여 청년이 참석해 한 달간 명상·참선·3보1배 등을 경험했다. 수원 봉녕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가학교를 열었다. 올해 열린 1·2기 출가학교에서는 실제 출가자를 배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내년 1월 중 3기 여성출가학교가 시작된다. 서울 조계사도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젊은 세대가 친근하게 불교적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8. 해외 유출 성보 환지본처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본래 자리를 떠나있던 불교문화 유산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와 나옹선사·지공선사 사리가 100년 만에 본래 소장처인 양주 회암사로 돌아왔다. 3여래 2조사 사리가 한 번에 사찰로 돌아와 예경 대상으로서의 본래 가치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승탑의 백미'로 불리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도 113년 만에 본래 위치에 복원됐다. 최근 5년여간 정밀 복원 작업을 거쳐 올해 11월 법천사지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스마트미술관이 소장한 예천 보문사의 신중도도 도난 35년 만에 반환을 확정했다.

9. 사찰 이모지 누락 논란

온라인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그림문자, '이모지'에 '사찰'이 누락돼 논란이다. 발단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였다. 기독교, 이슬람교 심지어 일본 토속신앙 신토를 상징하는 종교적 장소 이모지는 있는 한편, '사찰' 이모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전 세계 기업에 이모지 표준코드를 배포하는 미국 유니코드 협회에 사찰 이모지 표준코드가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4~8월 협회는 신규 이모지 공모를 연다. 협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이모지를 제작·신청한다면 사찰을 온라인 이모지 창구에서 만날 수 있다.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범불교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10. 불교 종단 · 단체 새 수장 취임

불교계 종단과 신행 단체에서 새로운 수장이 탄생했다.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 능원 정사가 12월 10일 공식 취임했다. 능원 정사는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동교화로 진각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총지종 제21대 통리원장에는 록경 정사는 11월 19일 중앙종의회에서 선출, 12월 27일 임기 시작한다.

제28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10월 2일 취임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제33대 중앙회장에는 이길수 건축사사무소 혜연 대표가 선출됐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63년차 중앙회장에는 유주연 창원지부장이 단독 출마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시군구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생활 속 도움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서민금융콜센터	139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일자리 정보안내	1544-3388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청소년·청년·여성의 고민

청소년상담 (전화상담/사이버상담/문자상담)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카카오톡/페이스북/앱/1661-5004 문자상담)	다들어줄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푸른나무재단 전화상담)	1588-9128
국방헬프콜 (전화상담/사이버상담/APP상담)	1303
온통청년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www.youthcenter.go.kr	
여성긴급전화 (전화상담/사이버상담)	1366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존중 사업안내

불교상담개발원은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서원하며
생명존중을 위해 늘 정진하고 있습니다.

- 생명살림(생명살림법회, 캠페인, 포럼 등)
- 생명이음(종교예식, 템플스테이, 자조모임 등)
- 생명지킴(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담)

전화번호 : 02-737-7378 FAX : 02-737-8802
E-mail : jabi0001@naver.com, jabi3719@daum.net
홈페이지 : www.kbcd.org

범어사 '어린이합창단' 창단…문화포교 추진

미래 불자 음악예술인 양성 목표
정필윤 지휘자, 예술감독에 초빙
전문 보컬훈련 등 전폭 지원 예정
12월 29일 선문화회관서 오디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는 12월 10일 주지 접견실에서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 창단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어린이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어린이 합창단'을 모집하고 새출발을 알렸다.

범어사는 12월 10일 주지 접견실에서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 창단'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주지 정오 스님, 교무국장 석산 스님, 포교 국장 해공 스님,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도명 스님, 사회국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정필윤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윤재웅 피아니스트, 문유미 범어사 어린이합창단기획실장, 김정리 행정실장, 이소민 보컬트레이너가 동참했다.

간담회는 주지 정오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포교국장 해공 스님 및 교무국장 석산 스님의 설명 및 브리핑이 이어졌다.

주지 정오 스님은 "찬불가를 통해 아이들이 바른 정서와 맑고 밝은 마음을 키울수 있게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을 새롭게 창단하게 되었다"며 범어사는 본사로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노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불교계를 대표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원력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은 먼저 미래 성악가 및 예술인을 꿈꾸는 어린이를 위한 전문 합창단으로 발돋움한다. 이를 위해 범어사는 정필윤 지휘자를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다. 정필윤 지휘자는 이탈리아 로마 시립 예술학교 합창지휘과를 졸업한 성악가이며 '라보엠' '세빌리아의 이발사' '나비부인' 등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을 맡은 바 있다. 동의대와 신라대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울산 시립합창단 테너, 김해 시립합창단 수석을 역임했다.

정필윤 지휘자는 특히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의 시초가 되었던 '관음사 단이슬어린이 합창단'을 이끌며 어린이 합창단의 포교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자이다.

정필윤 지휘자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어린이를 위한 무대가 아니다"며 "실력이 없어도 노래하고 음악을 사랑하며 꿈꾸는 어린이를 위한 합창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는 어린이합창단 입단 후 예술중학교에 입학 가능할 정도로 실력을 키워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보컬 트레이너도 함께 훈련에 동참해 지도한다.

단원 모집 이후 범어사어린이합창단은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를 대표하는 어린이합창단으로 부처님오신날, 팔관회 등 불교 주요 행사의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새출발을 알리는 첫 공연은 2025년 4월 16일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선보인다.

현재 범어사는 어린이 합창단 단원을 모집 중이다.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앞서 범어사 어린이합창단 설명회는 12월 14일 오전 범어사선문화관에서 진행됐다.

오디션은 12월 29일 오후 2시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진행하며 오디션 당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구글폼 온라인 신청서(https://forms.gle/GEmSpcNNqayxMLYPA)로 제출하면 된다. 051-508-3122

묘엄불교문화상에 주석 스님·불교아카데미 수상

묘엄문화재단, 봉녕사서 시상식
시상식 앞서 13주기 추모다례재
"세주 묘엄스님 사상 선양할 것"


제12회 묘엄불교문화상 시상식 및 세주묘엄장학금 수여식 직후 수상자와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 김동건 묘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비구니 강사이자 율사인 세주 묘엄 스님의 유지를 잇는 제12회 묘엄불교문화상에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과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가 각각 수상했다.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동건)은 12월 7일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 대적광전에서 '제12회 묘엄불교문화상 시상식 및 세주묘엄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묘엄불교문화상 개인 부문에는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이, 단체 부문에는 불교아카데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 부문 수상자인 주석 스님은 지난 2019년 사단법인 쿠무다를 설립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 지원에 앞장섰으며, 비구니스님 교육비 지원과 장학금 후원 등에도 힘써왔다.

주석 스님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한국불교 비구니로써 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큰스님께 받은 마지막 유훈이자 가르침"이라며 "묘엄불교재단의 상금 천만원은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한 정재로 쓰겠다"고 말했다.

단체부문 수상자인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는 지난 2001년 창립돼 남녀가 평등한 교단문화 구축과 대승적 여성불자 양성, 불교 현대화를 위한 경영 교육 등을 펼친 점이 인정받았다.

이어진 세주묘엄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봉녕사 승가대학 덕경 스님 등 학인스님 4명에게 장학금 200만원, 금강율학승가대학원 현담 스님 등 우수 학인 장학생 3명에게 각각 100만원,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 외부교육기관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각각 3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봉녕사는 묘엄스님 원적 13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주지 진상 스님은 "봉녕사를 일군 세주 묘엄 스님의 유지를 우리 후학들이 받들어 선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주 묘엄 스님은 1931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1959년 공주 동학사에서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 학인들을 가르친 데 이어 1971년 봉녕사에 정착해 봉녕사를 비구니 승가 교육의 요람으로 변모시켰고 1999년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율원인 금강율원을 개원해 비구니 율장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신중일 기자

부산 불교계, 김장나눔으로 자비 전하다

범어사, 삼광사 등 주요사찰
김장 김치 자비나눔 잇달아





부산불교계가 김장 김치 자비나눔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범어사가 진행한 자비의 김장나눔행사 모습〈사진 왼쪽〉과 삼광사 김장나눔행사 모습〈사진 오른쪽〉

부산 주요 사찰이 겨울철을 맞아 김장김치를 담고 자비나눔으로 회향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경내 하후원에서 겨울철 김장담기 및 자비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장담기 행사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오 스님 등 스님들과 관계자 및 봉사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사부대중이 담근 김장 김치는 총 5000포기다. 대중의 겨울철 먹거리를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범어와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네 산하시설에 1000포기가 전달됐다. 아울러 무료급식을 진행 중인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에도 김장 김치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김장 및 나눔은 겨울철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행사로 자리잡은 한국음식문화"라며 "나눔과 화합의 장에 동참해주신 모든 사부대중에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도 겨울철 김장나눔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삼광사는 12월 9일 삼광사 대중공양실에서 '제7회 김장나눔 문화제'를 개최했다.

김장나눔 문화제는 한국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화합과 나눔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주지 영제 스님을 비롯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등 관계자와 봉사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봉사자와 관계자들은 김장 김치 2000포기를 담궜으며 지역 소외 이웃 1400세대에 전달했다. 김장 김치는 부산진구청에 500박스, 부산 서구청에 100박스, 부산지역다문화센터에 500박스, 저소득가정 400박스로 나눠 지원됐다.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행사에 앞서 "김장나눔 문화제를 통해 화합을 이끌고 한국전통문화를 널리 계승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원장 정경국원) 부산정사가 연말을 맞아 김장나누기에 동참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신뇨엔 부산정사는 11월 28일 부산연제구청에서 진행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에 동참했다. 이날 신뇨엔 상임이사 정경국원과 부산정사 영준국원이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에 직접 참여해 김장하고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 및 김장김치는 연제구 관내 소외 이웃 및 독거 노인 가정을 위해 회향됐으며, 부산 연제구청은 이날 김장김치 3000포기를 담궜으며 관내 280세대에 전달했다. 정경 국원은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해지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행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상담학술상 여정 스님·허만세 교수

한국불교상담학회 시상식



제4회 불교상담학술상 우수상을 여정 스님〈사진 왼쪽〉과 허만세 교수〈사진 오른쪽〉가 수상했다. 왼쪽부터 여정 스님, 안양규 학회장, 허만세 교수.

제4회 불교상담학술상 우수상을 여정 스님(동국대)과 허만세 교수(계명대)가 수상했다.

한국불교상담학회(학회장 안양규)는 12월 6일 사단법인 싱잉볼치유의 소리 명상실에서 제4회 불교상담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안양규 학회장, 여정 스님 및 허만세 교수 등 수상자와 김경숙 총무이사와 회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귀의 및 내빈소개, 인사말, 시상식 순으로 이어졌다.

우수상을 수상한 여정 스님은 '불성 이론의 치료요인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연구했다. 여정 스님은 논문을 통해 '실유불성(悉有佛性)'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인 본성의 긍정성을 자각하도록 돕는 치유적 효과를 논의했다. 아울러 자신이 번뇌 중생임을 동시에 직시할 때 오히려 건강한 긍정성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주장이다.

여정 스님은 "개인의 본성으로 간주되는 불성에 대한 자각은 자기비난, 자신감 결핍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 자기신뢰와 확신, 희망과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며 "또한 개인이 자신의 현실상을 직시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는 지나친 긍정성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스스로를 과대평가 하지 않아 건강한 긍정성 확립에 도움준다"고 강조했다.

우수상을 공동 수상한 허만세 교수는 '불교상담 연구에서 측정도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주제로 연구했다.

허 교수는 논문 발표를 통해 "국내 불교 상담 관련 연구의 결과를 보면 양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교 상담의 효과 및 작용 기전에 객관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연구결과가 제한적인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연구는 사전-사후 설계에 의존하고 있고, 대조군을 활용하더라도 무작위 배정이 미흡하여 내적 타당도가 낮은 편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교 상담의 이론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핵심 개념에 대한 적절한 측정 도구가 부족하여 이론적 발전과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양규 학회장은 "학술상을 제정한 것은 불교상담학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시작됐다"며 "학술 연구를 통해 좋은 논문이 발표되고 불교상담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오늘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수상자에게도 박수를 보낸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수상자 여정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이며 현재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상담학과 강사, 한국불교상담학회 교육이사이다. 허만세 교수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이며, 현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정중, 전국 최초 '녹색학교' 됐다

부산불교환경연대, 협약식 개최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김화선)가 전국 최초 '녹색학교'가 됐다. 앞으로 금정중학교는 지구환경을 위해 녹색환경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와 금정중학교는 12월 5일 교내에서 '녹색학교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협약식에는 상임대표 안도 스님과 김화선 교장을 비롯해 학생 및 관계자가 동참했으며, 학생 및 교직원은 불교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지구 환경을 위해 나아갈 것을 서원했다. 이번 협약 이 후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녹색학교 협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협약은 해동중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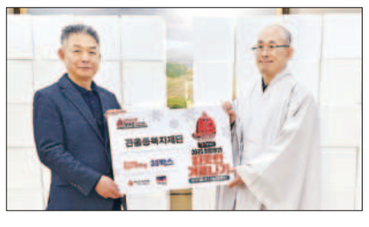
김화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녹색 사찰은 그동안 많았는데 학교가 이렇게 녹색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며 "환경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며 일회용품 줄이기, 비닐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등을 실천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화두이며 지구촌의 과제이다"며 "금정중학교와 협약식을 하게 되어 감사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따뜻한 실천으로 지구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관음종 복지재단 "따듯한 겨울 되세요!"

12월 5일 김장나눔 행사



사회복지법인 관음종복지재단(이사장 법명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이 12월 5일 낙산 묘각사에서 '따듯한 겨울나기,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관음종복지재단은 낙산묘각사 신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절임배추 약 2000kg 가량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만들어진 김장김치들은 따듯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다문화가정에 전달됐다.

관음종복지재단 이사장 법명 스님은 "후원자들의 자비와 보시, 김치를 만드는 신도들의 따듯한 마음이 이웃들의 훈훈한 겨울을 위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경기에 경제적 위기로 내몰리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한 갑진년 동지가 되길 희망한다"고 서원했다.

한편, 관음종복지재단은 매년 12월 첫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김장나눔 행사를 15년 간 이어오고 있다.

김가령 기자

지리산 대화엄사, 120억원 경제 가치 창출

동국대 WISE캠 불문연 등 분석
홍매화 사진대회에 25만명 몰려
체류인구, 등록인구보다 18배↑
카페 2배 늘어…지역 경제 견인
덕문스님 "지역 상생 도량될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화엄사 명물 행사 중 하나인 모기장 영화음악회. 올해에만 13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대화엄사(주지 덕문스님)가 올해 구례 지역에 12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엄사는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위원장 성기홍), 광주 BBS불교방송(사장 최갑열),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과 함께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리산 대화엄사 키워드와 이미지의 미디어 노출 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언론사 뉴스(공중파·종편) △TV문화프로그램(공중파·종편)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구글) △유튜브 △파워 블로그에 노출된 지리산 대화엄사의 키워드와 이미지가 조사됐다. 노출효과에 대해서는 'CPT(Cost Per Mille) 공식'으로 광고 노출효과 분석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정량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지리산 대화엄사' 키워드와 이미지 노출 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119억955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리산 대화엄사의 대표브랜드인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가 72억6000만원이었으며, 모기장영화음악회 13억원, 화엄문화제 10억4700만원, 요가대회 3억3000만원, 기타 노출 12억4000만으로 조사됐다.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은 "구례군 읍내 중국집이 2021년 11개에서 2024년 15개로 증가됐고, 카페는 2021년 50개에서 2024년 111개로 2배 증가했다"면서 "카페가 2배 증가한 것은 구례의 생활인구 증가에 화엄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3월에 진행된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기간 동안 화엄사를 방문한 방문객이 25만명에 달한다. 이를 통해 화엄사가 구례군 생활인구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기홍 화엄사 홍보기획위원장은 "'지리산 대화엄사' 키워드와 이미지 미디어 노출 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는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세다. 실제, 2021년 37억 원 규모였던 것이 2023년 82억원, 2024년 12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지난 8월 통계청과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구례군의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전국 최고가 됐다. 이는 화엄사 브랜드 노출이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화엄사의 경제적 효과에 지자체도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화엄사가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구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화엄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례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주지 취임 당시 지역과 함께하는 화엄사, 지역과 상생하는 화엄사, 지역민에게 사랑 받는 화엄사가 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아직도 모자라지만 그 약속의 결실 작게나마 지역에 회향을 할 수 있어 기쁘다. 지역 주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화엄사를 사랑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큰스님 유지 계승"

12월 11일 통도사 설법전서
대종사 유영집 '무영수' 봉정
제12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영축총림 통도사는 12월 11일 경내 설법전에서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제9대 종정을 역임한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열반 21주기를 기리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스님)는 12월 11일 경내 설법전에서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월하 대종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유영집 〈무영수〉 봉정식과 제12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추모다례재는 대중 삼배와 추모입정, 생전 법문 청취에 이어 종사영반, 문도를 대표해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의 헌향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의 헌다로 이어졌다. 문도대표 성파 대종사는 인사말에서 "스님의 열반 21주기를 맞아 포교원장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과 불자님들이 참석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큰스님께서는 일생 동안 불교정화운동에 헌신하고 수행에 진력함으로써 후학들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후학들은 스님의 가르침과 유지를 이어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 스님)은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탄신 110주기를 맞아 월하 대종사의 생애와 가르침이 담긴 유영집 〈무영수(無影樹)〉 봉정식을 진행했다. 〈무영수〉에는 월하 대종사의 생애와 수행, 업적을 엿볼 수 있는 300여 점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제12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학술·문화 부문에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봉사·실천 부문에 이정숙 인성기공 부사장, 포교원력상에는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에게 각각 상금 1000만원과 상패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현문 스님은 이날 해동고 이승환 학생 등 10명의 학생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리산 대화엄사, 삼신불 개금불사 점안

12월7일 대웅전서 불상 점안
'2024년 화엄법회 회향식'도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12월 7일 경내 대웅전에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국보 336호) 개금불사 점안법회 및 2024년 화엄법회 회향식'을 봉행했다.〈사진〉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지난 2021년 6월 국보로 승격되며 복장불사를 봉행했다. 그러나 불상에 박락(불상 개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2024년 8월 보존처리 및 개금불사를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해 6 차례에 걸쳐 정제철을 진행했다. 그리고 10월 30일부터 개금을 진행해 이날 점안하게 됐다.

법회에는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 주지 덕문 스님, 전 주지 종걸 스님, 종삼 스님, 영관 스님 등 화엄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또한 장길선 신도회장, 이길용 구례군 부군수 등 지역 정관계 인사와 각 말사 신도 등 500여 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회주 종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 개금불사 점안 회향식의 많은 의식에 한량없는 많은 법문이 들어있다"면서 "화엄사는 대웅전 건물이 보물인데, 국보로 지정된 부처님을 봉안할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화엄사는 수행정진을 통해 많은 신도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도량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전란으로 전소된 화엄도량을 중창하고자 발심하신 벽암 각성 스님의 대원력으로 1635년에 조성됐으나 400년의 세월의 무게로 성상이 퇴락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금불사를 진행했다"며 "화엄사에 세 분 부처님의 장엄함을 갖추어 전란으로 시달리는 시방세계에 평화의 미소를 선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통茶 한자리에…울산 차문화 한마당

BBS 울산 불교방송 주최
12월 5일 울산 KBS홀서



올해로 15회를 맞은 '울산 차문화 한마당'이 12월 5일 울산 KBS홀에서 개최됐다.〈사진〉 울산 차문화 한마당은 지역 차문화를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지역의 다도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BBS 울산 불교방송이 주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BBS 울산 불교방송 무용단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차인단체 소개, 인사, 격려사, 축사, 감사패 수여, 다례 시연, 축하공연, 사홍서원, 찻자리 무대, 회향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한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김정희 석정다례원 부회장, 울산불교종단협합회회장 혜원 스님은 권정련 정련다례원장, 이진용 울산 BBS 불교방송 사장은 홍국희 울산차인연합회 9대 회장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2부 다례시연에는 연한다회의 어린이 싱잉볼 차명상, 태화문인 차인연합회와 백양사 선다회의 매월당 고려점다시연이 진행됐다. 축하공연에는 문화공연주 영덕 기원정사 자명 스님과 불자 국악가수 권미희 공연이 이어졌다.

이진용 BBS 울산불교방송 사장은 "이 자리는 차의 향기와 맛뿐 아니라 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다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격려사에서 "차밭에 대한 기록이 통도사 사적기에 남아있는 점을 미뤄볼 때 울산과 양산, 경주의 차문화는 통도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BBS 울산불교방송이 해마다 '울산 차문화 한마당'을 열어줘 통도사와 울산의 과거, 현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2025년 교사 연수

1월 7~9일, 13일에 진행
내면성찰 목적 실참 강의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이 교사들을 위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2025년 1월 7일부터 9일, 13일까지 총 4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연수는 '괜찮지 않아도 돼!'라는 주제로 열린다. 교사 직무연수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내면 성찰을 통해 해결하고, 학생들과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교육 이론 전달이 아닌 교사의 내적 성찰과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고정관념 내려놓기' △스스로를 수용하고 강인한 마음을 가지는 '괜찮지 않아도 돼' △삶의 소중함에 대해 느끼는 '아름다운 고백' 등이 준비됐다. 또한 강사진으로는 교육학, 심리학, 생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설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수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면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숙식제공 포함이다. 055-643-0643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붓다·복지TV전북방송 MOU 체결

12월 9일 전북방송 회의실
공익 · 복지 사업 확대 목표



사단법인 붓다와 복지티비 전북방송이 공익 복지사업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단법인 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마이산 탑사 회주)와 복지티비 전북방송(대표이사 사장 김태권)은 12월 9일 복지티비 전북방송 회의실에서 공익·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에는 △신규 복지 사업 발굴 및 공동 프로젝트 기획·실행에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상생 네트워크 강화로 나눔·봉사·소통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종 불교 낙화법 조명 학술 세미나

12월 6일 세종 영평사서



세종시 불교 낙화법 보존회(이사장 환성 스님)은 12월 6일 세종 영평사 삼명선원에서 '수구즉득다라니와 낙화'를 주제로 '세종 불교 낙화법 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 세종시 불교 낙화법 보존회 회장 원행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통도사 덕문 스님을 비롯해 세종시 사암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오영철 세종시 불교신행단체연합회 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순천불교聯 송년법회…"내년에도 자비행"

장학금 전달, 신행상 수여 등



순천불교연합회(회장 범일 스님, 금룡사 주지)가 12월 8일 순천 마리나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서 '불기 2568(2024)년 순천불교연합회 송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순천불교연합회장 범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을사년 새해에도 순천불교연합회 스님들과 신도회가 한마음으로 뭉쳐 하루빨리 온 세상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발원했다.

이날 순천불교연합회는 순천대학교 불교동아리 '연'의 박한빈 학생 외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25년을 이끌 순천불교 신도연합회에는 회장 정승호(금룡사 신도회장)를 비롯한 신임 임원 14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불교신도회, 2024년 송년의 밤

12월 6일 울산 문수컨벤션서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영수)는 12월 6일 울산 문수컨벤션 콘서트홀에서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송년의 밤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불교와 신도회 발전에 기여한 불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영수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와 불심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게 돼,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장으로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印, 팔리어 대장경 독송 법회 봉행

LBDFI 주최, 10일간 진행
1만여 명 출 · 재가자 동참
경전 독송, 명상, 토론회 등
"고전어 인정, 불교부흥 시작"

김민재 객원기자



각국에서 참여한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팔리어 대장경을 합송하고 있다.
사진출처=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

지난 12월 5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이 인도 보드가야에서 봉행한 '제19회 팔리어 대장경 독송 법회' 소식을 전했다.

전 세계 1만여 명의 출·재가자가 참석해 다함께 불경을 합송하는 법회는 10일에 걸쳐 봉행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송, 명상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 문제에 적용하는 법'을 주제로 토론회가 매일 이어진다.

상좌부 불교 경전인 팔리어 대장경의 합송은 명상 수행이자 전 세계에 평화와 지혜, 자비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법회를 위해 마하보디 사원에 부처님의 탱화와 전통 공양물, 팔리 경전으로 장엄한 불단이 차려졌다.

법회는 인도 '국제 붓다 담마의 빛 재단(LBDFI)'가 주최했다. 재단 관계자는 "팔리어 대장경 독송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의를 표하고 가르침을 지키며 전파하기 위한 법회로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송 법회에는 에릭 가르세티 인도 주재 미국 대사를 비롯한 고위 인사 및 국제불교연맹(IBC) 아브히짓 할더 사무총장과 마하보디 사원 마하슈웨타 마하라티 총무가 참석했다. 이밖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여러 국가 대표들이 참석해 각국 불교계 간의 국제적 협력과 화합을 보여줬다.

에릭 가르세티 대사는 인도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회상하며 "팔리어 대장경은 부처님의 지혜와 참나를 알아볼 기회를 준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참나를 찾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며 "오늘날 우리는 국가와 사람들의 분열을 목도하지만 인도에서의 우정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인연과 자비, 단결의 힘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왕모 딕시 LBDFI 사무총장은 "전쟁과 분쟁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해답을 시대를 초월한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부처님이 전한 인류 내면의 평화와 상호 이해, 화합이 그 해답"이라고 전했다.

아브히짓 할더 IBC 사무총장은 "부처님은 항상 염송과 행각을 전법의 방법으로 강조했다"면서 "최근 모디 총리의 지원에 따른 팔리어의 고전 언어 인정은 불교 부흥과 인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독송 법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법회를 개최한 LBDFI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 전통 보존, 전법을 목표로 운영하는 국제 재단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순례 센터를 운영하며 순례자 후원 및 순례지 편의시설 개선, 국제 독송법회 봉행, 경전 배포, 인도 출가자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日 호류지, 새해 앞서 부처님 목욕 재개

금당 금동석가삼존상 중심
연말연시 맞이 청소 법요
손상 방지 건식청소 진행
"청정한 새해 맞이하길"



금당 불상을 청소하는 호류지 대중스님들.
사진출처=간사이 TV 보도화면 캡쳐

일본 나라현 이카루카의 천년고찰 호류지(法隆寺)가 불상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법요를 봉행했다. 지난 12월 8일, 일본의 '간사이 TV' '요미우리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호류지의 법요를 특별보도했다.

일본 호류지는 12월 8일 경내 금당 본존 '금동석가삼존상'을 중심으로 수미단위의 불상들을 청소했다. 불상들에 청소를 알리는 고불의식에 이어 봉송의식을 봉행한 후 청소가 이어졌다.

호류지 금당의 불상들은 모두 일본의 국보 혹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본존불인 금동석가삼존상은 623년 백제계 장인인 도리불사가 조성했다는 명문과 기록이 남아있다. 중국 북조와 백제 양식이 함께 확인된 장육불상으로 불교미술사의 중요한 자료로 손 꼽힌다.

호류지의 청소 법요는 1993년 사찰이 세계유산에 등록된 이후 시작돼 30년 넘게 사찰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의 많은 고찰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불상의 먼지를 털거나 법당의 다다미를 청소하는 법요를 봉행하는데, 호류지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불상이 많아 특히 주목 받는다.

청소는 불상의 손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 건식 청소로만 진행된다. 보존을 위해 문화재 전문위원이 배석, 참관해 30분 가량 약식으로 법요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청소가 완료된 후에는 불상에 다시 점안식을 봉행해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

호류지 주지 쇼카쿠 스님은 "지난 한해 다양한 재해가 많았다. 이런 재해들을 모두 털어내고 안전하고 청정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며 법당에서 청소법요에 함께 한 신자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청소법요를 보기 위해 타지역에서 찾아왔다는 한 신도는 "불상의 몸에서 미세한 먼지들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의 먼지들도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 '불교 격언 게시판' 올해의 대상은?

불교전도협회 주관 시상식
'일상 속 불교' 글귀들 수상

일본의 각 사찰에는 불경의 문구나 조사어록 등에서 따온 격언을 일정 주기로 게시판에 올리는 '사찰 게시판'이 있다. 게시판의 내용은 독특한 표현이나 젊은 세대의 감성이 뛰어나 종종 화제가 되기도 한다.

지난 12월 5일, 네티즌의 투표를 걸쳐 선정된 사찰 게시판 글귀 대상작과 여러 수상작이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올해 대상과 여러 수상작으로 꼽힌 사찰 게시판의 문구들을 발표했다.

일본 공익재단법인 불교전도협회는 '빛나라! 사찰게시판 대상 2024' 콘테스트를 열고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일본 각 사찰 게시판에 올라간 문구에 대한 투고와 제보를 받았다. 협회의 콘테스트는 지난 2018년에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불교전도협회는 "X(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투고된 작품 3755개 중 수상작을 선정했다"며 "어떻게 불교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는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지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을 맡은 에다 토모아키 불교전도협회 출판사업부 과장은 "올해 투고작들은 기발함보다 차분한 분위기의 게시물이 많았다"며 "일상의 여러 곳에 불교의 가르침이 가득한 것을 대중들이 알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의 대상에는 히로시마시 소재 정토진종 오타니파 쵸가쿠지(超覚寺)다. 쵸가쿠지의 격언 "바라든 바라지 않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가 선정됐다. 중요한 사회 이슈로 고독과 소외가 꼽히는 가운데, 불교의 연기법에 근간해 모두가 연결돼 있음을 한 문장에 적절히 남았다는 평을 받았다. 쵸가쿠지는 지난 2021년 콘테스트에서도 "참을 인(忍) 자는 몇 번이라도"라는 내용으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찰 게시판 대상을 수상한 초카구지의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사진출처=불교전도협회 누리집

이 외에도 미나미 사츠마시의 겐쇼시(顕證寺)의 "'나 있잖아'라는 건 자만"과 시즈오카시 호린지(鳳林寺)의 "방심하지 말라, 그래도 언젠간 퇴물이 된다"에 더불어 키쿠치치 세이쇼지(西照寺)의 "육아라는 건 나를 키우는 일" 등이 주요 수상작으로 꼽혔다.

네티즌들은 올해 수상작을 보고 "평범한 문장 속에 불교 가르침이 있다는 게 놀랍다"면서 "역시 불교의 깊이는 남다르다"고 평을 남기거나 "앞으로 사찰들의 게시판을 더 유심히 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에 나툰 부처님 치아 진신사리

태국 · 중국 수교 50주년 기념
25년 2월 14일까지 친견 가능



태국 왕실 정원 사남루앙으로 이운된 불치사리를 사부대중이 친견하고 있다. 사진출처=AP통신

중국에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가 태국 방콕 사남루앙에 나투었다.

지난 12월 5일 해외 언론 'AP 통신'은 태국 10대 국왕 마하 와치랄롱꼰의 생일 및 태국과 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중국의 불치사리(佛齒舍利) 대여 소식을 알렸다.

중국의 불치사리 대여는 태국과 중국 간 수교 50주년과 태국 국왕의 72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12월 5일 오전 초우작 시리닐 총리실 장관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은 불치사리를 태국으로 이운하기 위해 베이징 영광사(靈光寺)를 방문했다. 태국과 중국 양국 스님들이 이운의식을 봉행한 후 베이징 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돈므앙 공군기지로 이운했다.

불치사리는 태국에 도착해 보석으로 장엄한 황금 사리탑에 담겨 왓 트라이밋, 태·중 우정의 길, 차이나타운 등 태·중 수교 중심이 30km를 거쳐 사남루앙으로 이운됐다. 불자 2000여 명이 불치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모여 사리 이운 행렬에 동참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와 태국 내각 각료를 비롯해 태국 주재 중국 대사 등 각국 대표들이 태국 사남루앙에서 봉행된 이운·친견법회에 참석했다.

불치사리는 12월 5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콕 사남루앙 파빌리온에서 친견 가능하다. 태국 현지 언론들은 불치사리 친견을 위해 많은 불자들이 사남루앙에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인도성지순례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날 성도재일을 보드가야 대탑에서 성도재일 기도 법회와 인도 7대 성지순례 11일

2025년 1월 04일 출발 ~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성지 중에서 케사리야 대불탑 뿐만 아니라 - 부처님 출가의 길로 추정되는 곳들에 세워진 난단가르 대불탑(인도 최대의 불탑)과 아쇼카대왕의 석주들인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 석주등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새로운 성지들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순례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 일 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영축산 – 나란다대학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석주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기원정사 – 아그라 – 델리 –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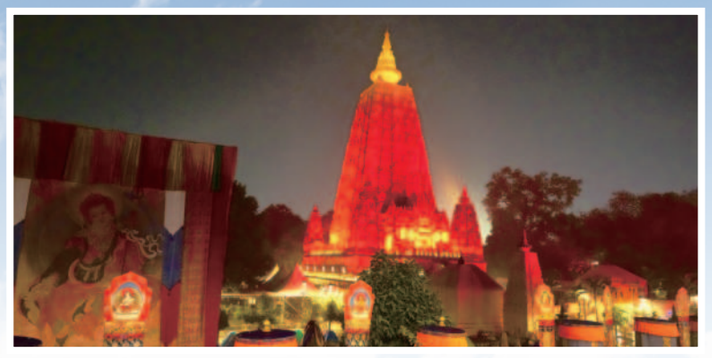
▶ 동참금 : 270만원 특별할인가

▶ 기타 인도성지순례 출발일 : 2025년 2월 15일 출발 ~ 2월 25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2025년 3월 04일 출발 ~ 3월 14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일본 교토 벚꽃여행 5일
3월 24일 출발~3월 28일 도착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교토의 명사찰 순례 –교토시내 숙박
▶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아라시야마 천룡사–동사–삼십삼간당–천태종 본산 연력사–나라 동대사 등
모두가 벚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 동참금 : 199만원

부탄,네팔 성지순례 8일
4월 1일~8일(6박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410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 순례 6일
3월 22일~3월 26일(5박 6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천수 맥적산석굴 돈황 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 화청지)–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서안–인천
▶ 동참금 : 2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선명상 시대 열리다…템플스테이부터 대중 문화까지

2024 문화·불교유산·학술 결산

신중일 · 김내영 기자

2024년은 선명상이 불교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현대인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한해였다. 템플스테이와 포교 프로젝트, 대중문화를 통해 선명상이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변화는 불교문화가 시대 요구에 부응하며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명상 템플스테이의 확산

템플스테이는 올해 선명상의 주요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단순한 사찰 체험을 넘어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내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쁜 현대인들을 고려한 도심 사찰의 당일형 프로그램이나 선명상 집중 수행, 어린이·청소년·외국인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스트레스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요가, 서핑, 걷기, 차 등과 결합한 특화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선명상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번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며 진정한 행복에 다가선 듯하다" 등 호평을 쏟아냈다.

선명상 템플스테이의 활발한 개발과 보급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는 선명상 템플스테이 시범운영을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 횟수, 참가자 실적, 참가자 만족도, 교육참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화사찰'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

선명상의 대중화는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BUDDHA TEN SUNIM)'의 활동에서도 돋보였다. 선명상을 통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삶의 여유와 평안을 찾도록 이끌어 주는 안내자 역할을 맡기 위해 결성됐다.

비텐스는 구산 스님, 광우 스님, 고금 스님, 송산 스님, 준한 스님, 도국 스님, 지안 스님, 범준 스님, 기원 스님, 반야 스님 등 젊고 재능 있는 조계종 스님 10명으로 구성됐다. 태극권, 작법, 법고, 가야금, 랩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현대적이고 친근한 방식으로 선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 국제불교박람회에서 데뷔한 뒤 동국대 영캠프, 불교도 대법회 등 크고 작은 불교 행사에서는 물론 미국 뉴욕과 보스턴 등에서 펼쳐지는 한국전통문화와의 만남 행사에서도 무대에 올라 관객과 소통했다.


선명상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의 졸음을 쫓으려 어깻죽지에 장군죽비를 내리치고 있는 스님.

불교 소재 영화 다수 개봉

올해는 불교적 가치를 대중문화에 담아낸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된 해이기도 하다. '대가족' '문경' '더 납작 엎드릴게요'가 바로 그것이다.

'대가족'은 가족 공감 코미디 영화다. 주인공 무애 스님 역을 맡은 이승기 배우는 영화 속에서 머리를 삭발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열정을 보였다. 영화 '문경'은 쉼 없이 달려오다 번아웃된 직장인 문경이 휴식을 위해 떠난 경북 문경에서 명지 스님과 강아지 길순을 만나 2박 3일 동안 특별한 동행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담겼다. 사찰 오피스 드라마 '더 납작 엎드릴게요'는 사찰 법당 옆 출판사 직원들의 '보살 라이프'를 그렸다. 영화들은 가족, 인간관계, 자기 성찰 등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불교적 메시지와 연결 지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불교 성보, 제자리 찾다

올해는 오랜 세월 제자리를 떠나있었던 소중한 불교문화유산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뜻깊은 해였다. 보스턴미술관이 보관 중이던 3여래 2조사 사리(가섭불·정광불·석가불·지공 선사·나옹 선사)가 약 100년 만에 본래의 소장처인 양주 회암사로 환지본처했다. 2013년 이후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김건희 여사가 회암사 사리 반환 협의를 요청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조계종 문화부와 문화재청은 적극적으로 보스턴미술관과 반환 논의를 이어갔고 그 결과 보스턴미술관이 사리 5과를 조계종에 기증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이는 한국 불교계와 정부,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이뤄진 성과로, 해외에 있는 불교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역시 113년 만에 본래 위치에 복원됐다. 이 탑은 고려 불교 예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문화재로, 정교한 조각과 웅장한 장식미를 자랑한다. 약 5년에 걸친 정밀한 복원 과정을 거쳐 올해 11월 법천사지에 안정적으로 안치되며, 그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스마트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예천 보문사의 신중도 역시 도난 35년 만에 반환이 확정돼 환수의 기쁨을 더했다.

근현대 비구니스님 조명 활발

올해 불교학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근현대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조명이 활발했다는 점이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지난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수행'을 주제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비구니 선지식인 수인·수옥·장일 스님과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대행 선사의 삶과 수행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불교 중흥조 봉려관 스님 연구에 천착해 온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11월 16일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Ⅳ'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근대 제주불교의 왜곡상 고찰'을 통해 봉려관 스님과 관련해 왜곡돼 전파되고 있는 기존 학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불교계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2024년 겨울호 통권 100호를 맞았다. 〈불교평론〉 통권 100호 특별기획은 신행 혁신, 교단 운영, 전법 교화, 문화 불사, 사회적 역할 등 5개 부문에 걸쳐 50인의 필자가 집필한 글로 구성됐다.

문명대 교수 은관문화훈장

"국민문화 향상에 이바지"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처음 발견하는 등 문화유산 보전에 앞장서 온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 〈사진〉이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2월 9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제1회 국가유산의 날'기념식을 개최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시상했다.

문명대 소장은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공로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스러운 훈장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태고종, '불교' 창간 100주년 학술대회

12월 26일 국회의원회관서… 역사성 등 조명

1924년 창간돼 문서포교를 선도해 온 월간 〈불교〉의 창간 100주년을 맞아 역사성과 가치를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상진 스님)은 12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월간 〈불교〉 창간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월간 〈佛教〉가 갖는 역사성과 시사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는 월간 〈불교〉의 창간 의미와 역사성, 시사성 등이 조명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철오 스님의 사회로 진행되며 △'대중불교'의 원류와 계승 – 월간 〈불교〉 속 만해 한용운의 발자취(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월간 〈불교〉 100년의 전개사와 지향성(김종진, 동국대) △종현 스님의 학술과 교단개혁론에 관한 연구-〈대승기신론〉 강의와 강원교육제도를 중심으로(김지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소) △월간 〈불교〉의 발간 추이와 시대적 의의(김경집, 동국대 불교학술원) 등의 학술논문이 발표된다.

학술대회 부대행사로는 '월간 〈불교〉 창간 100주년 기념사진전'이 진행된다. 사진전에는 월간 〈불교〉 창간호 표지사진 등 다수의 만해 스님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소개될 예정이다.

태고종 문서포교잡지인 월간 〈불교〉는 1924년 9월 권상로 스님이 창간했다. 스님의 뒤를 이어 만해 스님이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아 10년 동안 발행해 오다가 1933년 108호를 내고 발행이 중지됐다.


월간 불교 100주년 특별호.

1945년 이후 〈불교〉는 제호를 바꾸며 발행해오다 1970년 5월 4일 제호를 〈불교〉로 복간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중일 기자

인플루언서도 '사찰음식'에 "감명"

문화사업단, 12월 6일 수월암서 '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틱톡 팔로워 390만 인플루언서가 한국의 사찰음식에 찬사를 보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은 12월 6일 서울 성북구 수월암에서 '2024년 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사찰음식 팸투어'를 개최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인플루언서 초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문화사업단이 주관했다.

팸투어에는 필리핀 출신 푸드 인플루언서 아비게일 마르케즈(Abi Marquez)와 튀르키예 출신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 아스야 비비안(Asya Vivian)이 참가했다. 아비게일은 틱톡 팔로워 390만명과 유튜브 구독자 159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아스야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4만명이다.

참가자들은 사찰음식 장인 혜범 스님의 지도로 직접 고추장을 만들어보며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고추장을 활용한 비빔밥, 된장찌개, 김치, 두부 등의 사찰 발효 음식도 시식했다.

참가자들은 "사찰음식의 철학과 장 담그기의 전통적 의미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불자들이 주고받는 품격 있는 선물!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법보시야 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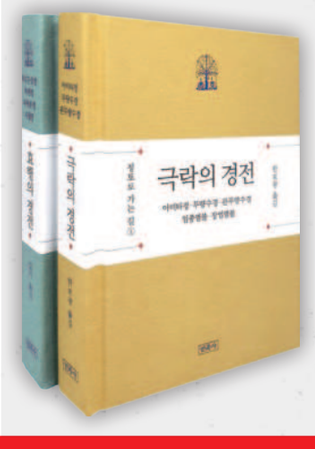
40년 전통, 불서출판의 명가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4~12/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화:마음의불꽃을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6	스스로행복하라:법정스님의대표수필29편수록(2판)	법정	샘터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법정스님숨결:법정스님열반10주기리커버에디션	변택주 지음	큰나무
3	대승불교의가르침(불교대학강의노트2)	이철헌 지음	아름원	8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4	법상의슬기로운생활수행	법상스님	열림원	9	길이아니면가지말라:불일암사계	법정/최순희 사진	책읽는섬
5	마음에따르지말고마음의주인이되어라:법정의산중편지	법정/박성직 엮음	책읽는섬	10	화엄경을머금은법성게의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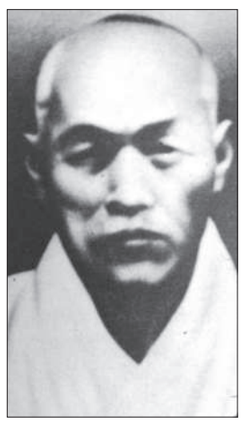
책세상

인물로 보는 동국대 인문학 전통·계보



동국문풍
윤재웅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2만5천원

단독 논문으로 발표했던 글들 모은 것
인문학 전반서 보이는 동국 정신 조명
석전 · 미당 등 동국 대문호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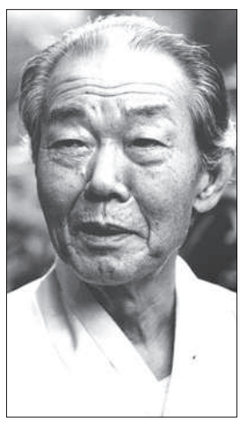
석전 스님



만해 스님



무산 스님



서정주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윤재웅 동국대 총장이 최근 은사에 대한 그리움과 모교 문학의 전통에 대한 애정으로 책 4권을 동시에 출간했다. 책 〈동국문풍〉은 그 중 한 권으로, 동국대 인문학의 전통과 계보를 인물 중심으로 조명한다. 책은 그동안 단독 논문으로 발표했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동국대는 118년의 역사 동안 만해 한용운부터 미당 서정주 등 대한민국 문학을 대표하는 수많은 문인을 배출했으며, 지금도 매년 꾸준히 신춘문예 당선자를 양성하고 있다. 동국대 윤재웅 총장은 동국대 국문과 출신으로 미당 서정주 시인의 마지막 세대의 제자이며, 이후 모교의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여 년간 후학을 길러온 국문학자이자 시인이다.

책 〈동국문풍〉과 함께 출간한 책은 미당 서정주 문학의 기원을 찾아가는 문학 여행기 〈질마재 이야기〉, 미당을 주제로 그간 집필해온 21편의 논문을 집대성한 〈서정주학파 1, 2〉이다. 동국대가 조계종립 사학인 만큼 동국대의 모든 학사의 근간에는 불교가 자리 잡고 있다. 문학을 넘어 인문학 전반에서 볼 수 있는 동국의 정신을 조명하는 책이다.

〈동국문풍〉은 동국대 인문학의 전통과 계보를 인물 중심으로 서술한 책으로, 윤재웅 총장이 계보의 당사자로서 계보를 조명하고 알리고자 하는 사명감에서 비롯됐다.

〈동국문풍〉은 석전 박한영을 시작으로 만해 한용운, 미당 서정주, 조지훈, 장호, 마지막으로 무산 오현 스님까지 동국을 거쳐 간 여러 대문호의 작품을 분석하고 비평하면서 문학의 핵심과 세상의 미래를 진단한다.

〈동국문풍〉의 중심에는 미당 서정주가 있다. 저자는 미당으로 인해 문학을 사랑하게 됐고, 사제지간으로서 평생 교유했다. 저자에게 은사가 있듯이 서정주에게도 은사가 있다. 서정주를 따라가다보면 그의 스승인 석전 박한영으로 이어진다. 박한영은 선교겸전의 대석학으로 서정주의 불교적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에도 닿는다. 박한영과 한용운은 동국문풍의 근대적 기원이다. 박한영은 동국의 불교정신을, 한용운은 동국의 문학 정신을 일깨웠다. 박한영은 대석학이자 '천재들의 스승'이었으며 한용운은 국가와 민족과 불교를 혁신하려는 개혁주의자요 실천자였다. 두 사람의 훈도와 감화력이 한국 근대불교계의 교육적 요람이 되었으며 동국문풍 자긍심의 연원이라고 볼 수 있다.

미당과 동시대에서 시를 놓고 매진했던 조지훈, 정지용 시인도 동국문풍의 대표 이름이다. 현대시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만해의 시 정신을 오늘날 계승한 오현 스님도 살핀다. 파격적 도전으로 새로운 차원의 미학을 연 장호 시인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제1장 '석전 박한영 한시의 한글 번역 문제'에서는 석전 박한영의 생애와 〈석전시초〉의 간행 경위, 미당의 〈석전 박한영 한시집〉 번역의 의의와 그 특징 등을 다룬다.

△제2장 '한용운의 사상과 한시에 나타나는 불이론'에서는 한용운 문학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불이론을 살피고, 한용운 사상의 불이론적 성격과 그 기원 등을 다룬다.

△제3장 '〈님의 침묵〉에 나타나는 사투리의 양상'에서는 〈님의 침묵〉에 나타난 사투리의 에크리튀르 등을 다룬다.

△제4장 "아유일권경' 게송의 문화사적 고찰'에서는 '아유일권경' 게송의 발견과 계보 추적 등을 다룬다.

△제5장 '서정주가 번역한 만해의 한시'에서는 미당 번역의 의의와 특성 등을 다룬다.

△제6장 '한용운 한시에 대한 서정주의 주석'에서는 미당의 한글시로 바꾼 한용운의 한시 등을 다룬다.

△제7장 '정지용의 〈백록담〉과 서정주의 〈화사집〉'에서는 정지용이 끝나는 곳과 서정주가 시작하는 곳, 텍스트의 탄생과 미학적 배경 등을 다룬다.

△제8장 '한용운과 조지훈의 불교문학'에서는 만해와 지훈의 친연성, 문화계보학으로서의 만해와 지훈 등을 다룬다.

△제9장 '조지훈 불교문학의 형성 배경'에서는 청년 조지훈의 공부 과정 연구에 대한 필요성, 한문 리터러시의 습득과 활용 등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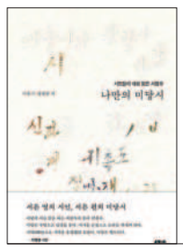
△제10장 '조지훈의 추천 탈락시 〈화련기〉일까 〈화비기〉일까'에서는 뒤바뀐 제목, 조지훈전집의 간행과 화련기의 등장 등을 다룬다.

△제11장 '미당의 광기와 지훈의 기율'에서는 기율과 광기, 조지훈과 기율, 서정주와 광기, 추수옥골 불치의 슬픔을 다룬다.

△제12장 '장호의 시'에서는 다양한 재능 갖춘 교양인 장호, 장호의 초기 시의 세계, 시집 〈돌아보지 말라〉, 시집 〈동경 까마귀〉 등을 다룬다.

△제13장 '조오현의 선시'에서는 오현 스님 시의 중요성, 오현 스님 한글 시조의 미학을 다룬다.

오늘의 시인이 다시 읽어주는 미당 詩



나만의 미당시
마종기 · 정현종 외
은행나무 / 1만8천원

"미당시 속에는, 시인의 높은 시안을 자극할 만한 빌미가 풍성하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게 풍성한 시안이 한곳에 모인 일은 예사가 아니다."

20대 신예부터 80대 원로까지 서른 명의 시인이 미당의 시를 읽어준다. 미당의 첫 시집 〈화사집〉(1941)부터 마지막 시집 〈80소년 떠돌이 시〉(1997)까지 총 15권의 시집으로 한국 현대시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미당 서정주. 그 어느 시인도 흉내낼 수 없는, 낯설고 아름다운 미당의 시를 마종기·정현종 등 현재 활동 중인 서른 명의 시인들이 하나의 산문으로 각기 다른 '나만의 미당시'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당시의 소중함과 한 편의 미당시가 한 명의 시인에게 운명으로 교감되던 그 빛나는 시적 순간에 대해 말한다. 더불어 미당시에 대한 시적·언어적 해석과 현재의 시문학적 관점으로써 새로운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아낸다. 이 한 권의 산문집을 통해 한국 현대 시문학의 오래된 질서 같은 미당시의 '새로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 빛나는 미당 문학의 미학적 가치를 들여다본다.

미당, 미당 서정주. 우리 근현대사에 남아있는 그 이름은 어느 쪽에서 불러도 '시인'이다. 이남호 시인은 "우리 주변에는 정치적 이유로 내팽기침을 당하고 있는 미당시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이 여전히 있다"며 "서른 명의 시인과 서른 편의 미당시가 만나는 자리는 각별하고, 그 마음은 지극하다. 거기에는 한 권의 책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소중함이 있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서른 겹의 시간, 미당에 대한 서른 명 시인들의 기억과 회상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나만의 미당시〉는 서른 명의 시인이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붙잡아 둔 미당을 재현하고 감응한다. 현재에서 미당시가 발화되며 각자의 과거에서 교차한다. 어느 시인에게는 "오래 헤어졌던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가슴 벅찬 행복감"(마종기)으로 미당시가 50여 년의 시간을 횡단하고, "종종 시 쓰는 일이 힘에 부칠 때, 미당의 시를 펼쳐"(고명재) 읽는 시인에게는 미당시가 현재의 시적 발화 순간에서 호명된다. 때론 어느 시인에게는 미당시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려보기도(박형준) 하고 또한 "머릿속에 불이 들어오"(이병률)듯 시적 순간의 가장 밝은 빛을 보기도 한다.

미당시를 중심으로 기억되는 시적 순간들에서 서른 명의 시인들은 현재 자신의 시 쓰기와의 접점을 이루어낸다. 미당시가 가져오는 풍경들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한백양) 본래 기억이나 회상이 그러하듯, 불특정하게, 비정형적인 운동성을 지닌 채 미당시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구성(이은규)되기도 한다. 어느 시인은 과거 미당에게서 밀려왔던 이성 혹은 지혜 혹은 감정 같은 것들이(장석남)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처럼 서른 편의 짧은 산문에서 서른 편의 미당시에 대한 기억이 복원되고, 회상의 길잡이가 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미당시로 다가온다.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솟아오른 미당시의 잔재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풍경(권승섭)을 말하기도 한다. 시인들조차 그때에는 알지 못했던 미당시들이 현재의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말을 건네는 것이다. 그런 대화들이 모이고 모여 미당시에 접촉했던 서른 명의 시 쓰기가 미당시 위에 포개진다. 〈나만의 미당시〉는 서른 명의 현재 진행형의 시인들이 기꺼이 동참해 마지않는 또 다른 미당의 시적 여정이다.

박재완 기자

수천 명의 미국인 대학생들에게
사유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 준
특별한 '서양철학개론' 강의!

'지식'이 되는 철학에서 '지혜'가 되는 철학으로,
생각의 근육을 키워 주는 서양철학 24강!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서양철학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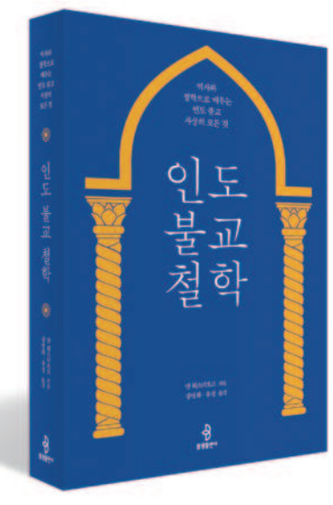
미네소타 주립대학
서양 철학 강의

홍창성 지음
256쪽 | 18,000원

알면 알수록 흥미로워지는
불교의 세계, 광활한 사유의 지평을
이 한 권에 담았다!

2,600년 불교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황금시대
불교사 명장면들로 그려 낸 인도 불교철학의 정수!

역사와 철학으로 배우는
인도 불교 사상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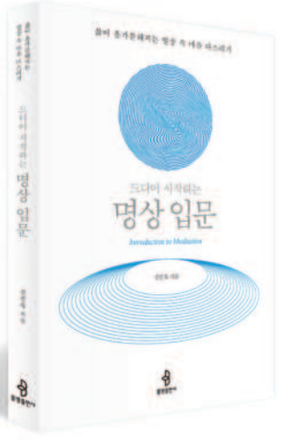
인도 불교 철학

얀 웨스터호프 지음
강병화·유경 옮김
600쪽 | 30,000원

명상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가?
명상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
단단한 마음의 코어 근육으로
삶이라는 바다에서 우아하게 서핑하기

삶이 홀가분해지는
일상 속 마음 다스리기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

신진욱 지음
232쪽 | 18,000원

명상 입문자들을 위한
저자 강연 진행

일시 2024. 12. 14.(토) 오후 3시
장소 명상센터 센터원 Center One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11)
접수 및 문의 불광출판사 010-3322-8940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불교와 과학, 현대사회 해법되길…



불교와 과학
앨런 월리스 편집
박재용 옮김
운주사 / 3만8천원



세계 석학들 불교철학과 현대과학 접점 탐구
두 세계관의 융합과 상호 보완의 방법 모색해
달라이 라마 진행 '마음과 생명 컨퍼런스' 후
참여 학자들 각자 주제 후속 연구 성과 엮어
"불교 · 과학 분야 상호비교 가능 부분 있어"
동양 오랜 지혜와 서양 첨단 과학이 빚어낸
新 패러다임 조명, 인식 넓히고 새 시각 제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전혀 다른 인식의 틀과 세계관을 가진 '종교'와 '과학'을 한 권의 책 속에 담을 수 있을까. 담는다면 어떤 것들을 담을 수 있을까. '텍스트'가 될 수 있을까. 불교와 과학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도출할 수 있는가?

책 〈불교와 과학〉(대원불교 학술총서)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철학자, 불교학자, 물리학자, 인지과학자들이 불교철학과 현대과학의 접점을 탐구하고, 두 세계관의 융합과 상호 보완의 방법을 모색한 책이다. 책은 두 세계의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자가 직면한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는, 나아가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텍스트이다.

책은 달라이 라마와 여러 과학자 그룹이 진행해온 '마음과 생명(Mind and Life) 컨퍼런스'의 대화 이후, 대화에 참여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후속 연구한 결실을 집대성한 것이다. 달라이 라마와 15인의 학자들이 참여해 불교철학과 현대과학의 정수를 아우르며, 서로 다른 세계관의 뿌리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했다.

불교와 과학이라는 두 주제를 한 권의 책 속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야가 상호 비교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교의 교리 및 실천과 과학의 이론 및 탐구 방식 간의 접점이 어떤 식으로든 유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교가 종교적 요소뿐만 아니라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요소까지 갖춘 종교이며, 신심(믿음) 등 종교적 요소와 더불어 과학적이기까지 한 실천방법 그리고 자신과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에는 교조적 신념보다 경험과 검증을 중시하는 오랜 전통도 있다. 불교의 이런 실증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이 과학과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전제에 대해 처음부터 진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불교와 과학 간의 교류를 반대하는 주장을 소개한 후에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종교와 과학이 독립적이고 그 관심 영역이 다르므로 서로 대화할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견해라고 밝혔다.

책은 불교가 현대 서양의 종교 개념에 의해 적절히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위의 주장에 답하고 있으며, 불교에서 과학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한다. 이어서 경험과학과 종종 이와 혼동되는 과학적 유물론의 형이상학적 도그마(dogma)를 구별한다. 다음으로, 불교와 과학은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지지자들의 반론에 대해서도 다룬다. 마지막으로 불교와 과학 두 분야를 풍성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자연 세계의 주관적, 객관적 영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양자 간의 대화를 제안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만들어졌다. 전체의 서론 부분에서는 불교와 현대과학의 비교 연구가 갖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밝힌다.

1부에서는 불교와 과학의 교류 가능성과 그 관계를 역사적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2부에서는 불교와 인지과학의 접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인지과학은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불교에서는 마음뿐 아니라 마음과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3부에서는 불교와 물리학에 초점을 맞춘다. 물리학은 자연과학 전체의 패러다임이므로, 불교와 과학에서 물리적 우주를 어떻게 탐구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들어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은 전통과학의 가정을 뒤흔드는 심오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불교철학, 특히 중관학파와의 대화에 적합하기 때문에 책에 실린 여러 글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책은 물리학자 피에트 헛의 글로 마무리되는데, 그는 학제 간 연구 성과에서 일어나는 여러 의문점들을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 해석한다.

책은 단순히 동서양 사상의 비교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정체성, 마음의 본질, 그리고 우주의 근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더 깊은 통찰을 이끌어 내는지를 탐구한다. 아울러 동양의 오랜 지혜와 서양의 첨단 과학이 만나 빚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명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불교와 과학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기획된 책은 여러 분야의 학자뿐만 아니라 동서양간 대화 및 과학과 종교의 접점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새로운 통찰과 함께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교와 과학이 함께 인간의 정체성, 마음, 그리고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러 방법들을 조명함으로써 인류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와 실천 과제들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저자 앨런 월리스는 학제 간 의식 탐구 연구소(Institute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Consciousness)의 설립자 겸 소장이다. 애머스트(Amherst)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했고 스탠포드대학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도와 스위스의 불교 사원에서 승려로 여러 해 동안 수행했으며, 1976년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불교 이론과 수행을 가르쳤다. 달라이 라마를 비롯해 수많은 티베트 학자와 수행자들의 통역사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과학과 불교의 실재 인식(Choosing Reality: A Buddhist View of Physics and the Mind)〉 〈The Bridge of Quiescence: Experiencing Buddhist Meditation〉 〈The Taboo of Subjectivity: Toward a New Science of Consciousness〉 등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까르마' 핵심을 탐구하다



까르마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지음
최경아 옮김
운주사 / 1만5천원

까르마 두 핵심 업보·윤회 의미
인도 여러 철학 학파 통해 분석
여러 학파 방법들 상세히 설명
까르마 연계 사상 현대와 연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지금과 같거나 더 나은 세상에서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업보윤회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분명 마음이 끌렸을 것이다.

책 〈까르마〉(대원불교 학술총서 20)는 언제부터인가 현대인에게 일상적인 단어가 된 '까르마'에 대해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을 탐구한다. '까르마'의 두 가지 핵심인 업보와 윤회의 의미가 인도의 여러 철학 학파에 의해 어떻게 기원되고 전개되고 통합되었는지 분석했다. 윤회와 업보에 있어 핵심 개념인 업, 즉 까르마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되는 것일까? 책은 까르마(업)라는 용어가 지니는 이중적 의미, 곧 윤회와 업보가 그 역사적·문화적 맥락의 중심에 있다고 봤다. 저자는 까르마라는 개념을 태동시킨 인도의 학파 하나하나, 특히 자이나교와 불교, 그리고 브라만교의 다양한 분파가 윤회와 업보를 진지하게 수용할 때 따라오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흥미롭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차이점을 조명했다. 책은 고대 및 고전 인도문화의 까르마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현대 서양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과응보'로서의 'karma'에 대한 것은 아니다.

책은 먼저 까르마에 있어 업보와 윤회라는 의미가 서로 얽혀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자이나교, 불교 및 브라만교의 여러 학파들이 개발한 다양한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는 이와 함께 업보윤회사상을 받아들일 때 수반되는 여러 다른 퍼즐들을 맞춰간다. 예를 들어 선행에 관한 치열한 철학적 논쟁으로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인과응보적 요소는 무엇에 의해 이끌리는가'와 같은 의문점에 대해 설명한다.

책에는 자이나교의 '부동(不動)의 고행'에 대한 설명에서 불교의 자아(무아) 개념에 대한 새로운 분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독자들은 까르마의 개념과 관련하여 브라만교의 여러 주요 학파들의 교리적 차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접하게 된다.

한편 책의 목적은 까르마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믿음과 개념에 대해 그 맥락적 이해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에 있다. 더 큰 복합 사상체계에 명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믿음과 개념은 저자의 최소한의 해석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책은 가능한 한 텍스트가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은 최대한 배제했다. 지나친 조력은 현대 서양이나 인도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일지라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으며, 실제로 한 현대 학자가 "까르마에 대한 현대의 사변적 해석"에 대해 경고한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책에서 보여주는 까르마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해설은 과거 남아시아인의 삶 속에서 까르마와 연계된 사상들을 생동감 있게 그려냄으로써 이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공업(共業)의 규모가 훨씬 더 확대된 현대사회에서 '까르마'의 업보윤회사상이 주는 의미 또한 훨씬 교훈적일 것이다.

저자 요하네스 브롱코스트는 1946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며, 암스테르담의 프레이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하다가 인도의 라자스탄 대학교와 푸네대학교에서 산스크리트, 빨리 문법을 시작으로 인도학 연구에 입문했다. 스위스 로잔대학교에서 산스크리트어 및 인도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로잔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그는 산스크리트 문법학, 언어철학, 인도철학, 베다학, 불교, 자이나교 등 인도학과 관련하여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냈다. 대표적 저서로는 〈Greater Magadha〉(2007)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까르마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까르마
'업보'와 '윤회'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까르마'에 대해 인도의 학파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을 명료하게 분석하였다.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지음, 최경아 옮김/신국판/무선/212쪽/값 15,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가피!
육자진언의 수행체계
'옴마니반메훔' 여섯 글자의 짧은 진언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염송하기가 용이하면서도 그 공덕이 커서 해탈로 이끄는 수승한 방편이다.
법장 지음/신국판/무선/324쪽/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왜 본마음 두고 밖으로 가는가”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대흥사 조실 상월 보선 대종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봉행 중이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통도사 개산조 자장 율사가 〈화엄경〉을 강설한 것을 인연으로 시작됐다. 전국에서 모인 선지식들은 법좌에 올라 〈화엄경〉 법문을 설한다. 12월 7일 오후에는 대흥사 조실 보선 대종사가 ‘사성제품’을 중심으로 법문을 설했다. 이날 강의 내용을 정리 ·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상월 보선 대종사는… 1966년 용암사서 천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문경 봉암사와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해남 대흥사 등에서 오랜시간 수선안거했다. 총무원 호법부장, 대흥사 주지, 제14 · 15대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흥사 조실로서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사진제공=통도사

옛날 당나라 고승 조주 선사는 120세, 근래 중국의 허운 스님은 125세까지 살다가 열반에 들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 부처님은 뒤로 한 채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 편안하게 살기 힘들다.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전에 설한 〈화엄경〉 ‘여래명호품’의 내용이다.

오후에는 ‘사성제품’을 여러분과 나눌 예정이다. 부처님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4가지 진리인 사성제(四聖諦)다.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문수보살이 설한 ‘사성제품’에 따르면 사성제의 이름은 아주 다양하다. 먼저 사성제품의 서문을 다 함께 읽어 보겠다.

“문수보살이 사성제품에서 이르기를 괴로움인 ‘고(苦)성제’를 이 사바세계에서는 죄, 핍박, 달라짐, 반연(攀緣), 모임, 가시, 뿌리를 의지함, 허망하게 속임, 창질(암, 종기), 바보의 행동이라 한다. 괴로움의 원인인 ‘집(集)성제’는 속박, 망가짐, 애착, 망령된 생각, 가서 들어감, 결정, 그물, 희롱꺼리, 따라다님, 전도된 뿌리라 일컫는다.”

집은 고가 발생하는 원인, 혹은 조건을 의미한다. 조건이 있으면 필히 결과가 있다. 자신이 사람으로 태어난 원인이 있듯이 모든 것에는 조건과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집(集)이라 한다.

“괴로움이 멸한 ‘멸(滅)성제’는 다툼이 없음, 티끌을 여읨, 고요함, 모양 없음, 없어지지 않음, 제성품이 없음, 장애가 없음, 멸(멸), 자체가 신실함, 제성품에 머문다고 이른다. 괴로움이 멸하는 방법인 ‘도(道)성제’는 이 사바세계에서 일승, 고요한데 나아간다, 인도함, 끝까지 분별없음, 평등, 짐을 벗음, 나아갈데 없음, 성인의 뜻을 따름, 신선의 행위, 십장(十藏)이라 한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400억 10천가지 이름이 있으니,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 모두 조복하게 한다.”

사바세계에서 사성제를 열 가지로 표현하는데, 10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0억이 10천 개가 있다는 것이다. 그 수가 무량하다는 거다. 또 사바세계를 벗어나면 어떤가? 동방·서방·북방·간방세계, 아래·윗세계 즉 시방세계(十方世界)의 사성제를 부르는 이름은 얼마나 많겠는가.

사성제품에는 이렇게 이름만 설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마음’이다. 여러분이 숨 쉴 때 법을 깨달아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불성, 부처님 성품을 증득하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본래 고향, ‘본집’으로 돌아간 것뿐이다.

본래 마음, 본 자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분별하고 마음을 밖으로 향하는 그림자 생활에서는 괴롭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의식이 자꾸 돌아다녀서 그렇다. 몽식(夢識), 꿈꾸는 것처럼 의식이 자꾸 돌아다닌다는 의미다.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괴로움은 다 실체가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를 알려면 의식을 ‘회광반조(回光返照)’해야 한다. 의식을 돌이켜 비추어 봐서 본식, 자성, 불성에 계합하면 아무 괴로움이 없다.

앞서 이를 부처님은 사성제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사성제의 ‘고’는 무엇인가?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팔고(八苦)다. 일체는 모두 죽고 헤어져야 한다.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이야 하겠지만 결국 헤어져야 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 **‘사성제품’ 핵심은 ‘본마음’**
> **도성제의 팔정도 중 ‘正見’**
> **사성제 바로 볼 수 있어야**
> **苦 없는 본래 마음 증득해**

이를 깊이 참구하다 보면 본마음으로 돌아갈 길이 보인다. 오전에 ‘여래명호품’에서 말했듯이 돌아다니는 마음을 잡아서 자기와 함께 있어야 한다. 자기와 함께 할 때는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아니다. 그 속에는 ‘지혜광명’만 가득하다. 이 광명은 ‘나무아미타불’이라고도 한다. 나무아미타불은 항상하고 영원하며 수명이 없는 지혜의 빛이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과 함께하라는 것이다. 나옹 스님이 “염도염궁무념처(念到念窮無念處), 깊이 참구하고 참구해서 무념의 자리에 도달하라”고 이르셨지 않는가. 그럼 죽지 않는 아미타불과 함께 영원한 본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지혜광명이 있는 곳에는 청정하고 티끌이 없어 어떤 이름도 붙을 수 없다. 우리가 본마음, 본성, 불성, 자성, 부처님이라 부르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억지로 이름 붙인 것이다. ‘비로자나불’도 마찬가지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하지만 그 이름도 없다. 오직 청정하고 밝은 지혜광명뿐이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는 지혜광명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한다. 법문도 듣고, 경전도 보고 염불하고 계속 참구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뭐꼬’하며 참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밥하면서도, 아이들 돌보면서도, 대화하면서도 항상 이뭐꼬로 돌이켜 봐야 한다. 그럴 때 ‘나’와 함께 하는 순간이다.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자비심으로 ‘사성제’를 가르친 것이다. 고의 원인은 다른 것도 많겠지만, 탐진치 삼독(貪瞋癡 三毒)이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음이 이 괴로움을 만들었다. 그게 집(集)성제다. 그 원인을 멸하면 멸(滅)성제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듯이 고칠 수 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도(道)성제다. 증상에 맞게 약과 수술을 하면 낫는 거다. 그 도는 팔정도(八正道)다. 이게 고집멸도 사성제다.

도성제는 고를 멸하는 8가지 길인 팔정도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正見)’이다. 이는 사성제를 바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부처님은 “사성제 가르침은 코끼리 발자국에 모든 짐승의 발자국이 들어가는 것처럼, 불법 중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설하셨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인가? 첫째 이망상(離妄想), 망상을 떠나야 한다. 요사이 국화가 폈다. 국화는 과연 국화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국화를 보게 되면 국화는 물, 햇빛, 사람의 돌봄 등 ‘국화 아닌 것’으로 이뤄져 있다. 그래서 국화의 실체는 없다. 그래서 국화는 국화가 아니다.

분별이 곧 망상이기에, 분별하지 않고 봐야 한다.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 살기 편안해진다. 분별하면 반대로 세상은 괴로워진다. 이에 〈금강경〉에서도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이라,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국화도 실체가 없다.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뤄져 있기에 ‘무아(無我)’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를 정(正), 바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양변(兩邊), 양극단을 떠나서 봐야 한다.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는가. 극한의 즐거움도 괴로움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근본적으로 해방해 주지 못한다. 이를 ‘중도(中道)’라고 하고 팔정도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 남방이든 북방이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모두 평등한 사람이다.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모두 ‘사람’이라고 평등하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를 ‘바르다’고 하고 정견이라 한다. 이러면 팔정도, 도성제를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정사유(正思惟)다. 바른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폭력적인 생각, 차별적인 일체 생각을 떠나서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 정어(正語)는 이간질하는 말과 거짓말·폭력적인 말을 떠나 바른말을 하는 걸 의미한다. 정업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 정명은 바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정정진(正精進)은 착한 생각을 키워가고 나쁜 생각은 줄여가는 것을 의미한다. 바르게 항상 마음을 챙기는 건 정념(正念)이라 한다.

항상 마음을 바르게 챙겨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챙겨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럼, 정정(正定), 마음이 안정된다. 밖으로 나간 마음을 회광반조하여 안을 비춰보라. 비춰보면 볼수록 지혜광명이 밝아져 아미타불이 된다. 지혜의 빛은 영원하고 한량없는 광명을 뿜는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요, 불성이다.

소소영영(昭昭靈靈)한 마음이 바로 나의 본마음이다. 왜 본마음을 내버려두고 밖으로 찾으러 다니는가. 자기 마음의 광명을 먼저 바로 봐야 한다. 분별·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설한 사성제 중에 도성제, 팔정도며, 중도의 가르침이다.



창작 불교 판소리 '불타전'을 아시나요?

주목! 이 논문

최원섭 연구원의 '불교 창작 판소리 〈불타전〉 연구'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불교철학〉 제15집에 '불교 창작 판소리 불타전 연구'를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김재영 법사가 사설을 쓰고 안숙선 명창이 작창한 창작 판소리 〈불타전〉을 창작 배경과 판소리 구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정리해 게재 한다. 〈편집자 주〉

정리=신중일 기자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전통인 국악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퓨전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전통 음악을 현대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 전통 음악을 일반인에게 친숙한 서양 악기로 연주한다든지, 일반인에게 친숙한 서양 음악을 전통 악기로 연주한다든지, 전통 음악을 변주하여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를 섞어 연주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한 창작곡을 만들어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를 섞기도 하였다.

음악은 가락과 박자를 기본 틀로 하기 때문에 서양 음악과 다른 전통국악의 가락과 박자를 아무리 변주하더라도 국악의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완전한 창작곡이어도 어떤 악기를 사용했느냐와 상관없이 국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악은 '전통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틀이 어느 정도는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국악계는 전승만 되어오던 판소리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어 이른바 '창작 판소리'를 생산해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창작 판소리 중에 드물게 불교와 관련한 것이 있어 관심을 끈다. 불교 창작 판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판소리를 통해 불교와 국악이라는 한 국문화의 대표 요소가 각각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창작 판소리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창작 판소리이다.

1955년 〈탕자가〉와 1956년 〈탄일가〉에 이어 1969년 박동진의 〈예수전〉(주태일 작사)을 시작으로 〈성자 이차돈〉 〈김대건전〉 〈부처님전〉 등 종교와 관련한 다양한 창작 판소리가 만들어졌다.

20편에 가까운 종교 관련 창작 판소리 가운데[12] 불교 창작 판소리가 6편(〈성자 이차돈〉 〈부처님전〉 〈사명대사〉 〈판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 〈나옹과 요괴의 대결〉 〈팔만대장경〉)이나 되니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다. 특히 〈예수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편의 연구가 있고 심지어 전반적인 창작 판소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몇몇 연구에서도 비판적이나마 언급을 할 정도이지만, 불교 창작 판소리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이런 사정은 불교계도 마찬가지여서 불교음악의 범주 안에서 명목만 거론되는 정도에 그친다.

이 글에서 고찰하려는 것은 불타의 전기를 다루는 창작 판소리이다. 〈부처님전〉과 〈판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로, 특히 안숙선 작창의 〈판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안숙선 작창의 〈판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계송이 사설을 지은 〈불타 석가모니〉이다. 이것은 불교방송(BBS)이 제작하여 1991년 5월 20일과 21일에 방송한 2시간 분량의 판소리이다. 2부로 방송된 〈불타 석가모니〉 전체는 남아있지 않고 불교방송에 확인하여 후반부 1시간 분량의 음원만 확보하였다. 이 음원에는 불타가 출가 이후 선정을 배우기 위해 두 선인을 만나러 가는 장면부터 열반까지 담겨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반부 내용은 불타의 탄생과 출가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5년 5월 〈불광〉에 실린 안숙선의 인터뷰 기사에는 "1991년 5월 불교방송을 통해 이계송 선생의 사설로 창작 판소리 〈불타 석가모니〉를 성도품까지 2시간여 동안 공연한 바 있다"고 하여 〈불타 석가모니〉의 2시간 분량이 불타의 전체 일생이 아니라 성도하는 대목까지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안숙선마저도 방송일자를 "연속 방송으로, 주에 한 번, 그다음 주에"라고 기억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1층 법당 팔상성도 중 일부. 싯다르타 태자의 탄생과 사문유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부처님의 전기를 판소리로 만든 것이 〈불타전〉이다.

김재영 사설, 안숙선 작창한
창작 판소리 '불타전' 분석해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공연용
법회 구현 가능토록 구성 특징

불타 전기를 내용으로 하는 불교 창작 판소리 음원

작 사	작 창	시 간	시 기	비 고
김재영①	안숙선	1:56:43	2001	도피안사 발매
김재영②	안숙선	1:51:04	1990년대 후반(?)	청보리학림
이계송①	안숙선	59:07	1991	불교방송 제작 (2부 중 제2부)
이계송②	안숙선	12:27	1993	천태예술제 (항마품, 선정품, 성도품)
김병준	오갑순	1:02:08	1996	국악과 양악 혼성

이 〈불타 석가모니〉는 1993년에 열린 '제3회 천태예술제'에서 항마품, 선정품, 성도품 중 일부가 공연되었는데 이것도 음원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 음원은 필자가 확보한 〈불타 석가모니〉 제2부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제1부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두 번째 〈판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는 김재영 사설의 〈불타전〉이다. 이것은 다행히 음원이 남아있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5월 공연 실황을 녹음하여 2004년 두 개의 마그네틱 테이프 형태로 안성 도피안사가 〈명창 안숙선 판소리 불타전〉이라는 제목으로 발매하였다. 여기에는 〈불타전〉 제작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송암 지원의 '인사말'이 담겨 있다.

"성악 중의 성악으로 성인 중의 성인이신 부처님을 한번 이렇게 잘 일대기를 표현해본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시도는 1987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제가 여기 계시는 김재영 법사님한테 원고를 청탁을 해서 이 〈불타전〉 대본을 처음 만들어서 그해 초파일 날, 석촌동 가면 놀이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안숙선 단장님이, 그때는 단장님이 아니셨어요. 안숙선 단장님이 '강생' 편만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재영 사설의 〈불타전〉은 1987년 원고를 만들기 시작하여 그해 부처님 오신날에 우선 '강생' 편을 공연하였고, 이후 전체 원고가 완성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인지 완창 연습에 시간이 걸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1995년에야 처음으로 완창을 할 수 있었다. 이후 얼마 동안 완창 〈불타전〉은 도피안사에서 매년 공연되었다.

〈불타전〉은 '1. 강생('청보리학림'에는 강림)' '2. 고뇌와 출가' '3. 고행과 성도' '4. 전법륜' '5. 대열반'의 다섯 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불타전〉의 완창 공연을 전하는 기사에는 '강생' '고뇌와 출가' '고행과 항마성도' '전법륜' '대입멸'로 밝혀져 있다. 이와 같은 〈불타전〉의 구성과, 도피안사에서 제작한 테이프 〈불타전〉(2001)에 비해 '청보리학림'의 〈불타전〉 사설이 적은 부분이 많고 상대적으로 덜 완성된 것으로 보여, '청보리학림'의 음원은 1995년 완창 때와 테이프 음원 사이의 공연 실황으로 보인다.

안숙선 작창 판소리와 별개로 오갑순 작창의 판소리 〈부처님전〉이 있다. 이것은 김병준이 사설을 써서 1996년 〈명창 오갑순 가야금병창 음성공양 : 창작 판소리 부처님전〉이라는 제목의 음반으로 발매되었는데, 음반 소개에 따르면 "전통 판소리 어법으로 작곡한 뒤 가야금병창으로 옮기고 국악기와 양악기로 혼성반주단을 편성, 새로운 창작국악으로 옮긴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국내 초유 국악 양악의 협연"이라는 의미를 두었다고 하였다.

이상 필자가 확보한 불타 전기를 내용으로 하는 창작 판소리의 음원을 사설 창작자에 따라 분류하면 〈표〉와 같다. 전체 음원은 다섯 가지이지만 사설 창작자는 세 사람이므로 실제로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불타전〉은 부처님오신날이라는 특정한 날을 위하여 만들어진 창작 판소리이다. 이런 점이 "본격적으로 창작 판소리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행사에 필요한 창작 판소리를 구성한 측면이 있다"고 음악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불교적으로는 바로 그런 점이 〈불타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불타전〉은 단순히 부처님의 일대기를 구성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불교 전통의 요소를 반영하여 신행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불타의 일대기를 다루는 창작 판소리이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역사적인 인물 '불타'의 생애를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의 생애를 통해서 나도 불타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창작 판소리의 목적이다. 따라서 〈불타전〉에는 불타의 중요한 행적이 바로 우리의 일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불타전〉을 시작하면서 찬불게를 암송한 다음에 곧바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고 싶구나.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지이다"라는 발원이 있다. 그리고 〈불타전〉이 끝날 때에는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근 이후에 찬불게를 암송하고 "일체 대중이 해탈열반이오"로 마무리한다. 단순히 불타를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전〉을 듣는 모든 이가 불타처럼 살기를 발원하는 형식이다.

불교 창작 판소리 〈불타전〉은 찬불게 암송으로 시작하여 끝나는 부처님 오신날 법회를 판소리로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판소리 창자가 그 법회의 법사가 되어 판소리의 형식으로 한국불교의 전통과 신행을 녹아낸 불타의 일대기를 설법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 창작 판소리 〈불타전〉의 가장 중요한 불교적 의미일 것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 가까이 마주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 일 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280~330만원

천불천탑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완벽 순례 5박 6일
■ 일 정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양곤–인천





대만 4박 5일
■ 일 정 불광사–중대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천혜의 자연과 찬란한 문화유산,
베트남+캄보디아 4박 6일



순수의 나라,
라오스 4박 6일



불교의 나라,
태국 3박 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24 부산 금정산 범어사



▶한줄 요약
조계문을 보고자 휴가를 내고 온 유럽의 어느 건축학자는 매우 감탄하며 말하였다. "저렇게 육중한 지붕을 어떻게 네 개의 기둥이 지탱할 수 있을까. 참으로 경이롭다." 조계문은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범어사에 조선 관리 '불망비'있는 이유는

'황금색 우물'에 '하늘에서 온 물고기'가 노닐다

몇 년 전에는 태종대, 해운대, 부산대를 부산의 3대라고 농담 삼아 말하였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에서다. 이는 부산을 상징하는 태종대, 해운대, 금정산을 패러디한 말이다. 그 금정산 동쪽 기슭에 범어사가 있다. 범어사,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는 영남의 3대 사찰이다. 다음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의하면, 금정산(金井山)은 '황금색(金) 우물(井)', 범어사는 '하늘(梵天)에서 온 물고기(魚)'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금정산은 동래현의 북쪽 20리에 있으며, 산마루에 3장(丈) 정도 높이의 돌이 있는데, 위에 우물이 있다. 둘레가 10여 자이며, 깊이는 7치쯤 된다.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빛은 황금색이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한 마리 금빛 물고기가 하늘에서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와, 그 속에서 놀았다 하여 이렇게 산을 이름 지었고, 인하여 절을 짓고 범어사라 불렀다."



범어사 조계문(일주문). 자연 암반위에 4개의 돌기둥을 세우고, 짧은 나무 기둥위 화려한 지붕을 얹었다. 조형미와 구조는 우리나라 최고 걸작이라는 평이다.

〈고적〉(1700년), 〈범어사창건사적〉(1746년) 등에는 범어사 창건 이야기가 전해진다. 요약하면 이렇다.

신라 흥덕왕 10년(835) 동쪽 해안에 왜구가 10만의 병선을 거느리고 나타나 신라를 침략하려 하였다. 그때 대왕의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말하였다. "태백산에서 의상 스님이 300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화엄법문을 연설하며, 화엄신중이 항상 그의 옆을 떠나지 않는다. 대왕이 의상 스님을 청하여 함께 금정산 아래로 가서 7일 동안 화엄신중을 독송하면, 왜병이 자연히 물러갈 것이다." 대왕이 신인의 말대로 하자, 신기하게도 왜구들이 물러났다. 이를 기리기 위해 범어사를 창건하였다.

그런데 흥덕왕 재위 때(826~835)는 의상 스님(625~702)이 열반한 지 훨씬 이후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구전과 설화를 바탕으로 절의 역사를 정리하다가 생긴 일이다. 고운 최치원(857~?)의 〈당대천복사고사주번경대덕법장화상전〉에는 신라의 화엄십찰(華嚴十刹) 중 하나, 일연 스님(1206~1289)의 〈삼국유사〉에는 의상 스님이 가르침을 전한 열 곳 사찰 중 하나가 범어사라 한다. 따라서 범어사 창건은 의상 스님이 귀국한 670년(문무왕 10) 이후일 것이다.

육중한 지붕을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

범어사 입구 정류소에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범어사 일주문이 있다. 일주문을 범어사에서는 조계문(曹溪門)이라 한다. 조계는 중국 혜능 스님(638~713)이 부처님 가르침을 펼쳤던 지역 이름이다. 따라서 부처님…달마 스님…혜능 스님에게 이어지는 법맥을 잇는 사찰이다.

일주문(一柱門)은 하나(一)의 기둥(柱)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집을 지으면 네 개의 기둥이 네 모서리에 자리하지만, 일주문은 두 개 또는 네 개의 기둥이 일렬로 서있다는 의미다. 이는 일심(一心)을 나타낸다. 한결같은 마음, 부처님 마음을 뜻한다. 또는 이러한 모습의 일주문은 '부처님의 다양한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가르침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하나의 가르침은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가르침이다.

범어사 조계문은 이러한 일주문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기둥 2개만 있는 여느 사찰의 일주문과 달리 자연 암반 위에 4개의 돌기둥을 세웠다. 그 돌기둥 위에 짧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화려한 지붕을 얹었다. 조형미와 구조는 우리나라 최고의 걸작이다. 현재 짧은 나무 기둥을 받치고 있는 돌기둥은 약 300년 전에 세운 그대로다. 두툼하고 투박한 돌기둥은 가식 없이 정 많은 이 지역 사람의 성격과 마음씨를 닮았다고 한다. 조계문을 보고자 휴가를 내고 온 유럽의 어느 건축학자는 매우 감탄하며 말하였다. "저렇게 육중한 지붕을 어떻게 네 개의 기둥이 지탱할 수 있을까. 참으로 경이롭다." 조계문은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돌기둥 위 짧은 나무 300년전 그대로
정 많은 지역민 성격 · 마음씨 닮아
낭백 스님 환생 불리운 관리 '조엄'
보시행 했던 애민 정신 녹아있어



범어사 하마비. 사찰 하마비는 절에 들어오는 이는 모두 똑같은 부처님 제자라는 의미가 담겼다.

문을 연 자가 문을 닫은 사람이다.

조계문 조금 못 미쳐 '下馬(하마)'라는 글씨가 새겨진 하마비가 있다. 하마비는 서원, 향교 입구에도 있다. 옛날에는 하마비부터는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들어와야 했다. '大小人員皆下馬(대소인원개하마)'(대인, 소인 모두 말에서 내려라)라는 글씨가 새겨진 하마비도 있다. 절에 들어오는 이는 모두 똑같은 부처님 제자, 신도라는 의미다.

그런데 조선시대 유생이나 관리들은 하마비를 무시하고 일주문까지 말을 타고 들어오기 일쑤였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었으니, 이야기의 주인공 조엄(趙曮)(1719~1777)이 그랬다.

어느 날 범어사 스님들은 중앙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는 관리가 온다는 전갈을 받았다. 그 관리 이름은 조엄이었다. 지방관리가 와도 그러했듯이 모든 스님은 어산교까지 나가서 행렬을 지어 기다렸다. 조엄은 일주문까지 말을 타고 가지 않고, 하마비 못미처 있는 어산교 앞에서 내렸다. 그는 스님들의 안내를 받으며 사찰을 자세히 돌아보았다. 곧 수십 년 전 낭백 스님이 열반하기 직전에 '출입하지 말라'고 봉해 둔 방 앞에 이르렀다. 그는 스님들의 만류에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안에는 '개문자시폐문인(開門者是閉門人)'(문을 연 자가 문을 닫았던 사람이다)라는 스님의 친필유묵이 있었다. 문을 연 조엄이 문을 닫았던 낭백 스님의 환생이라는 것이다.

낭백 스님이 범어사에 출가 수행할 당시, 불교 박해는 극에 달하였다. 공부할 겨를도 없이 나라에서 부과된 부역에 종사하기에 바빴다. 낭백 스님은 이러한 당시 사정을 개탄하였다. 그리고 금생에 안되면 내생에라도 부역을 면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하리라 원력을 세웠다. '금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내생에는 나라의 고급관리가 되리라. 그 관리의 특권으로 범어사 스님의 부역을 혁파하리라.' 그날부터 힘이 닿는 대로 복을 지었다. 샘물을 파서 행인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밭을 개간하여 참외, 오이, 수박 등을 심어서 행인에게 보시하고, 짚신을 삼아서 보시하였다. 열반할 무렵에는 범어사 뒷산 숲에 들어가 굶주린 호랑이에게 육신을 보시하였다.

스님은 열반 전에 자신의 환생을 증명할 세 가지 일을 남겨 놓았다. '고급관리가 되어 올 때 어산교 앞에서 내리고, 자신이 쓰던 방을 봉해 두었다가 스님 스스로 열고, 사찰의 어려움을 물어서 해결을 약속하리라.' 세월이 흘러 제자 스님들이 노스님이 될 무렵, 조엄이 범어사를 찾은 것이다. 조엄은 사찰의 어려움을 묻고 36종의 부역을 혁파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즉시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지금 범어사에는 조엄의 공덕을 잊지 않는 불망비(不忘碑)가 있다. 조엄은 스스로 낭백 스님의 후신이라고 한 일은 없다. 그러나 낭백 스님의 원력을 성취하였기에 스님의 환생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시행을 했던 스님의 모습이 조엄의 애민 정신에 그대로 녹아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고구마를 들어온 이가 조엄이다. 조엄은 1763년(영조 39)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1764년 귀국길에 대마도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왔다. 고구마는 수확량이 많고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 백성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애민 정신이 바탕이 된 행위다. 조엄의 〈해사일기〉에는 자세한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구마 재배지는 부산 영도다. 현재 영도구 청학동에는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이 있다.

이제 고구마 하면, 범어사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설화탐사대를 군고구마가 생각나는 계절에 마무리하게 되다니. 함께한 모든 인연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다음 인연을 기다린다.〈끝〉

〈불교학자〉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12호 | 15 | 전면광고

이 세상에 고통 받는 중생들이
끝없이 많으니 내 부처 되어 마지막
한 생명까지 기어이 건지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본행집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건평 : 150평 외
- 매가 : 20억
- 부지 : 160평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위치 : 부산포교원
- 5층건물에 4층
- 보2000/70만원, 권리1000만
- 면적 : 60평실평
- 전철역 출구앞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근처) (일산역 6분거리)
- 규모 : 40평 정도(3층)
- 보증금 : 300만원 월세 40만원
- 삼존불(동불) 탱화, 불구, 집기 일체, 호신불 230불 가량 등
- 모든 시설 포함 2000만원에 넘김 시설비 조절해 드립니다. 물품, 집기만 필요하시면 가능합니다.

010-2847-62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 규모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3억 5000만원

010-5316-5669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 4500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갓바위 뒷길 근처
- 총 평수 43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격 알아서

010-5804-510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동래구 온천3동 광혜병원옆
- 포교원 3층 약50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스님방
- 전세 1000만원,월세 7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553-5001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사유지 포함 500평 사용
- 주차 10대, 건평 68평
  1층 요사 42평 방 4개, 화장실 3개
  2층 대웅전 26평, 식당 2개,
  실외 화장실 1개, 산신각 6평, 난방 심야전기,
-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 가능
- 시가 이하 6억 5000만원 급매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사등면
- 대지 : 300평, 임야 : 2700평
- 건물 : 법당 산신 용왕 요사채 넓음
- 전망 최상, 약수물
- 가액 : 2억 7500만원

010-9127-5355

사 찰 안 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 대지 : 232평 법당 요사채
- 천도재, 법회 가능
- 금액 : 13억원

010-4585-6807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종합병원 월곳,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2, 각방 2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집기시설) 5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010-8599-9468
010-4746-8827

사 찰 안 내

- 위치 : 구미시 선산 부근
- 인근 산 1000평 사용
- 법당 삼성각 창고
- 보살 및 비구니 스님 환영
- 즉시 법회 가능
- 보시고 결정

054-482-66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대동안길 32번지 해동선원
- 신축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산신각 사리전 나한전 용왕당
- 총 290평 및 국유지 720평
- 가액 3억 6000만원

010-3596-00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법당, 산신각 20평/요사채 50평
- 창건 50년
- 가액 : 2억9000만원

010-2369-3382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영가장애(빙의) · 신기운 장애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이 신심, 발심하여 좋은 인연 맺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여 행복해 지시길 간절히 발원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 해결법] 전화상담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① **빙의, 신기운 체크**
일단 **몸 안**에 **어떤 기운**이 **악영향**을 미치는지 **체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② 그 기운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지? **노력**하도록 방법을 일러드리고 스스로 **노력**해보고 도저히 **안되었을 때 개입**하여 **문제해결**로 접근함.

③ 문제해결 **방법**은 몸속에 영향 미치는 **기운 확인, 체크**후 환자로부터 **몸 밖**으로 **분리, 차단**하여 **천도**시킴.

※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은 환자로부터 **분리, 차단 하지않고/ 몸 밖**에서만 **굿**이나, **천도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리 **없음**.

④ 빙의,신기운에 가장 **효과적인 '금강경'을 독송**하게 하거나, **듣게**하고, 효과적인 **'기도문'**을 **실행** 하도록하여, **스스로 방어함**과 **힘을 기르게** 하고 **원격**으로 빙의 기운을 **체크, 차단**시켜 드림.**(최고 전문가만 가능)**

⑤ 천도재 **법사스님**이 **정법**(正法)에 대한 **큰 법력**(法力)을 갖추어야 **빙의, 신기운**을 **천도, 다스릴 수** 있으며, 빙의, 신기운도 **법사스님**께나, **환자당사자, 가족**에게도 **감사해**하고 **고마워해야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 **퇴마**가 아닙니다. **강제적 퇴마**는 좋은 방법이 **아니며** 또 다른 **원결**이됩니다!

⑥ 많은 **천도 경험**으로 알게된 것은 **과거, 전생**에 **자신**이 지은 **악업**(주로 **살생업**), **선대조상**들께서 지은 **업연**(業緣), **악연**(惡緣)이 그 **빚갚음, 앙갚음**을 위해서,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오는 것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에 따라 오는것이니, 달게 **받아들이고 참회**하고, **금강경독송**하고, **천도정성의 복**을 지어 드려야, 그 **고**(苦)가 **풀려 난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⑦ **금강경 독송 정진**과 **참회정진, 천도재 정성**드림, **미륵존여래불 정진**으로 해결 못할 **난제**는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인연** 맺어 보십시오!

※ **증세**의 **경·중**에 따라 경제적 **부담**도 고려하여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 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지구촌 최대이슈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부처가 되어 오래 살고 건강장수·도인·신선·선녀 성현이 되는 루진통육경신대법회



태일대사 작품
다문화방송 방영

인간은 누구나 오래살고 부자로 살고싶은 욕망과 성직자나 수행자들도 성불도통하여 최일류 스승으로 살고싶으나 이생에 올때 부모 조상님과 염라국에 진 빚을 갚지 않았기에 온갖고통과 실패 병들고 다치는 병마에 져서 부도 이혼 각종 장애에 걸리고 수행자나 성직자도 염불 목탁, 명상 참선화두 수행으로는 진법을 모르고 염라국 진 빚 때문에 각종 마장의 장애로 불행, 단명, 탈선 등 수행마장으로 몸에 병마로 고통 받으며 성불인 자성의 문 현관도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다 가는 것이다. 인간에서 사람이 되고 부처가 되려면 먼저 염라국에 자신의 빚과 업을 벗는 수행을 하여야 하거늘, 염라국 진 빚을 갚는 길은 오직 60일에 한번드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각종 음식과 노자돈으로 천상신선, 신장, 십나찰려 불보살님과 각종 조상님과 염라대왕 권속 사자들에게 잔치하는 날이므로 동참자 진 빚 탕감과 모든 죄업이 소멸되어 만법귀일이 되어 내가 보시한 만큼 염라국에 혜택을 받아 성불도통으로 도인, 신선, 선녀, 성현이 되어 장수도하고 부자도 되며 자손출세 성공도 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성직자, 수행자들도 장애없이 건강장수 하는 것이다. 이제 말법과 병겁이 시작되오니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할 줄 알아야 성불도통할 수 있으며 염불, 목탁, 명상, 참선 이뭣고 방하착 시습과 무자화두 수행은 모두 형상부처인 것이고 형상부처에 끄달리지 말고 진불인 자성의 문 현관을 평생 찾지 못하는 것은 염라국에 진빚을 모르기에 누구나 방황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수행에서 벗어나 진불인 내 부처에게 점안하여 참진불인 마음의 문을 찾는 루진통 육경신 법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루진통 수행에 건강장수 성불도충 천하에 비법이 다들어 만법귀일이 됩니다!!★

• 입재 _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해시 • 해제 22일 무박 2일 해제
• 상담전화 _ 010-9292-3110 / 010-9718-4449

천지공사 육불선 육경신 천문 도통회 총본산 태일대사 합장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512호 | 16 | 전면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길 것이요,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곧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자 미 두 수
(紫 微 斗 數)

로 평생 사주 봐 드립니다.

- 인생은 운이 전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 당신의 운은? 당신의 복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 사주가 선천운이라 하면, 이름또한 후천운이라 하여 살아가면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작명, 개명, 진로, 직장운, 사업운, 결혼운, 궁합 택일 등등

010-3102-3543

비구니 스님 구함

경남 고성
전통사찰 380평
주지로 직접 운영 하실분

010-5033-1422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불교의식(행사대행)

사찰의 모든 행사
원하시는대로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영산재 이수자 연암당
010-6219-4757

비구니 · 보살 구함

경남 하동 악양
전통사찰 500평
영적으로 고통받는
비구니 기도 스님 두 분 혹은
보살님 두 분 구함

010-8298-380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㉔ 茶聖 초의 선사

초의 선사, 조선 후기 차문화 중흥조

초의 선사(草衣 禪師, 1786~1866)는 대흥사에 전해진 선차를 이어 발전시켜 차 문화를 중흥했다. 이런 공로는 그를 한국의 다성(茶聖)이라고 칭송한 이유로, 당나라 육우(陸羽)가 차문화에 끼친 공적과 비견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차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는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생산 기반의 확충에 달렸다. 이외에도 차 문화의 질적 수준은 바로 차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미적 감수성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화 흐름의 변천 과정에서 본다면, 조선 후기 차문화가 일시적인 중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동력은 초의에 의해 좋은 차가 생산될 수 있었고, 이를 향유한 문인들의 문예적인 취향이 높았다는 점에서 기인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초의선사와 교유했던 경화사족들은 그를 '전다박사'라 칭송하여 그의 차에 대한 식견과 초의차의 품색을 높게 인정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차에 대한 연구는 대략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는 대략 1830년경 〈다신전〉을 편찬한 이후 본격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가 밝혔듯이 〈다신전〉의 편찬이 수홍 사미가 다도를 알고자 했으며, 총림에는 조주의 끽다전통이 있었지만 다도를 모른다는 점에서 구체화된 것이며, 당시 대흥사 승려 사이에서 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사원 차의 품질 개선을 위해 명대에 유행했던 잎차의 제다법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청대에 보편화된 차의 종류가 잎차였던 것도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무렵 대흥사 사중에서는 덩이차(병차)와 잎차를 함께 만든 경향을 보였고, 초의선사의 제다는 제다법의 이론적 완성과 제다가 숙련됨에 따라 좋은 잎차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였다. 그의 제다 완성도는 1842년경에야 다삼매(茶三昧)의 경지를 드러낸 차를 완성하였는데, 대략 1838년경 만든 그의 잎차의 품질은 추사 김정희에 의해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나에게 보낸 차의 품질은 심폐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만큼 좋지만, 매번 차를 덖는 방법이 조금은 지나쳐서 차의 정기가 사그라진 듯합니다. 만약 다시 만든다면 (차를 덖을 때) 불의 온도에 주의하심이 어떨지요(茶品荷此另存 甚覺醒肺 每炒法稍過 精氣有銷沈之意 若更再製 輒戒火候 如何如何)

1838년은 초의가 〈다신전〉을 편찬한 지 8년이 지난 후로 그가 어떤 차를 만들기에 주력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추사는 초의가 만든 차를 "덖는 법(炒法)"이라고 한 점이 눈에 띈다. 초법이란 바로 뜨거운 무쇠 솥에서 찻잎을 덖어내는 산차 제다법이다. 당시 초의는 〈동다송〉을 저술한 지 한 해를 보낸 시기이지만, 차를 덖을 때 불의 강약 조절에 미숙함을 드러내 정기가 사라진 차를 만들었다는 것이 추사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품질이 우수한 차는 좋은 찻잎을 얻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다음의 조건은 화후의 문제이다. 바로 차를 덖거나 말릴 때의 불의 강약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다. 불의 조절은 제다인의 통찰력과 적절한 순간을 판단할 수 있는 순발력과 결단에 의해 찻잎의 익은 정도의 극점을 간파하는 것이다. 참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차는 수행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수행자는 참선을 통해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므로, 그 간극의 시공간을 장악할 수 있기에 완성도 높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의는 어떤 방법으로 차를 만들었을까. 그의 제다법은 〈동다송〉 '조다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초의차를 전승한 응송 박영희 스님이 대나무 사이에서 찻잎을 따는 모습.

1830년경 '다신전' 편찬 뒤 茶연구 본격화
1842년 '茶三昧' 경지…'덖음 입차' 제다해

새로 딴 찻잎에서 묵은 잎을 가려내고 뜨거운 솥에서 덖어낸다. 솥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찻잎을 넣고 급히 덖어내는데 이때에 불을 늦추지 않는다. 알맞게 덖어지면 꺼내서 대자리에 놓고 여러 번 가볍게 둥글리듯이 비비고 털어서, 다시 솥에 넣고 불을 점점 줄이면서 덖는다. 덖고 말리는 것에는 법도가 있다. 차를 만드는 데에는 묘하고도 은미함이 있으니 말로 드러내기 어렵다.(新採 揀去老葉 熱鍋焙之 候鍋極熱 始下茶急炒 火不可緩 待熟方退 徹入 中 輕團枷數遍 復下鍋中 漸漸減火 焙乾爲度 中有玄微 難以言顯)

이처럼 초의의 제다 공정은 찻잎 선별하기-첫 덖음(초살청)-비비기(유념)-비빈 찻잎 떨기-다시 말리기(재건)-밀실에서 말림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초의차의 공정 과정은 범해 스님의 '초의차'에서도 언급하였다.

맑은 날, 첫 곡우에(穀雨初晴日)
아직 피지 않은 황아 잎을(黃芽葉未開)
깨끗한 솥에 정성을 다해 덖어서(空鐺精炒出)
밀실에서 말리네.(密室好乾來)
측백나무 그릇 둥글고 모나게 묶어서
(栢斗方圓印)
대나무 껍질로 잘 포장했네.(竹皮葹裹裁)
단단히 간수하여 밖의 기운 막으니(嚴藏防外氣)
찻잔에 가득히 향이 뜨는구나.(一椀滿香回)

범해 스님의 다시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구에서 "맑은 날, 첫 곡우에/ 아직 피지 않은 황아 잎"이라 하였다. 이는 채다했던 시점과 찻잎의 상태, 즉 일창일기(一槍一旗)를 말한다. 두 번째 시구는 "깨끗한 솥에 정성을 다해 덖어서/ 밀실에서 말리네"라고 하였다.

이는 제다의 공정 과장으로, 솥에서 차를 덖고, 다시 재건한 후 재차 밀실에서 말린다는 것이다. 밀실은 바로 온돌방을 말한다. 세 번째 구는 차의 포장 방법으로 "측백나무 그릇 둥글고 모나게 묶어서/ 대나무 껍질로 잘 포장했다"라고 하였다. 측백나무 그릇을 차 통이며 죽순 껍질을 이용하여 차를 저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범해 스님이 언급한 초의차는 덖음 잎차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끝〉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㊻

1. 불교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
②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은 보살이 중생을 섭수하는 법이다.
③ 불교의 핵심정신은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자리이타 정신이다.
④ 중생은 지옥, 화생, 난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를 윤회한다고 본다.
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연기적 관점이다.

해설 : 육도윤회와 관련한 문제이다. 중생이 윤회하는 여섯 갈래의 길을 육도라고 하며, 이 육도의 안에서 윤회하기에 육도윤회라고 한다. 육도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여섯가지를 말하며 때로는 아수라를 천상에 포함시켜 오도로 표현하기도 한다. 화생과 난생은 화현하여 태어나는 부류와 알에서 태어나는 부류라는 뜻으로 태어나는 형식에 따라 중생들을 구분하는 사생을 말한다. 사생이란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의 네 가지가 있으며 태는 자궁을 통해 태어나는 것, 습생은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등이다.

2. 불교에는 수많은 부처님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受記)를 받고 56억 7천만 년 후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중생을 구제하기로 예정된 부처님은?
① 연등부처님 ② 미륵부처님 ③ 아미타부처님 ④ 약사여래부처님
⑤ 비로자나부처님

해설 : 미륵부처님이다.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 및 대승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즉 타방에도 현재 부처님들이 계신다고 본다. 연등부처님은 과거의 부처님으로 석가모니부처님이 전생에 보살이실 적에 수기를 주신 분이다. 아미타부처님과 약사여래부처님은 극락세계와 유리광세계, 즉 타방에 계신 부처님들이시며, 비로자나부처님은 법신불로 부처님의 몸을 불신이라고 하는데 진리로서의 몸인 법신불, 수행의 공덕으로서의 몸인 보신불, 우리에게 오신 화신불의 세 가지 몸이 있다고 한다. 이를 삼신불이라고도 한다.

3. 대승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수행자 중심의 가르침이다.
② 개인의 해탈(解脫)을 중시하였다.
③ 자신의 엄격한 종교성을 강조하였다.
④ 아라한(阿羅漢)의 경지를 최고 이상형으로 삼았다.
⑤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 불교이자 사회 불교로 발전하였다.

해설 : 대승불교는 수행자 중심을 벗어나 모두를 위한 가르침이며, 개인만이 아닌 모든 중생의 성불을 목표로하고, 다양한 수준의 중생들에게 알맞은 여러 가지 방편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부처님의 경지를 최고 이상형으로 삼았다. 그럼으로 대승불교는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 불교이자 사회 불교로 발전해나갔다.

4. 대승불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원전후에 발생하였다.
② 소승불교에 반대되는 말이다.
③ 재가신자를 포함한 혁신적인 불교이다.
④ 자기수행과 함께 사회와 중생을 구제하자는 불교이다.
⑤ 재가중심의 불교에서 출가중심의 불교로 전환된 것이다.

해설 : 대승불교는 기원전후에 발생하였으며, 기존의 불교를 소승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다름을 강조하였다. 재가신자를 포함한 혁신적 운동이었으며, 자리이타를 함께 추구하는 불교였다. 대승불교의 큰 특징은 출가중심의 불교를 재가와 함께하는 불교로 전환한 것이다.

5. 대승불교는 원력의 불교라고 일컬을 만큼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서원을 세우는 것을 발원(發願)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욕망으로 물든 삶을 나눔과 배려의 삶으로 전환한다.
② 성취의지를 표현하기보다는 구원과 복의 성취를 추구한다.
③ 대립과 경쟁보다는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을 추구한다.
④ 보편타당한 삶의 지향점을 찾게 하는 인생의 중요한 덕목이다.
⑤ 끌려다니는 업생(業生)이 아니라 원생(願生)으로 나아가게 한다.

해설 : 발원은 원력을 세운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삼보 앞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삼보께서도 내가 세운 원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용기와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삼보의 도움을 기복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나의 서원을 성취하기 위한 가피로서 여겨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 기초한 것을 서원이라 하지 않으며, 불교에서 서원은 자리이타의 마음과 연결되는 윤리적, 주체적 목표라 할 수 있다.

정답 : 1. ④ 2. ⑤ 3. ⑤ 4. ④ 5.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 주 문 : 043) 297-2514
-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㉑ 정관 스님의 '능이 배추 칼국수'

▶한줄 요약
가마솥 안의 물이 팔팔 끓어 오르면 겨울 무며 배추, 애호박, 능이 버섯까지 손으로 뚝뚝 떼어 넣고 한소끔 익혀준다. 채소가 적당히 익으면 준비한 면을 넣어줄 차례. 장작불과 가마솥이 구수한 내음을 거침없이 내뿜기 시작하면, 커다란 양푼에 옮겨 담는다. 뜨끈한 국물을 들이켜자 찌르르 속이 데워진다.



능이향 머금은 국수…산중잔치가 열린다

굳게 닫혔던 차의 문이 열리자 청명한 산 내음이 와르르 밀려온다. 백양산 자락에 흩뿌려지던 겨울비에 숲이 젖어가는 시간. 겨우내 옹크려가며 제 몸의 물기를 말리던 나무들은 비와 함께 그 농축된 생의 기운을 몇 곱이나 진한 향으로 반사한다.

붉고, 노랗고, 또 오래된 종이 마냥 빛바랜 낙엽이 켜켜이 쌓인 숲. 지나간 시간의 이야기가 새겨진 그 수천수만의 편지가 비에 젖을 때, 온 산은 생의 내음으로 아득해진다.

모든 것이 잠들어 가는 혹한의 계절, 하지만 가장 열렬히 삶을 증명하는 이 겨울의 산을 찾아 오른다.



어머님이 쓰시던 국수 방망이를 들고 선 스님. 촉촉하고 보드라운 반죽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가마솥이 구수한 내음을 내뿜기 시작하면 스님은 더 바빠진다. 국수를 끓인 날은 산중 잔치가 따로 없다.



정관 스님의 능이 배추 칼국수

재료 능이 버섯 적당량(하루 전에 미리 불려놓을 것), 밀가루(8) : 콩가루(2), 배추, 애호박, 무, 건고추, 들기름, 소금, 집 간장

만드는 법
① 분량의 밀가루/콩가루에 집간장, 들기름 약간, 그리고 굵은 소금을 미지근한 물에 녹인 것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해준다.
겨울에는 반죽이 빨리 굳으므로 약간 물렁하게 반죽해 주는 것이 좋다.
② 동그랗게 뭉친 반죽에 손가락을 넣어 반죽의 8부 정도 들어가면 1~2시간 정도 실온에서 숙성시킨다. (겨울 기준)
③ 숙성된 반죽은 잘 펴준 뒤 썰어주는데, 이때 반죽을 세 부위로 나누어 굵은 면, 중간 굵기 그리고 얇은 면으로 나누어 잘라준다.
④ 끓는 물에 무, 무청, 배추, 능이버섯을 한입 크기로 뚝뚝 썰어 넣고, 건고추도 함께 넣어 팔팔 끓여준다.
⑤ 채수가 끓고 야채가 적당히 익으면 굵은 면→중간→얇은 면 순서대로 넣어 익힌다.
⑥ 소금을 더해 간을 맞춘 뒤, 면이 잘 익으면 완성.

천진암을 찾아서

전라남도 장성, 하얀 양이 법문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는 천년고찰 백양사. 그 고적한 산사의 곁을 지나 자박자박 산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오늘의 목적지인 천진암에 다다른다.

본래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수행처였으나, 이제는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산중 명소가 된 천진암. 바로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천진암 주지)이 계신 도량이다.

정관 스님은 지난 2017년 넷플릭스에서 선보인 다큐 시리즈 〈셰프의 테이블(Chef's Table)〉을 통해 일약 전 세계에 사찰음식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 하지만 그것은 부싯돌에 번쩍, 하고 불이 당겨진 찰나일 뿐, 스님의 삶은 이미 이곳 천진암의 공양간에서부터 아니 어쩌면 아주 멀고 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요리하는 수행자'의 여정을 이어온 것과 다름없다.

고적한 전각과 대웅전이 여느 암자와 다르지 않은 모습. 하지만 법당이 내려다보는 볕 좋은 마당에 조르르 선 장독대가 음식을 통해 불법(佛法)을 전하는 이곳의 나날을 엿보게 한다.

산 너머 해가 가득 떠오르면 산사의 하루는 더욱 분주해진다. 천진암의 공양간이 열리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국수 이야기와 함께할 터다.

정관 스님의 겨울, 그 따뜻한 기억의 승소를.

그 어디에서 나에게로

어린 시절 어머니가 국수 만드시는 것을 한 번 본 뒤로 혼자 밀가루 반죽을 하고, 국수를 내어 온 동네 사람들을 먹였다. 정관 스님 7살 무렵의 일이다. 그 후로도 음식 만들기는 절로 절로 손에 붙었으니, 요즘으로 말하면 요리 영재였던 셈이다.

"이번 생에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다 전생의 수업으로, 그 인연으로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손끝으로 알게 됐어. 그저 남의 것을 배워서 따라 하다 보면 금세 고갈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고 말아요."

전날 밤까지도 연일 강연과 템플스테이 등이 이어졌다는 정관 스님. 피로가 채 풀리지 않았을 이른 시간이지만 스님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내가 좋으니까 하지, 누가 시켜서 하면 이렇게 못 했을 거예요(웃음)."

그런 스님이 준비한 오늘의 국수는 바로 '능이 배추 칼국수'. 미리 숙성시켜 두었다는 반죽은 뽀얗게 빛나고, 커다란 나무 도마를 세 개나 이어 면을 낼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 곁에 놓인 오래된 나무 방망이 하나. 바로 정관 스님의 어머님이 쓰시던 국수 방망이다.

여전히 길이 잘 들어 보드랍고, 나뭇결을 따라 하얀 세월의 더께도 함께 얻은 방망이가 도마 위에서 춤을 춘다. 어머니의 손 위에 스님의 손을 얹은 듯이 하나가 되어.

생과 사를 넘어 전해지는 어떤 것은 맛으로, 이생을 밝히는 힘으로, 새로운 이야기로 그렇게 이어져만 가는 것이다.

음식, 그 이상의 교감

"능이 배추 칼국수는 주로 겨울에 먹는 음식입니다. 여름에도 몸이 허할 땐 이열치열 삼아 먹기도 하지요. 하지만 능이는 옛날부터 유명한 '감기국' 재료입니다. 겨울 무와 땅에 묻어 두었던 배추를 함께 끓이면 아주 좋은 보양식이 되지요."

능이 버섯은 그 독특한 향미와 함께 천식 같은 오랜 기침과 기관지염 등에 효능이 좋아 예로부터 약용식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능이 배추 칼국수는 감기 걸렸을 때 치유를 위해 한번. 또 감기가 나아갈 즈음 열을 내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먹곤 합니다. 그리고 국수 반죽에는 콩가루를 같이 넣어주지요. 산중에선 고기도 안 먹고, 또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쉬이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 콩가루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쉴 틈 없이 국수를 준비하는 중에도 스님의 가르침은 물 흐르듯 이어진다. 여름과 겨울마다 달라지는 반죽의 비율, 손끝으로 알 수 있는 찰기의 정도. 그리고 마침내 비단처럼 펼쳐지는 반죽을 햇살에 비추어 면의 두께를 맞추는 방법까지도.

"만져봐요, 느낌이 참 좋지요? 너무 부드럽고 예뻐요(웃음)."

쓱썩쓱썩, 정관 스님의 잰 손놀림으로 완성된 칼국수 반죽이 펼쳐지는 순간 탄성이 터졌다. 촉촉하고 보드라운 반죽을 쓰다듬는 순간 묘한 생명력이 느껴졌다면 과한 착각일까.

어쩌면 '오이를 손질할 땐 오이가 된다'는 스님의 철학 때문인지도. 아니, 어느새 그친 비와 따사로워진 햇살에 내내 감사를 전하던 스님에게서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전해졌는지 모를 일이다.

승소의 시간

어느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스님의 곁에서 국수 준비를 돕는다. 가마솥 안의 물이 팔팔 끓어 오르면 겨울 무며 배추, 애호박, 능이 버섯까지 손으로 뚝뚝 떼어 넣고 한소끔 익혀준다. 잠시 후 채소가 적당히 익으면 준비한 면을 넣어줄 차례. 마침내 장작불과 가마솥이 구수한 내음을 거침없이 내뿜기 시작하면, 커다란 양푼에 옮겨 담고 재빨리 후원으로 향한다.

잠시 후 색 고운 동치미, 잘 익은 김장 김치와 함께 차려진 귀한 한 상. 발우에 담긴 뜨끈한 국물을 들이켜자 찌르르 속이 데워진다. 채수의 감칠맛, 깊게 배어난 능이의 향과 콩가루가 들어가 씹을수록 고소한 칼국수의 조화란! 너나 할 것 없이 두 번째 그릇을 더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야말로 산중 잔치가 따로 없다.

"큰 절에 있을 때 이 국수를 먹는 날은 발우공양을 하지 않았어요. 그 날만큼은 솥단지를 떡하니 방 한가운데 두고, 어시 발우(발우 중 가장 큰 그릇)에 먹고 싶은 만큼 양껏 덜어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저녁이었어요. 겨울철 별식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자유가 주어지는 날이었지요(웃음)."

언제나 긴장을 놓치지 않는 수행 생활, 그중에 이 국수 한 그릇은 그만큼 뜨거운 여유를 전하는 선물이었다.

"하루 저녁이지만 제도 밖의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그 자유로움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요. 어떤 악기든 조율을 잘 해야 오랫동안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늘 팽팽히 매여만 있어선 제소리를 낼 수 없어요. 쉼 없이 자기 수행을 반복하면서도 가끔은 국수 한 그릇의 자유로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음식은 그렇게 긴장된 자기 마음을 조율해 나갈 힘이 있습니다."

달도 별도 잠에서 깨지 않은 그런 시간, 홀로 어둠 속에 나서 세상을 깨우고 뭇 생명을 위해 기원하는 수행자의 마음을 어찌 가늠할 수 있을까. 하지만 추운 겨울 메마른 숲에 단비가 내리고, 또 그 숲이 전해주는 청아한 공기에 지친 숨을 틔우는 순간이면 문득 그 마음 끝에 닿는 것도 같다.

한 그릇 국수에 힘을 내어 깊은 새벽을 두려움 없이 맞이했을 이 땅의 뭇 수행자. 그 얼굴 위에 승소(僧笑)가 뜬다. 〈끝〉 〈작가〉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아무리 필연이라 해도 내 한생각으로 다 조절할 수 있다

생명은 태초에 어떻게…

질문 저는 이 생명이 태초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궁금한 학생입니다. 과학계에서도 다양한 학설들이 있는 것 같고 종교계에서도 여러 다른 설이 있는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묻기를 이렇게 물었어요. "태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태초는 내가 나고부터 태초지, 왜 그렇게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태초는 내가 나고부터 태초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알았으니까. 알고 보니까 일체 생명은, 지금 '유생무생'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는 생명, 태로 나는 생명, 알로 나는 생명, 화해서 나는 생명, 질척질척하는 데서 나는 생명, 이 모두가 다 생명이다 이겁니다. 이 생명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이 에너지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겨난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아, 큰 별이 떨어졌다." 그러죠.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아니라면, 마음의 씨가 아니라면 태양도 형성시키지 못했어요. 자기의 마음의 씨가 아니라면 자기도 형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억겁 전년서부터 진화됐다고 합시다. 생각을 하는 것이 진화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즉 마음에서 생각을 한 것이 진화라면 창조해 낸 것은 설계를 바깥으로 내놓은 거죠. 그럼 그 설계는 한 군데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이 설계도, 이 설계도, 이 설계도, 이 모든 것이 다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물감이 열 가지가 있다면, 물감은 이 열 가지를 한데 몰아서 물감이라고 하지만 색은 전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물감을 쓸 수도 있고, 저 물감을 쓸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물감이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학생이 어머니를 만날 땐 자식이 된 마음으로 어머닐 대하죠? 그리고 형님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형님을 만나는 마음으로서 대하죠. 동생을 만났을 때는 내가 동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대하고 친구를 만났을 때는 친구를 만나는 마음으로 대해요. 그게 나툼이에요, 바로. 이 색은 여러 가지지마는 근본은 하나기 때문에 그 근본 하나가, 그럼 이 색 쓸 때에 '나'라고 하겠느냐, 이 색 쓸 때 '나'라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평등공이라고 그래요. 어떤 걸 내세울 수 없는 게 물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걸 내세울 수 없는 게 지금 학생이란 말이지요. 자기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게 학생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나투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퀴가 굴러가면 심봉은 움쩍도 안 하고 능력만 줄 뿐이지 그 심봉이 움죽거리는 건 아니에요. 바퀴가 구를 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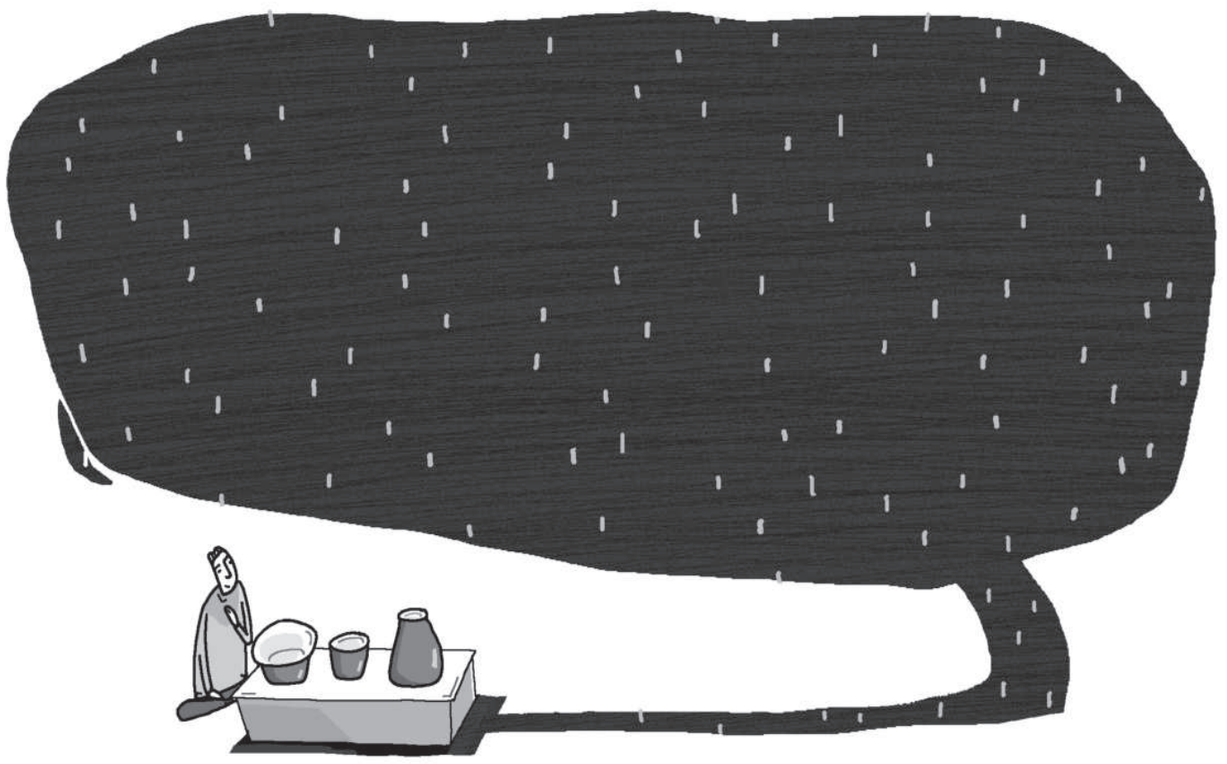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모든 일을 나투어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저 고정적인 일 해 보셨어요? 고정적인 생각, 이날까지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먹고 그런 예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난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먹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들은 그것이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한데 뭉쳐서 그냥, 만약에 비교해서 에너지라면 에너지가 그냥 전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니 나니 하고 따지고, 이 종교가 틀리니 저 종교가 틀리니 하고 따지고 이러거든요.

비유하자면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사발이 있고 뭐, 대접이 있고 컵이 있고 차관이 있고 이런데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때에 따라선 다 쓰여지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발은 종지를 미워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 이거예요. 또 사발은 저 큰 그릇을 웃보지도 말고요. 때에 따라서는 다 자기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잘난 사람만 못한 게 아니라, 그 잘난 사람보다 못난 내가 더 귀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엄마도 아무리 못났어도, 코가 언청이라도 아마 잘생긴 남의 어머니보다 당신 어머니가 중요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자기 나무에서 자기 열매가 열려서 그 자기 열매가 무르익어서 그 나무에서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딴 나무에서 무르익은 것은 딴 나무에서 무르익은 거지, 내 나무에서 무르익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아야 해요, 각자.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 자기 잠재해 있는 원소 자체, 실상의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살림하면서도 스님처럼 공부를…

질문 큰스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생활 속에서 살림하면서 스님처럼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는 이 사람들끼리도 그 마음을 모르고, 또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과거 그 사람이 무얼 했는지도 모르고, 현재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을 모두 연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담아 줄 수 있고 또 나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디? 모두가 다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죠. 죄는 없다, 고(苦)도 없고. 모든 게 없으나 아마 고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겠지, 이러죠. 모르는 게 죄고 모르는 게 고다. 내가 생각할 땐 하나도 죄 붙을 데도 없고, 인과응보라든가 그런 데 끄달릴 것도 하나도 없는데 딱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겠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이 더 잘 배웠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나보다 못할 겁니다. 난 어려서부터 안 해 본 게 없어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더 해 봤을 테니까. 내가 잘나고 또 모든 게 구조가 아주 잘났더라면 어디 꼬임에 빠져서라도 이걸 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연구하고 그러느라고 딴 사람하고 말할 사이도 없었단 말입니다. 여지가 없었죠. 생각할 여지가 어딨습니까. 말 없이 말을 자꾸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 옆댕이에서 말할 새가 어디 있어요?

목신하고도 말을 하고 또 거기에 그 목신들이, 무정물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 자기, 실상의 주인공을 믿어야

☞ 19면에서 계속

또는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주고 살고 공생, 공용을 진짜로 넣어 준 게 있느냐 이런 거. 근데 인간하고도 아주 그냥 뭐, 아주 가깝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주고 먹고 이러면서.

그리고 목신도 없는 게 아니죠. 인간의 자신도 이게 자성신이거든요. 자신, 자성신. 이게 자성신인데 목신이라고 없나요? 목신도 있다고요. 물도 신이 있어서 수호신이라고 그러죠, 용신이라고도 그러고. 수호신하고 용신하고 뭐가 다르냐? 수호신은 가만히 물이 흐르는 걸 말하지만, 가만히 물이 이렇게 동요 안 하는 걸 말하지만, 그 물만 말입니다, 있는 것, 그런데 용신은 그 물에 생명이 있어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생각을 내면서 모든 거를 이렇게 그 생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용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래요. 바로 자성신이 용신이죠. 왜냐하면 생각을 내지 않으면 무엇이 성사가 되지 않으니까, 목석이니까요. 생각을 악한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생각을 누구나가 다 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 생각 내는 데에 달려 있다. 악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선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 좀 더 선 쪽으로다 무겁게 간다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또는 잠재의식 쪽으로 한번 생각을 기울여 봐라. 그러면 너 나왔던, 전자에 내가 나오기 이전에 살던 그 세상으로 한번 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이게 그냥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에 정말이지 아픈 눈물을, 어느 때에 걸음을 걸으면서 육이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쓰러지고, 쓰러지면서도, 업드러지면서도 그, 오직 하나만 생각하고 걸었다는 거.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 맛을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도 자식 낳고 살림하면서도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신다면 못 할 게 하나 없어요.

우습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요 둑에 조그맣게 요만큼 뚫린 것이,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조금조금 고였던 그 물로 인해서 큰 둑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그맣다고 우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아무렇게나 산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동물이자, 바로 99% 100%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살고요. 돼지처럼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아시려면 자기 주처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놓는 작업부터 열심히 해 보십시오.

팔자 운명이 정해져 있는지요

질문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팔자 운명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 내가 수차 이런 말을 했죠. 수억겁 광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똑같더라도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어떠한 일,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자기가 짓고 산 그 차원대로, 즉 말하자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 속에 들어가서, 수십억 마리가 있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서 몸 하나를 받고 나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뼈, 어머니의 살을 받아서 몸 하나를 딱 받죠. 그 수십억 마리가 모였다가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고 그 한 몸 받은 데 가서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악업이나 선업을 했던, 즉 의식 자체가, 업식이 거기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돼서 이 세상에 등장하면 여러분은 과거에 내가 인연에 따라 업을 지은 것을 좋게 한 것은 좋게, 언짢게 한 것은 언짢게 받을 것입니다. 모르고 저지른 것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지은 것은 알고 받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그냥 수십억 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때는 기쁘게도 해 주고 어떤 때는 잘되게 해 주다가도, 어떤 때는 그 잘된 것이 망하게도 해 주고 어떤 때는 속상하게 해 주고, 어떤 때는 병들게 해 주고 어떤 때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 주고, 여러 가지로 고정됨이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것을 고덩어리라고 이름하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과거도 현재에 짊어지고 나왔으니 짊어지고 나온 데다 되놔라 이겁니다.

카세트 얘기 자주 합니다만 카세트에 담긴 말이 내가 현실에 또 집어넣으면 앞에 넣었던 것은 없어진다. 연방 넣으면 없어지고 넣으면 없어지면 그것이 과거에 어떠한 인과로 인해서 업을 가졌어도, 지옥고를 당해도, 악업을 지었어도 다 녹아들고 무너진다 이 소립니다.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듯이 그렇게 나온 자리에다 되놓는다면 그 카세트에 녹음하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거기다 모든 거, 무슨 업이 있다, 나는 죄가 많다, 모든 수많은 이름들의 업, 팔자 운명 이런 말도 붙이지 마시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가 하는 생각도 마시고,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냥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모든 게 당신 속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지.' 하고 놓고, 모든 게 또 좋게 되면 '아, 감사하구나.' 하고 또 놓고, 그렇게 하라는 데 뭐가 어려워요, 그게? 이거 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든 게 과거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물질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몸에, 내 가정에 다가오니까 그것을 녹이면 되고요. 그것이 일차적으로 내 마음을, 내 참나를 발견하는 데도 이익이고 내 자식들을 이끄는 데도 이익이고 부부지간에도 이익이고, 모든 게 나 하나의 자가발전소에서 불 하나 켜면 가설이 주욱, 아들이다 딸이다 뭐, 부부다 부모 형제다 하는 데 가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본래. 그러니까 자가발전소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다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다 녹아진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필연이라 해도 내 한생각으로 다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생활 불교며 생활 참선이며, 바로 이것이 좌선도 되고 참선도 되는 거죠. 마음 편안하면 그것이 좌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서 그 창살 없는 감옥에다 내 몸을 옹쳐 놓고 꼼짝 못 하게 하는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런 걸 탁 털어 버리세요.

마음은 저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우주도 갈 수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았어도 내 집엘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내 가정과 내 몸과 내 자식들을 튼튼하게 하고 부모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나라는 아집 내지 말고, 모든 것은 내 탓으로 돌리면서 모든 걸 주인공에다 놓는다면, 그리고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그러한 발전적인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실 겁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여여함입니다.

> 내 마음으로서 창살 없는 감옥에다 내 몸을 옹쳐 놓고
> 꼼짝 못 하게 하는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 그런 걸 탁 털어 버리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질문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걱정입니다. 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의 남편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한마디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여러분도 한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을 해 보시죠. 조금 잘 돌아가면 아버지가 수월하고 또 그 자식들도 부인도 일가친척들도 다 "아휴, 저이는 근면하고 아주 착실하게 잘 산다." 하고, 그게 망해 가지고 잘 안될 때, 속상해서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 "저건 저러니까 저렇게 됐다." 이러죠. 부모는 안타까워하겠지만 자식들이나 일가친척들이나 부부지간에도 그거는 금이 가고 말아요. 당신은 뭘 잘했다고 술만 먹고 그러냐 이러죠. 그 속을 알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더 따뜻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산하대지의 어머니가 된다면,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바로 태양의 아버지가 된다면, 또는 다 키워서 거름도 잘 먹일 수 있고 태양인 아버지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두 부부가 돼야만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한테도 그런 영향을 주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일은 표시도 나지 않으면서 밥해야지, 먹어야지, 빨래해야지, 치워야지 또 딴 사람이 오면 뭐, 어쩌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 엉덩이가 무겁고 다리가 무겁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하다가 남편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받아줘야 하는 이치가 있죠. 그리고 심부름해 줘야 하죠.

그럴 때에 그 말 한마디가 약이에요. 아주 "여보! 당신 오늘 하루 종일 나가셔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소? 더운데, 추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들어와서는 "여보!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집에서 표시도 나지 않는 그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소. 몸이 피곤하지?" 이렇게만 한마디 하면 그 아팠던 게 그냥 언제 그랬더냐, 내가 언제 엉덩이가 아팠나,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피곤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하하.

자식들한테도 악하게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을 해서, 모든 건 주인공에 맡겨 놓고 그저 부드럽게 말해 주고, 그저 널리 내다볼 수 있는 평화로운 그 평등한 마음. 도둑은 도둑대로 꼬리표 붙여서 생전 도둑 하라고 붙여 놓은 건 아니거든요. 또 술만 먹는 사람도 평생을 술만 먹으라고 그렇게 붙여 놓은 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술을 먹게 된 동기, 뿌리를 캐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죠.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머니들이 가지시고 뾰죽뾰죽한 입으로 뾰죽뾰죽하게 말을 하지 말고,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을 해서 그 자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소중한지 알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도리요, 아버지의 도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살림살이 빼놓고, 우리들 빼놓고, 자식들 기르는 것 빼고, 사회를 빼놓고 무슨 불법이 있겠습니까.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㉔ 은혜 갚는 삶

염불정진으로 '佛恩' 잊지 않겠습니다

〈불은〉

우리 부부는 법회 커플이다. 법회에서 만나 공부하며 눈이 맞아,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하고신혼여행을 떠난 첫날밤 두 가지 약속을 했다. 공양, 정진, 회향하는 삶을 살자고. 그리고 방방곡곡에 전법원을 개설하자고. 이 약속의 공통점은 모두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다. 문사수법회를 만난지 올해로 30년. 일산신도시 조성현장의 업무로 법회가 우선이 되지 못했던 몇 년간의 삶에서 법회가 최우선 순위가 된 계기가 있었다. 1998년 어느 날 여행길에서, 해남 대흥사 방사에 짐을 풀고 저녁예불 전에 돌아올 요량으로 두륜산에 올랐다. 그러다 산악회의 커다란 리본을 잘못 보고 내려간 절벽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다. 핸드폰도 없던 시절, "누구 안 계세요?" 소리를 쳐도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오고, 밑은 낭떠러지에다 저 멀리 강진 앞바다가 지는 해에 부서졌다. 가슴 높이까지의 땅 위로 도저히 올라갈 방도가 없었다. 운동신경은 왜 그리 좋았는지, 내려가지 말라고 일부러 커다란 리본을 달아놓은 것을 모르고 아래로 폴짝 뛰어 내려간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비현실적인 모습이다. 마른 흙벽 위로 1미터도 채 안 되는 관목이 딱 한 그루 서 있었으니 말이다. 작고 가느다란 줄기를 잡아당기면 흙은 곧장 무너져 내리고 뿌리는 뽑힐 것이며 나는 곧바로 뒤로 자빠져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게 분명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느다란 그 줄기를 잡고 올라가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눈을 감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평생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발원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크게 외쳤다. 눈을 떠보니 나는 절벽 위로 순간이동해 있었다. 나무줄기를 잡아당긴 기억도, 위로 올라온 기억도 없었다. 나무아미타불 한번 불렀을 뿐인데 나는 위로 올라와 있었다. 임업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노량진 생활도 잠시나마 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전법의 길을 가고 싶었다. 석사논문을 위해 유럽수목원에도 몇 주간 다녀왔지만, 주제에 대해 회의가 들고 쓰고 싶다는 간절함이 없어졌다. 진로를 결정해야 시점에서 내 마음은 부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 돌아보면 당시엔 마음을 잡아줄 사건을 스스로가 불러왔는지도 모르겠다. 두륜산에서 입은 부처님의 가피 덕분에 평생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노라는 약속을 지금껏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올해 1월에는 인도성지순례 중 남편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영축산에서 사진을 찍다가 20여 미터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저 시신을 어떻게 한국으로 옮길까?'를 제일 먼저 떠올렸다는 분도 계셨다. 구르다가 멈춘 육신을 보며 '죽었거나, 살았어도 평생 불구가 되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얼른 염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른네 명의 일행과 한마음으로 간절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모셨다. "부처님, 00법우를 살려주세요! 수 억겁을 지내는 동안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부디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부처님 은혜 갚는 삶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참회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하며 기도하고 염불했다.

마음 다한 염불로 위기 극복해

부처님 가피 보답하는 삶 발원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염불을 떠올릴 수 있었던 인연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이고, 가피라 여겨진다. 처음 몇 초간만 부정적인 생각이 스쳤을 뿐, 이후에는 의심하지 않아서인지 염불할 때 전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안 좋은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참회와 감사 기도만 올리면서 발원했다. 나무아미타불 법문만 계속 들었다. 남편도 염불 소리를 아래에서 다 들었다고 했다. 법문 덕분에 살려진 것이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설하신 염피관음력 법문이 그대로 펼쳐진 현장이었다. "어떤 고통과 액난 속에서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한다면, 불에서도 물에서도 산봉우리에서도 무사하리라"는 안심법문을 주신 부처님! 온 마음을 다해 염불했으니 어찌 불보살님의 감응과 가피가 함께 하시지 않았겠는가. 두륜산과 영축산에서의 살려주심은 우리의 신심을 증장시키고 원력을 공고히 하게 하신 부처님의 가피였음을 믿는다.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보은하며 살아갈 것이다.

올 한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일이 참 많다. 현대불교신문이 서른 돌을 맞은 해에 일 년간 '안심뜰'을 연재하며 법공양을 올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온라인전법으로 인연 맺은 도반들이 지난달에 다함께 수계를 받고 문사수인으로 탄생함에도 감사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새로운 인연 속에서 보은의 기회가 이어짐에도, 여름에 뉴욕을 방문하고 올란도 요가센터에서 한국불교를 알리고 법문을 나누며 글로벌 전법의 원력을 다졌음에 감사한 해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인사에 "바쁘죠!"라는 대답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진정 바빠야 할 일에 바쁜 것일까? 종교를 믿는다는 건 궁극의 의지처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의지처인 나의 참생명을 찾아가는 일이 이 세상에 가장 바쁜 일이라고 배웠다. 죽은 다음이 아닌 '지금', 내 마음 밖이 아닌 '여기'에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정진하며 복을 짓고 덕을 닦아 울타리 없는 절대세계, 불이[不二]로 살려지길 발원한다. 나의 참생명이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생명 부처님생명임을 믿기에, 모든 생명이 괴로움 없이 즐거움만 있는 극락정토에 가서 나시기를 축원한다. 한해 동안 귀한 지면을 내주시어 부처님과 법회와 법사님들, 법우들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인연에 다시금 깊은 감사의 합장을 올린다. 나무아미타불! 〈끝〉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㉚ 연골판 파열

연골판 파열, '맞춤형' 치료가 해답

1. 연골판이란?

연골판은 무릎 관절 내에서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위치한 반달 모양의 연골로, 이를 반월상 연골판이라고도 합니다. 연골판은 내측과 외측에 각각 하나씩 존재하며, 대퇴골과 경골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동시에 쿠션 역할을 하여 무릎의 자연스러운 운동을 돕습니다.

연골과 연골판은 서로 다른 조직입니다. 연골은 무릎 뼈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외피처럼 생각할 수 있으며, 연골판은 그 사이에 위치해 쿠션 역할을 하여 충격을 흡수하고, 뼈들 간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2. 연골판 파열의 종류

연골판은 체중 부하와 하중 분산 역할을 하며, 여러 원인에 의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연골판 파열은 크게 스포츠 활동에 의한 외상성 파열과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파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치료의 종류

1) 보존적 치료

연골판 파열 시, 주변에 삼출액이 발생하고 출혈 및 부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고 호전시키기 위해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을 병행하는 보존적 치료가 시행됩니다. 이는 증상이 가벼운 경우나 회복 가능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2) 수술적 치료

연골판 파열 후, 파열된 연골판 조각이 관절에 끼어 기계적 증상을 일으키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사형 파열이나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과 같은 복잡한 형태의 파열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더 높은 확률로 선택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연골판 봉합술: 파열된 연골판을 봉합하여 원래의 형태로 복원합니다.

• 부분절제술: 손상된 연골판을 제거하여 증상을 개선합니다.

두 가지 수술 모두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여 최소 침습적으로 진행됩니다.



치료법, 파열 정도 따라 달라져

각 환자에 맞는 치료법 써야해

4. 봉합술이 무조건 좋은가요?

봉합술이 절제술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환자의 현재 연골판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봉합술이 필요한 연골판 파열에서 절제술을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골판의 기능을 살리고 퇴행성 변화를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한 봉합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퇴행성 파열이나 혈류가 매우 적은 연골판 중앙부 파열에서는 봉합을 해도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런 경우, 봉합 후 제한적인 재활치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발을 4-6주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하지의 근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방법은 주치의가 MRI 등 영상을 통해 면밀히 평가한 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주치의의 경험과 실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5. 절제술은 왜 하나요?

절제술은 통증 완화를 목표로 하는 수술입니다. 봉합술이 연골판의 버팀테 응력(Hoop stress)을 회복시켜 관절염 발생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절제술은 파열된 연골판의 조각이 관절에 끼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그 부분만 최소한으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절제술에서는 증상이 없는 다른 부위는 건드리지 않으며, 파열된 부분만 절제하여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절제술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회복과 즉각적인 재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절제를 통해 환자가 빠르게 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근력 감소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절제술의 주요 목적입니다.

연골판 파열이 발생했을 경우, 파열의 상태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보존적 치료, 절제술 또는 봉합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법이 무조건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맞춤형 치료(personalized treatment)'를 통해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상효
정형외과 전문의 / 스포츠 분과 전문의



전법 일기

출가, 진정한 행복 위한 길
함께 걸어가길 발원합니다

나는 출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 내가 나를 가장 귀하게 대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왕 불교를 만났다면 재가의 신행생활에 만족하기보다 출가 수행자가 되기를 권하곤 한다.

교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봉녕사 여성출가학교'는 사실 작년 여름 수계의 조건을 대폭 낮추는 가수계 제도의 신설을 검토하는 세미나를 계기로 기획되었다. 팔상성도 가운데 '유성출가'는 싯디르타가 고귀한 신분과 권력을 보호하는 '성곽'을 뛰어 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위대한 포기를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위대한 깨달음 또한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미나 참석 당시 출가자 급감의 심각한 상황 속에 출가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모색되는 다양한 방안을 보면서 종단의 깊은 고민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근원적으로 현재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보았다. 결론은 먼저 출가한 우리가 청정과 화합이 구현되는 모범적인 승가를 형성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한국불교의 청정 승가에 들어와 직접 체험하게 한다면 출가를 망설이던 사람들이 스스로 출가를 결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하리만큼 즉흥적인 계획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불사이고, 일단은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강력한 확신이 들었다.

이후 여성출가학교의 도감 소임을 맡아 소임자스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홍보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그 자체로 수행이고 보람이었으며, 다시한번 발심하는 귀한 시간이었 다. 1기 참가자 중 1명은 정식 행자 기간을 거쳐 다가올 봄에 사미니 수계를 받게 되고 그 외의 참가자들도 언젠가 발아할 출가의 인을 심었으니 소구하던 바의 원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출가한 귀한 초심자들이 승가에 잘 적응하고 4년 동안 스님으로서 위의를 갖추고 교리적 체계를 세워 한국불교를 지탱할 여법한 비구니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나의 본래의 소임과 맞물려 출가 장려에 대한 나의 원력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얼마 전 2급 승가고시 품서식에서 고시위원장스님께서는 법납이 20년이 넘었으니 이제 선배로써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수행자가 되어주길 당부하셨다. 그동안 선배스님들의 훌륭하신 수행 여정을 본받으려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의 자세라고 생각해 온 나였기에 이제는 내가 선배가 되어 후학들을 이끌어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은 새삼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특별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것 보다 내게 원래 주어졌던 봉녕사승가대학의 학감과 여성출가학교의 도감이라는 소임을 더욱 능동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최선의 전법이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도연 스님
봉녕사승가대학 학감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⑪ 마음 밖에서 찾지 않기

나만의 '영점'을 찾아라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머리에 커다란 헤어롤을 걸고 길을 걷는다.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마주하는 풍경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이다. 젊은 친구들이 모임이 끝나고 정산을 하는데, 자기가 먹지 않은 안줏값은 빼고 정산해달라 한다는 기사를 읽는다. 모든 것이 N분의 1이 가능한 시대다. 애매함과 모호함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아파트 공터 수거함에 음식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중년의 아저씨가 주차장 도로 턱에 앉아 유튜브를 본다. 나오는 음성이 이상해 의아해하다가 그것이 빠른 배속임을 나중에야 깨닫는다.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전체를 감상하지 않고 요약본으로 대강의 스토리만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핵심만 알면 그만인 것이다.

그림 작품을 몇 마디 말로 듣고, 음악을 몇 마디 말로 감상하는 시대가 왔다. 문자 답변도 거두절미하게 '넹', 한 마디면 끝이난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영양소가 농축된 알약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음식의 맛은 책이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상상으로 가늠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야말로 '극효율'의 시대다.

장자에는 '무용지용(無用之用)'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람이 가는 길만 필요하다고 해서 나머지 땅을 다 덜어낸다면, 결국 무서워서 한 치 앞도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이다. 공기나 물처럼 너무 흔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실은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다.

시행착오 끝에 렌즈 초점 잡듯이
방황과 후회는 시간낭비가 아니다
극효율 놀음, 모두를 패배자 만들어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학생들의 대화를 듣는다. 이 정도 교육여행 경비면 자기들 몇몇이서 체험학습을 쓰고 외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한다. 교복도 편한 후드티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극효율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이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그러나 공기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이 다 휘발해 버린 생각이다. 공유된 경험과 공유된 추억 없이 어떻게 공동체를 말할 수 있을까. 극효율 앞에선 다양성 속에서 차별하지 않고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는 격식과 품위도 허례허식에 불과하다.

학생들에게 늘 간만큼 되돌아와야 내 땅이 된다고 말한다. 멀리 가기만 했지 간만큼 되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음미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남을 이기는 경쟁의 노력이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로 경쟁력을 만들려는 노력이어야 한다. 매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소명 같은 '나만의 영점'을 찾아야 한다.

무턱대고 많이 돌린다고 해서 렌즈의 초점은 맞춰지지 않는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비로소 렌즈의 초점을 잡을 수 있듯이 나의 방황과 후회는 결코 쓸데없는 시간낭비가 아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는 능력주의와 최적화는 경쟁을 당연시하고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극효율의 허깨비 놀음이 바로 높은 자살률과 저출산율, 우울증 증가로 출렁이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뿐이다.

다이어트처럼 평생 좋은 방법만 찾아다니다 정작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효율성의 역설이다. 나만의 영점을 믿을 때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쉴 수 있다. 나의 영점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선학원 스님들 이중고 외면 말아야

12월 10일 '(재)선학원 소속 분원 가등록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도제권리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선학원 소속 사찰 스님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제한 해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조계종이 2014년 제정한 '법인법' 이후, 갈등이 1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 선학원 이사회는 탈종단 수순을 밟았고 조계종도 선학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며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이어갔다.

이러는 사이, 선학원 창건주와 분원장 스님들은 조계종과 선학원의 이중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조계종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승려복지 수혜는 물론 교육과 수계 등 각종 권리를 제한받고 있으며 선학원으로부터는 임명 및 사찰 재산권을 볼모로 잡혔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싸움 속에서 그대로 노출된 스님들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강요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학원 문제를 다뤘던 조계종 내 기구 활동도 미진하기만 하다. 물론 종단 차원에서 뾰족한 대응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조계종으로 출가해 승적을 가지고 있는 한, 종단은 스님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종단의 권리 제한 해제 조치는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들 모두에게 시행되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해제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도제들에 대한 교육과 수계, 장학제도에 대한 권리제한만이라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계종은 종지와 종맥, 소의경전이라는 형식을 갖춘 종단이며 선학원은 조계종 스님들에 의해 결성된 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다른 꿈을 꾸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한다.

이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불교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혜로 선학원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그것이 조계종 정체성을 회복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병원비에 가족 생계까지,
무너진 가장의 눈물

네팔 이주민 노동자 구룽 옴 바하두르씨
아킬레스건 파열…수술비만 1000여 만원
재활도 포기…공장 폐업에 기숙사 문닫아
네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무리와 보냄을 준비하며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어느새 2024년의 마지막 한 달이 되었다. 연말에 생긴 큰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정말 엊그제 새로운 서원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2024년 새해였는데, 어느새 그 마무리와 보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이면 2025년 새해의 부푼 기대와 또 다른 서원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불교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불교는 과거-현재-미래라는 삼세(三世)를 시간으로 본다. 과거가 지나가면 현재가 오고, 그 현재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셈법이 다소 다르다. 과거에 자신이 행한 일에서 생겨난 에너지(영향력)가 미래로 먼저 간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에너지와 유사한 어떤 일을 다시 행하거나 시기가 되면 그 에너지가 지금의 현재로 이행되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미래-현재의 순으로 시간의 흐름을 논하는데 이를 '삼세실유설(三世實有說)'이라 한다.

과거는 물론 이전에 행한 일도 있으나, 지금 방금 내가 한 일도 포함된다. 지금 방금 그 일을 했어도 이미 그것을 행한 순간 벌써 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업(業, Karma)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일은 반드시 자신이 되돌려 받는다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행한 일의 결과를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원칙도 존재하는 것이다.

시간은 우리 곁에서 함께하지만
한 순간도 우릴 기다리지 않는다
보냄은 새로움 이어지도록 해야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행위의 업이 현재가 아닌 미래로 가는 것이 다소 의아하다. 그 이유는 곧바로 현재로 온다고 하면 그로 인해 미래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 그래서 그 변화의 행동이 다시금 에너지가 되어 그와 비슷한 미래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가에 따라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지난 과거에 미련을 두고 아쉬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만을 한없이 기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지금의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고 점차 변화하기 위해 수행(노력)한다면 우리의 지금이 바뀌고, 그로 인해 지난 과거는 미련이 아닌 만족스러운 어제로 변하고, 오지 않은 미래는 기대로 가득 찬 내일이 될 것이다.

이제 곧 새로운 2025년 한해가 올 것이다. 이 한 해를 '새해'라고 지칭하는 것은,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그 한해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떠나보내는 2024년은 아쉬움의 지난 한해가 아닌, 그 한해 속에서 책임져야 할 것을 더욱 확인하고, 못했던 것을 찾아 기필코 해보겠다는 다짐을 가져야 한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지금처럼 함께하지만, 그 시간은 단 한 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냉정하고 절대로 되돌려주지 않는 무서움으로 우리의 곁을 쏜살같이 지나간다. 보내는 한해가 새로운 한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을 잘 살피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과 인연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한 걸음 나아가자.

천겁이 지나도 옛날이 아니요.
(歷千劫而不古)
만세를 뻗쳐도 언제나 지금뿐이로다.
(亘萬歲而長今)

말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지난 여름은 길었다. 11월 초까지도 반소매 옷을 넣지 못할 정도로 더웠으니. 그러다 폭설이 내렸다. 폭설의 원인은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했다.

눈은 물기 많은 습설도 있고 뭉쳐지지 않아 눈싸움을 할 수 없는 건설도 있다. 강원도에서는 겨울이면 소나무가 무거운 눈을 이고 있다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듣는 일이 그다지 새롭지 않다. 이번에 많은 나무가 피해를 본 건 단지 습설이어서가 아니라 겨울이 오는데도 잎을 떨구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내 기온이 높으니 나무는 계절이 바뀌는 걸 미처 감지하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에 눈이 쏟아지니 수많은 잎에 그것도 물기 많은 눈이 쌓이며 어마어마한 하중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낙엽의 시기를 놓쳐버린 나무가 지나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니 단지 폭설이라는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이 오래도록 머무를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원인은 누구나 아는 탄소배출이다. 그렇다면 탄소배출은 대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 걸까?

'파리협약'이 통과되던 2015년,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을 때 일이 떠오른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는

기후 위기 극복 실천법 누구나 안다
내 삶을 단순하게, 검박하게 하는 것
그것 말고 달리 무슨 방법이 있을까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중요한 회의였다. 기후라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회의를 하는 이들의 허기를 달랠 카페테리아에서는 일회용품에 음식을 담아 팔았고 화장실에 가면 사용하고 버린 종이 타월이 쓰레기통에 넘쳐났다. 이런 사소한 실천을 간과한 채 어떤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건가 싶어 자괴감이 몰려왔다.

회의장을 오가며 내 안에서 회의감이 진하게 일던 어느 날 각국에서 모인 환경활동가들이 기후 위기의 해법에 관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각자가 생각하는 탄소배출을 줄일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내 바로 뒤에서 어떤 분이 플로어 발언을 청했다. 뒤를 돌아보니 대만 법고산사 뉴욕 브랜치에서 오신 한 비구니스님이었다.

"우리가 여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몰라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말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스님은 마치 내 심경을 꿰뚫어 보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당장 실천할 방법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꼭 있다. 정말 방법을 모르는 걸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 번에 뚝딱 해결할 방법은 없다. 지금 내 삶의 족함을 아는 것, 더 단순하고 검박하게 사는 것, 순간순간 깨어있어 내 삶을 객관화시켜 보는 것. 그것 말고 달리 뭐가 있을까?

빈손으로 와서 현재 누리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 비인간과 더불어 나눌 방법을 찾는 삶, 그것 말고 어떤 신박한 방법이란 없다. 결국 내 욕망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 말고 뭐가 있을까?

社 說

가톨릭 청년대회에 法제정 왜 필요한가

12월 9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이 문제가 됐다. 특별법에는 가톨릭이 주최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살펴보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이 무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대회를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위원에 국무위원들도 대거 참여토록 돼 있다.

또한 대회 이후 후속 사업을 위해 국제순례지에 체험장, 전시관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를 2037년까지 제공키로 한 조항은 사실상 가톨릭의 선교를 국비를 들여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톨릭은 2010년 이후 불교와 민족종교의 역사를 지우면서 자신들의 성지화 사업을 추진해 종교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는 선교 목적이 다분한 대회의 조직을 사단법인화 하고, 이웃종교인을 들러리 세운 뒤 '공공성'을 포장해 특별법 지원을 발의시켰다.

국무총리를 위한 국무위원을 지원조직의 위원으로 넣고 행사 시설을 10년 동안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 위배다. 종교계의 어느 대회가 이처럼 지원을 받아 개최가 되었는지, 가톨릭과 국회에 묻고 싶다. 국회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제정을 중지해야 한다.

내년에도 트렌디한 불교가 되길

매년 송년특집호에는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하게 된다. 해마다 편차가 있지만, 본의 아니게 불교계 관련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불교인으로서 기분이 좋지는 않다. 올해의 경우 좋은 소식들이 많은 편이어서 한결 마음이 편했다.

올해 10대 뉴스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힙(Hip)한 불교'였다. 어렵고 고리타분한 편견에서 벗어나, 재밌고 개성 있는 모습으로 무장한 불교는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서울·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2030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불교 굿즈들은 불티나게 팔렸다. 방문객 수가 전년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 '뉴진 스님'도 불교계 안팎에서 인기몰이를 했다.

힙한 불교 열풍과 함께 인기를 얻은 것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다. '사찰 소개팅'이라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독특함 덕분에 1년 내내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매회 높은 커플 매칭률을 보여 결혼정보회사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기실 불교는 언제나 시대를 선도하는 트렌디한 종교였고, 트렌디함을 바탕으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다. 불교의 강창과 불화, 변상도 등은 모두 부처님 법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은 그 시대를 바라본다는 의미다. 2025년 을사년에도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를 선도하는 트렌드를 불교계가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2월 1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2월 1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2월 1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천년을 세우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

성지순례 안내

- 연말연시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입니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동참과 기도는
희망의 미래불교를 만드는 불사입니다.

● **순례 안내** : 사찰(단체)의 경우 미래본부로 미리 상담 또는 일정을 알려주셔요
- 열암곡 현장 기념품 지급 : 기도의례집, 개인방석, 생수, 기념품 등
- 필요한 경우 기도법사 스님이 동행안내 및 기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 **순례 문의** : **02-730-0883 (조계종 미래본부)** / 열암곡 순례정보 ▶





「천년을 세우다」 후원동참 농협 301-0248-0882-41 (예금주 아름다운 동행)

문의 : 02-6273-0108 **ARS** : 060-700-0012 (한통화 3천원)

전국민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

- 세상과 나의 평화를 위한 실천 -

'하루 5분 선명상'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여정을 떠나보세요.

선명상 공식 어플리케이션

언제 어디서나 '하루 5분 선명상'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 '선명상'을 검색해 보세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선명상 홈페이지

선명상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고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선명상TV 유튜브 채널 개설

유튜브에 '선명상TV'를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선명상 콘텐츠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어플에서 매일 5분 명상체험 스탬프를 80% 이상 하시는 경우
매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템플스테이 체험권**을 드립니다.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참기간 : 2024년 6월 ~ 11월)

【1억원 이상】 사찰 제11교구본사 불국사 • 봉은사(서울 강남) **【1,000만원 이상】 사찰** 제6교구본사 마곡사 • 제9교구본사 동화사 • 제15교구본사 통도사 • 제17교구본사 금산사 • 관음사(충북 청주) • 대전사(경북 청송) • 법련사(서울 종로) • 법우사(전북 전주) • 보광사(경기 파주) • 보륜사(충북 옥천) • 여래사(경기 고양) • 옥천암(서울 서대문) • 용화사(경기 용인) • 운문사(경북 청도) • 정토사(울산 남구) • 화개사(인천 강화) **스님** 보인스님(경기 가평 대원사) • 심경스님(전 재심호계위원) • 탁연스님(전 총무원 문화부장) **단체** 국회 정각선원 불자회 관음회 • 대한불교조계종 국장단 •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 동학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 석연회(영주 부석사) • 재단법인 진여원 • 전국비구니회 **【100만원 이상】 사찰** 금강암(서울 도봉) • 미타암(경남 양산) • 소림사(경북 칠곡) • 약천사(경기 파주) • 연국사(전북 익산) • 정토법당(경북 경주) **스님** 묘장스님(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 법운스님(경북 청송 대전사) **단체** 대통령실 불자회 • 대한불교총화종 • 부산 여래사 불교대학 **재가자** 강평자 • 곽진희 • 김동수 • 김상기(대한불교조계종 종책특보관) • 김성자 • 김현석 • 나윤옥 • 남경희 • 박정준 • 서정복 • 신기순 • 심부자 • 엄미경 • 이교옥 • 이기영 • 전진우(보은사) • 정아영 • 한찬 • 황노미 **【100만원 미만】 사찰** 감로사 • 계룡사(경남 거제) • 달마사(경남 사천) • 백련사 • 법융사(서울 송파) • 법주사(충북 보은) • 소림사(서울 종로) • 양지암(경남 거제) • 월인사 • 장금선원 (부산 북구) • 죽림선원(충남 청양) • 총명사(경남 거제) • 해원암 **스님** 각운스님 • 경덕스님 • 구산스님 • 금오스님 • 남전스님 • 대경스님 • 대온스님 • 대우스님 • 덕림스님 • 덕상스님 • 덕운스님 • 덕유스님 • 덕제스님 • 도민스님 • 도심스님 • 도희스님 • 만당스님 • 명법스님 • 명우스님 • 묘인스님 • 무일스님 • 문종스님 • 밀엄스님 • 범석스님 • 범종스님 • 범하스님 • 법륜스님 • 법오스님 • 법인스님 • 법정스님 • 법중스님 • 법희스님 • 보명스님 • 보선스님 • 보우스님(기원정사) • 보운스님 • 보타스님 • 상준스님 • 서봉스님 • 서현스님 • 석두스님 • 선보스님 • 선안스님 • 선일스님 • 선중스님 • 선호스님 • 선화스님 • 설경스님 • 설도스님 • 성민스님 • 성욱스님 • 성원스님(제주 보리왓) • 성주스님 • 성진스님 • 성춘스님(부산 세존사) • 성행스님 • 성화스님 • 수증스님 • 신해스님 • 여여스님 • 여학스님 • 여해스님(서울 운가사) • 영경스님 • 영조스님 • 용주스님 • 우봉스님 • 우승스님 • 우현스님 • 운봉스님 • 원정스님 • 원철스님(문수암) • 일규스님 • 일묵스님 • 일화스님 • 자경스님 • 자광스님 • 적조스님(금륜사) • 정관스님 • 정법스님 • 정우스님 • 종인스님 • 증진스님 • 지선스님 • 지성스님 • 지원스님 • 지행스님 • 지현스님(관음사) • 진경스님 • 진용스님 • 진허스님 • 청목스님 • 초격스님 • 탄문스님 • 탄성스님 • 태연스님 • 해청스님 • 향림스님 • 현암스님 • 현우스님 • 혜공스님 • 혜문스님 • 혜안스님 • 호암스님 • 화평스님 • 효공스님(기원정사) **단체** (주)유성이엔지 • PLS 301호 • 거제고용센터 • 거제대 사회복지창업 • 고용24시센타 • 금용사 기도공덕회 • 대보기업 • 범일KT 플라자 • 부산KT모바일 • 세종전통문화체험관 • 한화오션 • 현진기업 **재가자** 간다미 • 강경민 • 강경숙 • 강경순 • 강다경 • 강다미 • 강다미 · 강다경 • 강대순 • 강덕순 • 강만곤 • 강부옥 • 강서진 • 강석조 • 강성후 • 강수진 • 강숙화 • 강승연 • 강쌍순 • 강연일 • 강영미 • 강옥희 • 강윤석 • 강윤아 • 강인순 • 강재원 • 강정숙 • 강종옥 • 강진희 • 강태희 • 강형숙 • 강형임 • 강혜경 • 강혜숙 • 강화심 • 강효점 • 건상봉 • 고경옥 • 고귀월 • 고명석 • 고미화 • 고민진 • 고영석 • 고영옥 • 고옥자 • 고정애 • 고종석 • 고학재 • 공승관 • 공태희 • 공형진 • 곽순덕 • 곽용석 • 구석근 • 구소민 • 구태영 • 국경섭 • 국민주 • 국형호 • 권경라 • 권귀남 • 권기봉 • 권기성 • 권대식 • 권명숙 • 권명희 • 권문경 • 권미란 • 권봉철 • 권수연 • 권순범 • 권순옥 • 권순우 • 권순자 • 권순탁 • 권순호 • 권승택 • 권오연 • 권오영 • 권욱 • 권윤철 • 권은영 • 권은하 • 권재우 • 권지용 • 권지웅 • 권태형 • 권향숙 • 권혁기 • 권현정 • 권효진 • 금덕종 • 금위야 • 금혜은 • 길춘재 • 김가람 • 김가연 • 김가연(기유생) • 김가영 • 김갑수 • 김갑순 • 김갑진 • 김강만 • 김건위 • 김건호 • 김건희 • 김경수 • 김경숙(자갈치 수산) • 김경옥 • 김경자 • 김경화 • 김경환 • 김경희 • 김귀경 • 김귀남 • 김귀옥 • 김규영 • 김근식 • 김금선 • 김금성 • 김금임 • 김금자 • 김기수 • 김기옥 • 김나연 • 김나오미 • 김나현 • 김난순 • 김남국 • 김남순 • 김농호 • 김다나 • 김대균 • 김대년 • 김덕현 • 김도현 • 김도형 • 김동우 • 김동준 • 김동현 • 김동환 • 김리나 • 김만성 • 김말선 • 김맹섭 • 김명성 • 김명수 • 김명숙 • 김명순 • 김명애 · 이재환 · 이문호 · 이윤호 • 김명희 • 김문주 • 김미경 • 김미애 • 김미연 • 김미자 • 김미현 • 김민서 • 김민선 • 김민섭 • 김민성 • 김민수 • 김민정 • 김민정 · 명장임 • 김민주 • 김민희(대성) • 김범수 • 김법영 • 김병국 • 김병오 • 김병주 • 김병학 • 김병훈 • 김보람 • 김보배 • 김보선 • 김보성 • 김복례 • 김복숙 • 김복희 • 김봉대 • 김부자 • 김부훈 • 김사운 • 김상기 • 김상덕 • 김상도 • 김상순(김정우) • 김상순(정우) • 김상휘 • 김상희 • 김서현 • 김석남 • 김석선 • 김석원 • 김선규 • 김선균 • 김선두 • 김선례 • 김선봉 • 김선숙 • 김선순 • 김선임 • 김선희 • 김성배 • 김성숙 • 김성연 • 김성영 • 김성우 • 김성윤 • 김성임 • 김성자 • 김성준 • 김성진 • 김성채 • 김성호 • 김성희 • 김세한 • 김소영 • 김소현 • 김수관 • 김수덕 • 김수선 • 김수언 • 김수은 • 김숙 • 김숙자 • 김숙종 • 김숙현 • 김숙희 • 김순열 • 김순옥 • 김순이 • 김순자 • 김순화 • 김순희 • 김술연 • 김승수 • 김시우 • 김시자 • 김시현 • 김시흔 • 김신우 • 김신자 • 김양례 • 김연순 • 김연아 • 김연자 • 김연주 • 김영각 • 김영래 • 김영록 • 김영롱 • 김영만 • 김영미 • 김영분 • 김영빈 • 김영산 • 김영서 • 김영선 • 김영숙 • 김영아 • 김영우 • 김영일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화 • 김영환 • 김영희 • 김예지 • 김옥경 • 김옥자 • 김옥희 • 김완철 • 김외숙 • 김용구 • 김용배 • 김용성 • 김용진 • 김용호 • 김우람 • 김원진 • 김유민 • 김유빈 • 김윤경 • 김윤곤 • 김윤서 • 김윤희 • 김은경 • 김은선 • 김은숙 • 김은주 • 김은희 • 김응숙 • 김의순 • 김이한 • 김인숙 • 김인실 • 김일호 • 김일호(임인생) • 김장수 • 김재란 • 김재봉 • 김재숙 • 김재연 • 김점옥 • 김정남 • 김정숙 • 김정순 • 김정애 • 김정연 • 김정자 • 김정하 • 김정현 • 김정호 • 김정희 • 김종구 • 김종국 • 김종석 • 김종선 • 김종숙 • 김종열 • 김종준 • 김주환 • 김중현 • 김지민 • 김지선 • 김지연 • 김지온 • 김지현 • 김진기 • 김진성 • 김진숙 • 김진순 • 김진영 • 김창숙 • 김천영 • 김치선 • 김태섭 • 김태윤 • 김태하 • 김태한 • 김태현 • 김태환 • 김하륜 • 김하영 • 김한일 • 김해진 • 김현순 • 김현우 · 김민정 • 김현일 • 김현주 • 김현지 • 김현철 • 김현희 • 김형규 • 김형자 • 김혜경 • 김혜선 • 김혜순 • 김혜정 • 김호철 • 김홍문 • 김효순 • 김효주 • 김흥준 • 김희수 • 김희연 • 김희은 • 김희자 • 나수영 • 나순우 • 나창주 • 나채형 • 남 민 • 남가연 • 남경순 • 남미경 • 남성우 · 최병수 · 최형수 • 남수연 • 남인우 • 남주형 • 남주희 • 남창순 • 남효창 • 노경순 • 노기순 • 노도형 • 노명재 • 노범석 • 노보현 • 노옥선 • 노용옥 • 노정순 • 노진래 • 노태익 • 노학래 • 노훈 • 노희승 • 도영호 • 라구자 • 류계선 • 류선희 • 류소윤 • 류재우 • 류지영 • 류창무 • 류환범 • 마순남 • 명성의 • 명희자 • 모동규 • 모미숙 • 모지희 • 모춘배 • 문건호 • 문경아 • 문관순 • 문광식 • 문규리 • 문금향 • 문기남 • 문기운 • 문도철(허쾌조) • 문석환(한반도평화통일) • 문선자 • 문소영 • 문수진 • 문순옥 • 문순희 • 문영주 • 문유은 • 문정란 • 문정순 • 문정심 • 문창유 • 문필순 • 문현순 • 문형균 • 문혜주 • 문호진 • 문효성 • 민경일 • 민병열 • 민소은 • 민순의 • 민은지 • 박경단 • 박경신 • 박경애 • 박경춘(계묘생) • 박경희 • 박관우 • 박광규 • 박기영 • 박대희 • 박덕자 • 박동범 • 박명숙 • 박미경 • 박미자 • 박미정 • 박미혜 • 박민자 • 박병록 • 박병숙 • 박복순 • 박봉숙 • 박봉순 • 박봉영 • 박봉희 • 박부영 • 박분현 • 박상구 · 이관순 • 박상웅 • 박상환 • 박선애 • 박선향 • 박성인 • 박성태 • 박성희 • 박세진 • 박소녀 • 박소은 • 박소현 • 박수빈 • 박숙근 • 박숙현 • 박순복 • 박순자 • 박순천 • 박승호 • 박애옥 • 박영숙 • 박영애 • 박영희 • 박옥선 • 박왕희 • 박용남 • 박용복(보은사) • 박용선(보은사) • 박용오 • 박유민 • 박윤경 • 박윤래 • 박은경 • 박은란 • 박은례 • 박은미 • 박은아 • 박은정 • 박은진 • 박을선 • 박을출 • 박의진 • 박인순 • 박재우 • 박정동 • 박정숙 • 박정우 • 박정자 • 박정주 • 박정택 • 박정희 • 박종길 • 박종선 • 박종임 • 박종진 • 박종학 • 박종현 • 박종호 • 박종화 • 박주 • 박주리 • 박주원 • 박주현 • 박주희 • 박준희 • 박지연 • 박찬미 • 박처호 • 박춘열 • 박춘자 • 박춘현 • 박춘화 • 박해숙 • 박현우 • 박효상 • 박흥규 • 방장수 • 방창선 • 방호영 • 배부남 • 배시영 • 배옥연 • 배원례 • 배은순 • 배은희 • 배종숙 • 배현순 • 배현순(개금) • 백대진 • 백상훈 • 백숙자 • 백지희 • 변명숙 • 변병태 • 변정윤 • 변지민 • 변창식 • 변희상 • 서동분 • 서동훈 • 서문옥 • 서미교 • 서민원(보은사) • 서봉교 • 서상훈 • 서성식 • 서성원 • 서수원 • 서순서 • 서순오 • 서승재 • 서원숙 • 서원희 • 서은화 • 서을선 • 서인권 • 서정복 • 서지민 • 서진우 • 서창용 • 서한홍 • 서현순 • 석영홍 • 선순화 • 선장원 • 설경자 • 설복임 • 성만제 • 성수원 • 성점둘 • 성주용 • 소억만 • 소지환 • 소혜신 • 손기준 • 손남희 • 손동민 • 손득규 • 손말순 • 손민경 • 손민혁 • 손승연 • 손승희 • 손영선 • 손영환 • 손영희 • 손은희 • 손의화 • 손준우 • 손준웅 • 손충호 • 손효진 • 손희경 • 송경희 • 송남정 • 송도근 • 송령호 • 송명란 • 송선문 • 송인숙 • 송지희 • 송하섭 • 송하현 • 송현주 • 송혜정 • 신경근 • 신경민 • 신경숙 • 신경식 • 신금자 • 신문수 • 신미경 • 신민기(병자생) • 신선아 • 신순옥 • 신승애 • 신승호 • 신영숙 • 신용삼 • 신용직 • 신용훈 • 신원령 • 신유철 • 신은진 • 신인선 • 신재원 • 신정숙 • 신춘섭 • 신칠복 • 신행자 • 신헌균 • 신현옥 • 신혜윤 • 신호갑 • 신희순 • 심성남 • 심수정 • 심영미 • 심우림 • 심윤보 • 심이현 • 심재순 • 심정섭 • 심종한 • 심훈보 • 안계선 • 안기영 • 안미정 • 안병욱 • 안병준 • 안봉선 • 안상원 • 안수걸 • 안순득 • 안연희 • 안용진 • 안위숙 • 안재은 • 안정민 • 안지환 • 안칠옥 • 안형근 • 안호삼 • 안호종 • 안홍규 • 양경미 • 양동석 • 양동윤 • 양만석 • 양미라 • 양미란 • 양산 배순옥 • 양석희 • 양성우 • 양영숙 • 양윤숙 • 양정심 • 양태현 • 양희순 • 어현경 • 엄경자 • 엄미경 • 엄보섭 • 엄영수 • 엄옥자 • 여병은 • 여연김혜숙 • 여정옥 • 여홍배미혜 • 염성현 • 오나연 • 오대겸 • 오병만 • 오선자 • 오순복 • 오옥희 • 오유준 • 오은철 • 오재원 • 오점미 • 오정환 • 오태주 • 온자영(거제도 부동산) • 우순자 • 우신오(갑인생) • 우진숙 • 원말금 • 원준수 • 원진영 • 원호강 • 원호성 • 유경숙 • 유기순 • 유남경 • 유도근 • 유명철 • 유무화 • 유미 • 유배남 • 유병삼 • 유보덕 • 유석근 • 유수진 • 유승직 • 유영근 • 유영대 • 유영희 • 유용숙 • 유은경 • 유인혜 • 유정심 • 유정애 • 유지영 • 유지은 • 유해숙 • 유해순 • 유행자 • 윤광일 • 윤국자 • 윤남희 • 윤대오 • 윤동주 • 윤명옥 • 윤미숙 • 윤미옥 • 윤서연 • 윤선자 • 윤성민 • 윤세연 • 윤소희 • 윤수영 • 윤수혁 • 윤언연 • 윤영윤 • 윤영일 • 윤영희 • 윤장숙 • 윤정애 • 윤종기 • 윤종순 • 윤주자 • 윤준성 • 윤진식 • 윤태환 • 윤하경 • 윤현곤 • 윤혜리 • 윤희원 • 윤희유 • 윤희현 • 이건수 • 이경미 • 이경술 • 이경심 • 이경애 • 이경재 • 이계희 • 이고은 • 이관심 • 이교나 • 이교범 • 이규성 • 이규자 • 이근임 • 이금 • 이금옥 • 이금자 • 이기성 • 이길선 • 이남이 • 이덕순 • 이덕희 • 이동길 • 이동례 • 이동만 • 이동연 • 이동주 • 이명숙 • 이명월 • 이명자 • 이명학 • 이무건 • 이문희 • 이미경 • 이미영 • 이미옥 • 이미자 • 이민영 • 이민우 • 이민혜 • 이민희 • 이병연 • 이병일 • 이병학 • 이복순 • 이복현 • 이봉현 • 이부돌 • 이분구 • 이분희 • 이삼순 • 이상대 • 이상민 • 이상봉 • 이상순 • 이상욱 • 이상임 • 이상태 • 이상효 • 이서우(연미) • 이서윤 • 이서현 • 이석자 • 이선균 • 이선명 • 이선화 • 이선희 · 김춘식 • 이성남 • 이성수 • 이성진 • 이성훈 • 이세레나 • 이소연 • 이소정 • 이수아 • 이수영 • 이수자 • 이수정 • 이순금 • 이순길 • 이순님 • 이순덕 • 이순옥 • 이순우 • 이순이 • 이순자 • 이순희 • 이슬기 • 이승연 • 이승엽 • 이승훈 • 이승희 • 이신규 · 조대윤 · 조주연 · 조성우 • 이양심 • 이영기 • 이영란 • 이영미 • 이영숙 • 이영순 • 이영식 • 이영식(연산동) • 이영재 • 이영희 • 이예림 • 이예슬 • 이옥순 • 이옥희 • 이용옥 • 이용완 • 이용진 • 이용희 • 이운종 • 이원경 • 이원민 • 이유미 • 이유순 • 이유옥 • 이유희 • 이윤상(허쾌조) • 이윤주 • 이윤호 • 이윤희 • 이은남 • 이은목 • 이은선 • 이은숙 • 이은아 • 이은주 • 이을호 • 이인화 • 이인희 • 이일수 • 이일주 • 이자열 • 이재민 • 이재연 • 이재원 • 이재준 • 이재협 • 이재형 • 이재화 • 이재훈 • 이정님 • 이정미 • 이정숙 • 이정옥 • 이정의 • 이정조 • 이정현 • 이정환 • 이정훈 • 이정훈 · 김현주 • 이존기 • 이종복 • 이종원 • 이종직 • 이종찬 • 이종환 • 이주미 • 이주선 • 이주영 • 이주완 • 이준민 • 이준희 • 이지원 • 이지현 • 이지효 • 이진상 • 이진아 • 이진우 • 이진이 • 이진희 • 이찬호 • 이철수 • 이춘열 • 이춘옥 • 이쾌희 • 이타순 • 이태영 • 이태주 • 이태형 • 이하연 • 이하은 · 이하연 • 이해선 • 이해연 • 이해종 • 이해주 • 이해청 • 이향옥 • 이현오 • 이현우 • 이현우(현석) • 이현주 • 이혜정 • 이호걸 • 이호득 • 이호상 • 이호성 • 이화성 • 이화제 • 이화형 • 이환세 • 이회건 • 이효구 • 이효진 • 이희순 • 이희영 • 일묵 • 임강신 • 임경희 • 임복선 • 임복희 • 임부진 • 임서영 • 임성희 · 임막래 • 임소희 • 임수성 • 임수희 • 임숙자 • 임양화 • 임영경 • 임영민 • 임영숙 • 임영자 • 임영진 • 임인규 • 임정수 • 임정숙 • 임정원 • 임정원 • 임종필 • 임창주 • 임현숙 • 자월신동범 • 장경미 • 장기환 • 장남기 • 장대해 • 장례덕 • 장무환 • 장미영 • 장민호 • 장병숙 • 장병하 • 장서영 • 장석기 • 장석대 • 장석순 • 장세기 • 장수빈 • 장수영 • 장수정 • 장수환 • 장숙희 • 장순남 • 장순녀 • 장순례 • 장승익 • 장영희 • 장용기 • 장용민 • 장용환 • 장원옥 • 장윤영 • 장윤익 • 장윤환 • 장은기 • 장인희 • 장재원 • 장채기 • 장채원 • 장춘선 • 장한빛 • 장현규 • 장현수 • 장형칠 • 장혜경 • 장혜숙 • 장혜정 • 전강채 • 전광배 • 전근식 • 전만권 • 전민경 • 전병준 • 전선희 • 전소연 • 전수연 • 전순이 • 전시우 • 전신자 • 전애숙 • 전영숙 • 전영준 • 전요한 • 전용학 • 전은화 • 전인동 • 전정선 • 전정원 • 전지은 • 전창훈 • 전현탁 • 전혜린 • 정경덕 • 정계숙 • 정규홍 • 정금숙 • 정동원 • 정명선 • 정명혜 • 정명희 • 정미숙 • 정미자 • 정민경 • 정민옥 • 정봉교 • 정봉임 • 정봉자 • 정상훈 • 정서정 • 정석진 • 정선주 • 정성기 • 정세령 • 정수연 • 정숙연 • 정숙자 • 정순금 • 정순연 • 정승철 • 정승희 • 정신호 • 정애경 • 정연명 • 정연수 • 정연숙 • 정연학 • 정연화 • 정연희 • 정영숙 • 정영심 • 정영윤 • 정영준 • 정영천 · 김서운 · 정은주 · 정은미 · 임정빈 • 정예원 • 정예진 • 정옥순 • 정옥현 • 정원석 • 정원선 • 정원영 • 정월득 • 정유탁 • 정은순 • 정은영 • 정은정 • 정은진 • 정인선 • 정재엽 • 정정숙 • 정종모 • 정종현 • 정지연 • 정지은 • 정진희 • 정진희 • 정학수 • 정한일 • 정향진 • 정현숙 • 정현정 • 정현주 • 정혜숙 • 정혜순 • 정화자 • 정회도 • 정효선 • 정희윤 • 정희은 • 제갈희 • 제지현 • 조경란 • 조경숙 • 조규환 • 조기근 • 조남선 • 조남순 • 조명숙 • 조문경 • 조미영 • 조미옥 • 조분순 • 조상민 • 조석영 • 조성북 • 조성숙 • 조성훈 · 민정 · 아띠 • 조수기 • 조수연 • 조시환 • 조신환 • 조안순 • 조영민 • 조용희 • 조우정 • 조은정 • 조은희 • 조인영 • 조지종 • 조찬우 • 조찬호 • 조춘식 • 조태숙 • 조항석 • 조향숙 • 조현숙 • 조현우 • 조형근 • 조혜정 • 조희명 • 조희임 • 주경선 • 주경수 • 주덕순 • 주민경 • 주민정 • 주영미 • 주영희 • 주호영 • 지경식 • 지우재 • 지정도 • 지정학 • 진선미 • 진송자 • 진승현 • 진영주 • 진재범 • 진홍순 • 차경자 • 차미영 • 차복심 • 차선향심 • 차은희 • 차재분 • 차중협 • 차진영 • 채영순 • 천복선 • 천용희 • 천은환 • 천인경 • 최경남 • 최경화 • 최경희 • 최금자 • 최금호 • 최다연 • 최단애 • 최두용 • 최명민 • 최명자 • 최명희 • 최문영 • 최미랑 • 최미혜 • 최병도 • 최복순 • 최복희 • 최산 • 최선미 • 최선희 • 최성근 • 최성민 • 최성혜 • 최솔비 • 최수경 • 최순교 • 최순옥 • 최승호 • 최연교 • 최연주 • 최영국 • 최영덕 • 최영일 • 최영자 • 최영주 • 최예라 • 최용분 • 최용석 • 최용자 • 최윤덕 • 최윤례 • 최윤선 • 최은숙 • 최인숙 • 최임수 • 최장우 • 최재규 • 최재근 • 최재순 • 최재천 • 최정숙 • 최정재 • 최종인 • 최준희 • 최지연 • 최지은 • 최진영 • 최춘옥 • 최현규 • 최형수 • 최형찬 • 최호승 • 최화실 • 최황웅 • 편보영 • 편수장 • 표옥경 • 표점례 • 하상용 • 하영숙 • 하유근 • 하정아 • 하정은 • 하정인 • 하종화 • 하진호 • 하향덕 • 하형근 • 하회진 • 한경수 • 한경희 • 한귀연 • 한도희 • 한미선 • 한상원 • 한상희 • 한선희 • 한숙이 • 한영주 • 한옥단 • 한용희 • 한유림 • 한은자 • 한재영 • 한정춘 • 한정화 • 한진경 • 한채원 • 한추영 • 한충희 • 함근녕 • 함선애 • 함준호 • 허경임 • 허금도 • 허분자 • 허수길 • 허영숙 • 허점생 • 허정화 • 허종국 • 허지연 • 허지이 • 허태영 • 현문수 • 현민수 • 현순기 • 현암 • 현애순 • 현혜수 • 홍경희 • 홍다영 • 홍서윤 • 홍성덕 • 홍성미 • 홍성완 • 홍영기 • 홍외자 • 홍우자 • 홍을늠 • 홍점녀 • 홍정표 • 홍천애 • 홍철호 • 홍춘자 • 홍태준 • 홍현숙 • 황경하 • 황려래 • 황수정 • 황용태 • 황용호 • 황윤음 • 황윤호 • 황은숙 • 황인순 • 황임연 • 황창윤 • 황해연 • 황해정 • 황현재 • 황혜숙 • 황호영 • 휴다인(이연희) **기타** 구찌(반려견) • 영가 권원영 • 영가 김길홍 • 영가 김민혜 • 영가 김성관 • 영가 김재연 • 영가 김현주 • 영가 옥영준 • 영가 이승수 • 영가 이이쁜이 • 영가 이정숙 • 영가 장호광 모친 • 영가 조득형 • 영가 홍종숙 • 해원암 해피 · 방울 · 목탁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총 무 원 장 **진 우**